

수시연구

2023-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a Marine Leisure and Tourism City

최일선 · 이슬기 · 김예림 · 안유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a Marine Leisure and Tourism City

최일선 · 이슬기 · 김예림 · 안유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최일선, 이슬기, 김예림, 안유정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슬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예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안유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연구보조원 김성아 한양대학교 도시공간계획연구실 연구원

연구기간 2023. 3. 13. ~ 2023. 9. 12.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최일선 연구총괄, 제1장, 제3장 1절 일부, 제3장 2절, 제3장 3절, 제4장 1절, 제4장 2절 일부, 제5장
내부연구진	이슬기 제2장 1절, 제2장 3절 일부, 제3장 1절 일부, 제4장 2절 일부 김예림 제2장 2절, 제2장 3절 일부, 제4장 2절 일부 안유정 제3장 1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박창환 동서대학교 교수 최영인 해양수산부 서기관 허중호 해양수산부 서기관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통하여 연안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시장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더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정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도시들은 각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세계 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시장에 대비하고 도시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과 도시의 체계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자산과 연안·해양도시의 발전역량을 결합한 ‘해양도시’와 ‘레저관광도시’를 접목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을 고찰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레저·관광·문화·생태·교육·경제 등과 연계하여 국민 해양레저관광수요를 충족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과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다차원적 기능과 목표를 추구하는 도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과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성공적인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제전략연구본부 최일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iii

Executive Summary _ xi

01	서론 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	10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_15	
	제1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15
	1. 국내 정책 동향 분석	15
	2. 국외 정책 동향 분석	47
	제2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54
	1. 국내 사례분석	54
	2. 국외 사례분석	60
	제3절 종합분석	69
0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 정립 _77	
	제1절 국내 해양도시 경쟁력 분석	77
	1. 국내 해양도시 발전여건 및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분석	77
	2. 국내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심층 진단·분석	85

제2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98
1. 해양도시의 개념	98
2. 관광레저도시의 개념	100
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과 특성	102
제3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 및 개발모형 구축	108
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	108
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 구축	110

04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방안 _113

제1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방향	113
제2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과제	116
1. 해양레저관광 통합 정책체계 구축	116
2.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	119
3.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 마련	126

05 결론 및 정책제언 _133

제1절 결론 및 요약	133
제2절 정책제언	137
1. 법·제도 개선방안	137
2. 거버넌스 구축방안	143
제3절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46
1. 기대효과	14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7

표 목차

〈표 1-1〉 주요 선진국 해양레저관광산업 경제적 가치 비중	2
〈표 1-2〉 선행연구 현황	11
〈표 2-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개요	16
〈표 2-2〉 관광거점도시(5곳) 비전 및 기본계획(안)	18
〈표 2-3〉 도시별·연도별 관광거점도시 사업규모	20
〈표 2-4〉 문화도시 개요	22
〈표 2-5〉 문화도시 추진주체	23
〈표 2-6〉 제1~4차 문화도시(24곳) 사업 비전	24
〈표 2-7〉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개요	26
〈표 2-8〉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주체	28
〈표 2-9〉 2020~2023년 스마트관광도시(11곳) 사업 비전	28
〈표 2-10〉 기업도시 개요	29
〈표 2-11〉 관광레저도시 개발특성 비교	30
〈표 2-12〉 관광레저도시 추진단계	30
〈표 2-13〉 관광레저도시(3곳) 사업내용	31
〈표 2-14〉 스마트도시 발전단계	33
〈표 2-15〉 스마트도시 개요	34
〈표 2-16〉 스마트도시 추진주체	35
〈표 2-17〉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2곳) 사업내용	35
〈표 2-18〉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36
〈표 2-19〉 전남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39
〈표 2-20〉 경기 시흥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41
〈표 2-21〉 강원 고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42
〈표 2-22〉 제주 서귀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43
〈표 2-23〉 전북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44
〈표 2-24〉 경북 경주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45
〈표 2-25〉 충남 보령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46
〈표 2-26〉 유럽문화수도 개요	47
〈표 2-27〉 유럽문화수도 추진주체	49
〈표 2-28〉 1985~2023년 문화수도(68곳) 현황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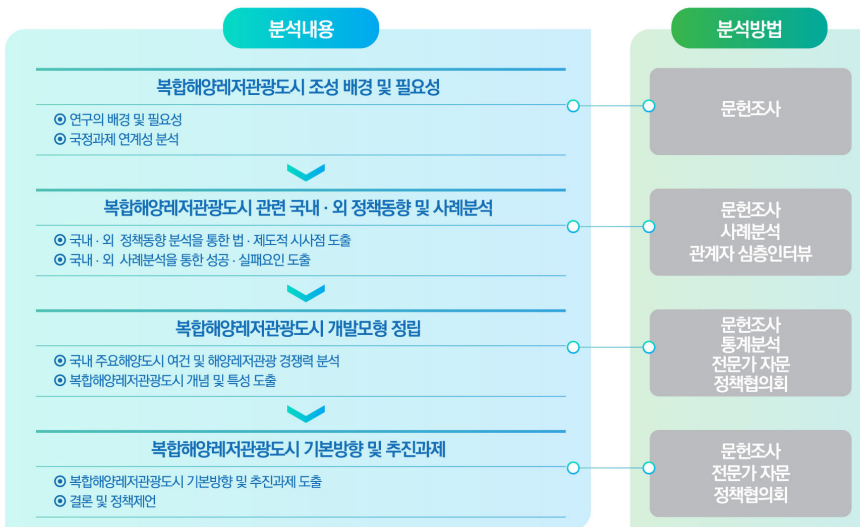
〈표 2-2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개요	51
〈표 2-30〉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11곳) 사업내용	52
〈표 2-31〉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요	55
〈표 2-32〉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요	57
〈표 2-33〉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요	59
〈표 2-34〉 바르셀로나 시우타드 벨라 개요	61
〈표 2-35〉 골드코스트 해양산업단지 개요	65
〈표 2-36〉 라그랑모트 해양레저관광단지 개요	67
〈표 2-3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진 현황	69
〈표 2-38〉 관광거점도시 육성 관련 국내 정책 현황	73
〈표 2-39〉 국내·외 사례 종합	75
〈표 3-1〉 연안지역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규모 트렌드	81
〈표 3-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2017~2019)	82
〈표 3-3〉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기준(2022년 기준)	85
〈표 3-4〉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연안경제 평가	86
〈표 3-5〉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관광수요 평가	87
〈표 3-6〉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관광공급 평가	89
〈표 3-7〉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	97
〈표 3-8〉 관광레저도시 유형	100
〈표 3-9〉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군집분석 결과	111
〈표 4-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17
〈표 4-2〉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	125
〈표 4-3〉 지역 해양레저거점 전략 마련을 위한 추진방향	132
〈표 5-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요약	136
〈표 5-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비교·분석(1)	138
〈표 5-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비교·분석(2)	140

그림 목차

〈그림 1-1〉 연도별 해양관광 시장규모 변화 추이	3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7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9
〈그림 2-1〉 관광거점도시 사업내용 및 육성체계	17
〈그림 2-2〉 문화도시 추진단계	25
〈그림 2-3〉 스마트관광도시 구성요소 및 조성방식	27
〈그림 2-4〉 7대 권역 구상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안)	38
〈그림 2-5〉 전남 보성 별교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 현황	40
〈그림 3-1〉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분석 결과	79
〈그림 3-2〉 해양수산레저관광업 총수출, 총수입, 무역수지	83
〈그림 3-3〉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	84
〈그림 3-4〉 기업도시 유형 내 관광레저도시의 핵심요소	101
〈그림 3-5〉 관광 공간의 변화	102
〈그림 3-6〉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공간배치	103
〈그림 3-7〉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도출	104
〈그림 3-8〉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연결성	105
〈그림 3-9〉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	107
〈그림 3-10〉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연관 산업·시설 추진요소	108
〈그림 3-1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연관 시설·산업 세부 추진요소	109
〈그림 3-1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	110
〈그림 3-1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	112
〈그림 4-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기본방향	113
〈그림 4-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방안	115
〈그림 4-3〉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률 현황	116
〈그림 4-4〉 영국관광청 인바운드 관광객의 조사 결과	121
〈그림 4-5〉 디즈니 크루즈의 콘텐츠	122
〈그림 4-6〉 퀴즐랜드 해안패스 구간	123
〈그림 4-7〉 연안경제 오픈 플랫폼 예시	124
〈그림 4-8〉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현황	127
〈그림 4-9〉 영국 혈의 예술과 해양문화를 접목한 해양도시개발 사례	129
〈그림 4-10〉 남해안 연안크루즈 연계 방안	131
〈그림 5-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버넌스	143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자료: 저자 작성

■ 정책제안

1. 해양레저관광 통합 정책체계 구축
2.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
3.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 마련

요 약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 이슬기 · 김예림 · 안유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중
- 해양레저관광은 연안지역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음
 - ※ 2021년 기준,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은 4조 9,230억 원, 2022년 연안지역 방문자는 19억 9천만 명 수준으로 전국 방문자 수의 71% 수준이며, 해양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은 37조 4,400억 원으로 코로나 19 이후 주목받기 시작
- 지역은 해양레저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해양 레저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이행 중
- 해양수산부는 연안지역의 해양레저관광 분야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대응 중이나 특정 구역 또는 관광단지 차원의 점 단위 개발사업이라는 한계 존재

-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시장에 대비하고 도시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과 도시의 체계적 조성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화를 통한 도시정부 간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해양 레저관광시장 접근 필요
-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자산과 연안·해양도시의 발전역량을 결합한 ‘해양 도시’와 ‘레저관광도시’를 접목한 개념 고찰 및 추진방안에 관한 기초 정책 연구 필요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문화·생태·교육·경제 등과 연계하여 국민 해양레저관광수요 충족,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다차원적 기능과 목표를 추구하는 도시로 개념 정립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강조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통하여 연안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와 함께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맞물려 국민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 중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등의 정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구축 사업을 2023년 추진 중

3) 연구목적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목표, 기능, 역할 등 체계적인 개념 정립 및 특성 도출
- 우리나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도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병행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및 사례를 분석하고자 문헌조사, 관계자 심층 인터뷰, 사례분석 등을 실시함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 및 특성 도출을 위한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연구협의회를 실시함
 - 국내 주요 해양도시의 관광경쟁력을 평가, 진단하기 위하여 기존 KMI에서 개발한 연안지역발전지수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지수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함
 - 국내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여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유형 및 특징을 도출함

2) 정책화 방법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 및 추진방안 도출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실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 도출을 위하여 정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실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국내·외 레저관광 도시 정책은 지역의 관광도시 개발·육성 중
 -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환경·역사·문화적 특색을 브랜드화하는 차별화된 지역 전략과 사업 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세분화하여 지원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음
 -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 중임
 - 관광객뿐 아니라 도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친수도시로 만들어 일상과 관광이 융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중임
- 국내·외 레저관광도시 사례는 민간투자 유치가 핵심
 - 국내는 기업도시, 관광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관광도시의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해외는 중앙정부 주도, 지방정부 주도, 지방이 인프라를 조성 후 민간이 투자 유치하는 다양한 방식을 차용하고 있음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 및 연안 공간에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연계된 다양한 기능적 레저관광의 활용과 경험을 중심으로 다중사업이 복합된 성장형 도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도시의 전체 기능 중 도심 인근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해양·레저·관광·문화·산업 기능을 분담하는 해양위성도시의 성격을 띠어야 함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레저·해양관광·해양휴양·해양문화 기능의 핵심 해양레저관광 권역과 주거, 상업, 교육 등 도시의 자조적 정주 기능의 배후도시가 연결된 복합적인 기능도시임
 -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해양공간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상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의 집객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권역과 배후도시의 정주·상업·교육·교통 기능 연결이 핵심이며,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지역민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신사업의 가치사슬을 연계한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은 다원적 목표를 추구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해양레저관광수요 충족,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도시임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본방향은 중앙과 지역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새로운 해양레저관광과 해양도시의 기능이 결합된 자족적 도시 개발
 - 모두가 살기 좋은 해양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와 지역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사람 중심의 모두가 살고 싶은 해양도시를 구현
 - 누구나 찾고 싶은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계절 누구나 자유롭게 찾고 싶은 도시를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

〈요약 그림 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기본방향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 해양레저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해양레저관광 통합 정책체계 구축: 원스톱 체류형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정책방안 마련,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주요 어젠다 설정
 -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구축, 해양 안전여행 인증제 도입,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브랜드 구축,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
 -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 마련: 연안 환경·문화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전략 마련, 지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 시장확대 중심 유치 전략 마련, 해양레저관광 거점지역 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2) 정책화 방안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은 법·제도 개선방안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개발 특별법(안)」과 「해양관광진흥법(안)」의 재추진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의 핵심은 민간투자의 특례사항을 통해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화되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은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족적 도시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의 핵심으로 는 사업의 계획부터 개발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임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목표와 기능 및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여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의 선행연구로 활용할 수 있음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핵심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법 개정에 관한 필요성을 제시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

-
- 그간 점단위 단지 개발 차원의 해양레저관광정책을 확대하여 도시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을 한다면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해양레저관광수요 충족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원적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a Marine Leisure and Tourism City

Il-Sun Choi · Seul-Gi Lee · Ye-Lim Kim · Yu-Jeong An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South Korea's coastal regions actively promote the marine leisure tourism industry as an economic growth driver.
- Marine leisure tourism contributes to the economic impact, job creation, an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n coastal areas.
- ※ As of 2021, the revenue of marine leisure tourism businesses reached KRW 4.923 trillion, and the number of visitors to coastal regions in 2022 was approximately 19.9 billion, accounting for 71% of the national visitor count. The revenue of marine tourism-related industries was KRW 37.44 trillion, gaining attention after the onset of COVID-19.

-
- In pursuit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marine leisure tourism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itizens, various pledges related to marine leisure tourism have been announced and implemented at the regional level.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developing plans for creating prominent marine leisure tourism destinations in response to the policy demands in coastal regions, but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specific areas or tourism complexes.
 - **Preparation of a Systematic Approach to Marine Leisure Tourism and Urban Development from a City Perspective.**
 - There is a need to prepare systematic approaches to marine leisure tourism and urban development from a city perspective to prepare for the growing marine leisure tourism market, which is centered around coastal regions.
 - Fundamental policy research is required to explore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ing the marine leisure tourism assets of the region with the development capacity of coastal and marine cities, combining the concepts of “Marine City” and “Leisure Tourism City.”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which aims to fulfill multi-dimensional functions and objectives, such as meeting the demand for national marine leisure tourism, creating added value for the regional economy, attracting foreign tourists, and integrating marine culture, ecology, education, and economy.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The government under President Yoon Seok-yeol emphasizes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in the context of “National Policy Objective 73: Prosperous Coastal Areas, Vibrant Oceans.”
- The primary goal is to enhance the vitality of coastal econom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In alignment with this, it is essential to expand opportunities for citizens’ travel, in line with “National Policy Objective 61: Joyful Nation through Travel, Elevating South Korea through Tourism.” This effort aims to boost regional economic vitality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 South Korea is actively pursuing policy project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globally recognized tourism cities representing the regions.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tinues to promote policy projects related to regional tourism hub cities and cultural cities, whil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set to initiate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centered around coastal regions in 2023.

3) Purpose

-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conceptual framework and the derivation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goals,

functions, and roles of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 Deriving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for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in South Korea.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combin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as employed.
- To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related to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and examine relevant cases, literature reviews,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 For the derivation of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literature reviews, expert consultations, and research meetings were conducted.
- To evaluate the tourism competitiveness of major domestic coastal cities, the existing Coastal Area Development Index (KMI) and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were utilized for analysis.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ditions analysis of major domestic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cluster analysis was used to deriv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2) Policy-making methods

-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a policy advisory council was convened.
-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policy discussions involving government and academic experts were conducted.

3. Result

1)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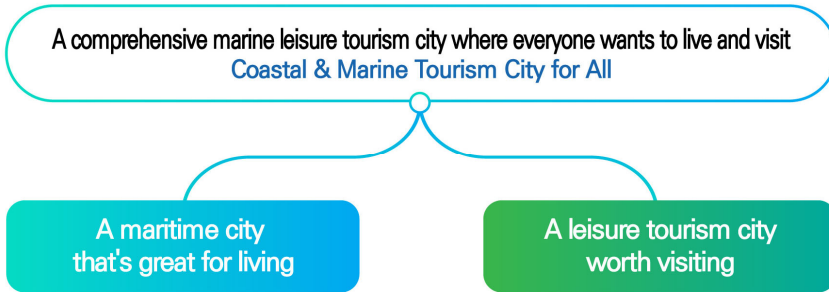
-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isure tourism city policies are active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regional tourism cities.
- These policies aim to expand differentiated regional strategies and business development that capitalize on the unique environmental,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egions.
- Support policies ar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scale and nature of regional tourism hub cities.
- Incentive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smoothly, facilitating long-term sustainable growth.
- Efforts are being made to create a city environment where both tourists and residents can enjoy, blending everyday life with tourism.

-
- Ca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isure tourism cities highlight the central role of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 Domestically, various systems such as enterprise cities, tourism complexes, foreign investment zones, economic free zones, and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are actively utilized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n tourism cities.
 - Internationally, various methods are adopted, including central government-led, local government-led, and private investment aft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s.
 -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is a multifaceted growth city that focuses on the utilization and experience of various functional leisure tourism activities that link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marine and coastal spaces.
 - Such a city should be characterized by a marine-satellite city that allocates marine, leisure, tourism, culture, and industrial functions to areas with convenient urban accessibility near the city center.
 -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connects the core marine leisure tourism areas of ocean leisure, marine tourism, marine relaxation, and marine culture with the background city functions such as residential, commercial, educational, and the autonomous city functions of the city.
 -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the key lies in the role of attracting visitors in marine tourism to overcome seasonality and ensure commercial viability. This involves connecting the

functions of hub areas performing this role and the background city functions related to residence, commerce,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From an industrial ecosystem perspective,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marine industry ecosystem that connects the value chain of new businesses offering fresh business opportunities to the local population.

- The functions of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pursue multi-dimensional goals.
 - Such a city aims to achieve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through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satisfy the demand for national marine leisure tourism, and attract foreign tourists.
-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is self-sustaining urban development where both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provide support, and the private sector takes the lead, combining the functions of new marine leisure tourism and marine cities.
 - To achieve a maritime city where everyone can live comfortably, it encompasses various values that cities and regions aspire to, realizing a people-centered maritime city that everyone wants to live in.
 - To realize a marine leisure tourism city that anyone wants to visit, it creates a city that everyone can freely visit year-round.
 - To achiev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usher in an era of living well for all.

〈Summary Picture 1〉 Basic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Achieve the Basic Direction for a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y are suggested.
-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rine leisure tourism policy framework that reflects marine leisure tourism trends: Develop policy plans for creating all-inclusive maritime leisure tourism cities with one-stop stay features, establish an integrated platform for coastal marine leisure tourism, and set the key agendas for the National Tourism Strategy Council for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 To foster a global marine leisure tourism ecosystem: Build an industry ecosystem at a global level, introduce a marine safety travel certification system, develop the brand for global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formulate plans for attracting international cruise tourists, establish a system for assessing and monitoring the demand of foreign marine leisure tourists, create a global marine leisure tourism network, and develop promotional strategies.

- To develop regional marine leisure tourism hub strategies: Formulate regional brand strategies taking into account coast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develop strategies for attracting regional marine leisure tourism hub markets, and devise plans to enhance collaboration between marine leisure tourism hub regions.

2) Policy recommendations

-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includ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trategies and governance framework establishment plans.
- To systematically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it is suggested to re-propose the “Special Act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and the “Marine Tourism Promotion Act.” The core of the proposal is to designate development zones through special provisions for private investment to ensure autonomy while securing the public nature of urban development.
-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should involve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and be primarily driven by private initiatives. The core of this proposal is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agency to systematically oversee the entire process, from project planning to development.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The systematic conceptualization of the goals, functions, and roles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can be used as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ment projects.
- It can be employed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ongoing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for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 Through policy recommendations that aim to activate private investments, the imperative for legislative revisions may be underscored.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can stimulate the economy in coastal areas and address the demand for new marine leisure tourism markets.
- A comprehensive approach from a city perspective, expanding from the development of point-based facilities, will not only impact tourists but als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 The proposed functions of comprehensive marine leisure tourism cities, which aim to achie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oster a good living environment in local regions,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satisfy the demand for national marine leisure tourism, and attract foreign tourists, are expected to yield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강조하였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통하여 연안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은 연안경제 활력 제고뿐 아니라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맞물려 국민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등의 정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사업을 2023년 현재 추진 중이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의 배경에는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와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 먼저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 세계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인지하고 적극 육성 중이다. 주요국의 해양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해양관광이 전체의 1위를 차지하여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1〉 주요 선진국 해양레저관광산업 경제적 가치 비중

단위: 원

구분	미국 (‘18)	중국 (‘20)	포르투갈 (‘18)	프랑스 (‘18)	스페인 (‘18)	이탈리아 (‘18)
해양경제 규모 (GDP 비중)	459조 (1.7%)	1,457조 (7.9%)	8.3조 (3.3%)	31조 (1.0%)	47조 (3.0%)	34조 (1.5%)
1위 (비중)	해양관광 (41.4%) (190조)	해양관광 (17.4%) (254조)	해양관광 (77.0%) (6.4조)	해양관광 (50.9%) (16조)	해양관광 (72.3%) (34조)	해양관광 (45.0%) (15조)
2위 (비중)	해양광물 자원 (27.9%) (128조)	해양교통 운송업 (7.1%) (104조)	수산 (13.2%) (1.1조)	항만 (15.1%) (4.7조)	수산업 (11.0%) (5.2조)	해운 (20.4%) (6.8조)

주: 2023년 8월 환율 적용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 Blue Economy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 연안지역 역시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며,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해양수산부와 남해안 3개 지자체인 부산, 전남, 경남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¹⁾ 2022년에는 해양수산부와 충남도가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²⁾

해양레저관광은 연안지역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 및 교통 접근성 개선 등으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 해양레저관광

1) YTN(2023.2.19.)(검색일: 2023.7.13.)

2) 해양수산부 동정자료(2022.9.14.)(검색일: 2023.7.13.)

사업체 매출액은 4조 9,230억 원 수준으로 연안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³⁾ 2022년 기준 연안지역 방문자⁴⁾는 19억 9천만 명 수준으로 동 기간 전체 우리나라 전국 방문자 수⁵⁾ 28억 명의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을 즐기는 대부분의 여행객이 연안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⁶⁾

또한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상권 매출액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 규모는 37조 4,400억 원 수준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해양관광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⁷⁾

〈그림 1-1〉 연도별 해양관광 시장규모 변화 추이



자료: 최일선·이슬기·김예림(2023), p. 5.

3) 해양수산통계시스템(검색일: 2023.7.13.)

4) 연안지역 방문자는 연안에 인접해 있는 7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방문자를 집계함

5) 전국 방문자 수는 외부인 방문자 숫자임

6)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검색일: 2023.8.30.)

7) 최일선·이슬기·김예림(2023), p. 5.

지역 역시 이러한 흐름과 함께 국민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이행 중이다. 서울은 수변공간 활용 제고, 부산은 세계 최초 해상도시 조성, 인천은 친수도시 조성, 전남은 남해안 신성장 해양관광벨트 구축, 경남은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울산은 해양관광특구 조성, 충남은 서해안 국제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⁸⁾

해양수산부는 연안지역의 해양레저관광 분야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계획 등을 마련하여 대응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을 통하여 권역별 거점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남 보성, 경기 시흥, 강원 고성, 제주 서귀포, 전북 군산 5곳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⁹⁾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특정 구역 또는 관광단지 차원의 점 단위 개발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주도의 전략도시 육성을 통해 관광도시를 개발 지원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도시로 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강원 강릉,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안동을 선정하였다.¹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관광 브랜드를 바탕으로 글로컬(Glocal)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선정하여 세계 수준의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5,785억 원이다.¹¹⁾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문화를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8.17.)(검색일: 2023.7.17.)

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2.5.)(검색일: 2023.7.12.)

1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8.)(검색일: 2023.7.17.)

1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p. 114.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으로 문화도시 지정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을 대상으로 5~7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¹²⁾

이러한 정책 동향 및 시대적 흐름과 함께 글로벌화를 통한 도시정부 간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해양레저관광시장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광시장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더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정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도시들은 각자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도시는 세계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며 장소 마케팅, 도시 마케팅의 관점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은 도시 브랜드 개발을 통해 레저관광과 투자유치, 전문인력 확보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레저관광 대표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도시 브랜딩을 위해 장소 마케팅 전략과 관광 프로그램 보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센토사 10개년 개발계획(2002년), 센토사-브라니 개발계획(2019년)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¹³⁾ 이 밖에 중국 하이난, 프랑스 라그랑모뜨, 호주 골드코스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세계 해양도시에서는 다양한 전략으로 해양레저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며, 해양레저관광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 중이다.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시장에 대비하고 도시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과 도시의 체계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기존 해양도시와 레저관광

12) 문화체육관광부(2021), p. 9.

13) 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 website(검색일: 2023.7.17.)

도시를 접목한 개념 고찰 및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는 점 단위 또는 단지 차원의 관광거점이 아닌 관광도시, 문화도시, 레저관광도시와 연계·융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해양 레저관광 자산과 연안·해양도시의 발전역량을 결합한 ‘해양도시’와 ‘레저 관광도시’를 접목한 개념 고찰 및 추진방안에 대한 기초 정책연구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문화·생태·교육·경제 등과 연계하여 국민 해양레저관광수요 충족,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다차원적 기능과 목표를 추구하는 도시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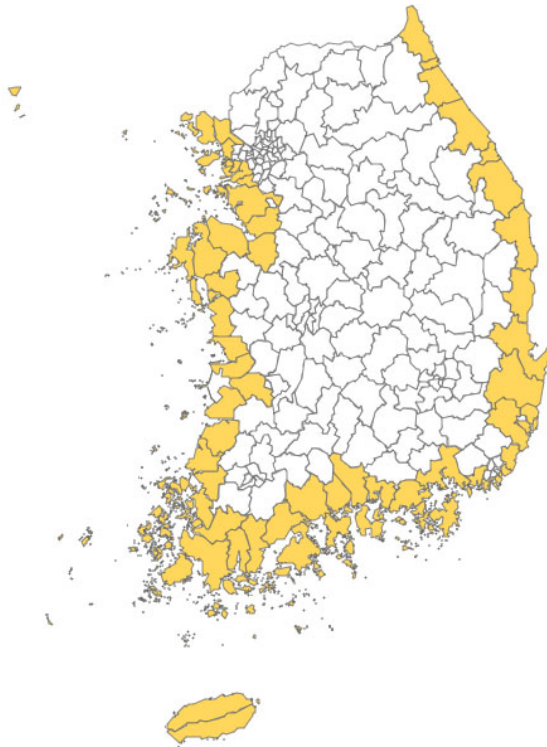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목표,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립 및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관광 도시·해양도시 관련 사례 및 정책분석 등을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 레저관광 심층 진단을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 및 개발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연안도시로 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안 광역·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우리나라 연안은 55개 광역·시·군으로 구성된다.

내용적 범위를 보면 제1장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정책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의 성공·실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을 정립하고자 먼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고, 국내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레저관광 부문을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추진요소와 개발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고자 문헌조사, 관계자 심층 인터뷰,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및 특성 도출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연구협의회를 실시하여 정책적 개념의 정의, 목표, 기능, 역할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주요 해양도시의 관광경쟁력을 심층·평가 진단하기 위하여 기존 KMI에서 개발한 ‘연안지역발전지수’와 ‘지역해양관광 경쟁력지수’의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추진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와 유사한 관광레저도시,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해양도시 등의 개념 정립 및 사례분석, 가이드라인 정립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이들 개념과 연계·융합하고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자산과 연안·해양도시의 발전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대상 및 범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국내연구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 되는, 도시와 연계한 관광, 문화 등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한정하여 연안·해양도시를 대상으로 공간적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적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국내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국외 연구의 경우 대부분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를 통한 통계분석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개념 정립 및 특징 규명을 위한 문헌연구, 유사 사업 및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선행연구 현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선행연구 현황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 연구자(년도): 김성진(2005) • 연구목적: 관광레저도시의 개발모형을 정립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문헌연구 • 현장조사 • 전문가조사 • 전문가자문 • 연구협의회 등	• 관광레저도시의 개념 및 특성 규명 • 관광레저도시 관련 법령검토 • 관광레저도시 국내·외 사례분석 • 개발모형 및 성공요인 도출 •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안
2	• 과제명: 도시마케팅 관점에서 본 해외 관광레저도시 사례 연구 • 연구자(년도): 오동훈 외(2008) • 연구목적: 해외 관광레저도시의 성공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상 및 계획 관련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등	• 관광레저도시와 도시마케팅 개념 • 유형별 사례연구(수변형 관광레저기업도시, 해안형 관광레저도시, 해안형 관광레저도시, 산악형 관광레저도시) • 유형별 시사점 도출 • 국내 관광레저도시 구상 방안 제안
3	• 과제명: 해양관광레저도시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추정: 가상시장가치 평가법(CVM)의 적용 • 연구자(년도): 소국섭(2010) • 연구목적: CVM을 활용하여 잠재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여 민자 유치 및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증자료로 활용	• 문헌연구 • 설문조사 활용 CVM 분석 등	•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념 • 비시장재화가치 평가법 고찰 • CVM 실증분석
4	• 과제명: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연구자(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 연구목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 문헌연구(현황 및 정책, 관련계획 등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타당성 분석 등	• 국내·외 관광 현황 분석 • 각 지자체 세부 관광사업 계획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 검토 • 사업목표의 부합성 검토 • 수요추정 결과와 기대효과 적절성 검토
5	• 과제명: 관광정책의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관광도시사업과 관광거점도시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김부권·이연정·원두환(2020) • 연구목적: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국제관광도시사업과 관광거점도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문헌연구 • 산업연관분석 등	• 산업연관분석 선행연구 검토 • 관광사업 경제파급 분석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6	• 과제명: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연구: A' WOT 기법을 활용하여 • 연구자(년도): 이상민 외(2022) • 연구목적: A' WOT기법을 활용하여 지역관광거점도시 목표시를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 문헌연구 • A' WOT 분석 (SWOT + AHP 분석의 결합) • 전문가 의견조사 등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검토 • A'WOT 분석방법 선행연구 검토 • 계층구조 설정 및 분석
7	• 과제명: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조광호·박만식·이선영(2016) • 연구목적: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추진방향 및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 문헌연구 • 현장조사 •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 문화도시 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문화도시 개념정립 • 문화도시 정책 구성 • 문화도시 지정절차 • 문화도시 사업·활성화 • 문화도시 정책 지원
8	• 과제명: Branding the city through culture: Istanbul,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10 • 연구자(년도): Ayşe Banu Bıçakç ı (2012) • 연구목적: 유럽문화도시에 선정된 이스탄불을 대상으로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도시브랜드를 차별화하는 문화적 요소 고찰	• 문헌연구 • 사례분석 등	• 도시브랜드 개념 고찰 • 문화와 도시 개념 고찰 • 이스탄불의 브랜드 전략
9	• 과제명: Poetics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ject • 연구자(년도): Can-Seng Ooi, Lars Håkanson & Laura LaCava(2014) • 연구목적: 유럽문화수도 제도에 대한 평가의 내·외부 영향요인 고찰	• 문헌연구(유럽문화수도 문서, 보고서, 학술자료 등)	• 유럽문화수도 제도의 매력성 고찰 • 유럽문화수도 제도의 대내외적 정치성 고찰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0	• 과제명: Cultural Event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 연구자(년도): Yi-De Liu(2014) • 연구목적: 문화관광개발 촉진을 위한 유럽문화수도제도에 대한 평가	• 문헌연구(문서, 보고서, 학술자료 등)	• 유럽문화수도 제도 20년에 대한 고찰 • 경제, 도시이미지, 도시재생, 문화 생산 및 소비촉진, 파트너십 구축 등 측면에서 유럽문화수도 고찰
11	• 과제명: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and Life Satisfaction • 연구자(년도): Lasse Steiner, Bruno Frey & Simone Hotz(2013) • 연구목적: 유럽문화수도 제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검증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통계분석 등	•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개념고찰 • 유럽문화수도의 경제적 효과 • 유럽문화수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12	• 과제명: Evaluating three decades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gramme: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 연구자(년도): Pedro Gomes & Alejandro Librero-Cano(2018) • 연구목적: 유럽문화수도 제도에 대한 선택도시와 비선택도시의 지역적 영향차이 검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등	•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고찰 • 선정된 도시와 비선정된 도시간 개최 시간별(선정 3년전부터 선정 5년까지) 영향 차이 분석
13	• 과제명: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 연구자(년도): 최지연·김종화(2019) • 연구목적: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신 해양도시의 조성 필요성 진단과 기본방향 제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통계분석 등	• 해양경제와 도시경쟁력 이론검토 및 사례분석 • 국내 주요 해양도시별 경쟁력 진단 분석 •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과 기본방향

No.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 과제명: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과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최일선 외(2023) • 연구목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목표, 기능,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우리나라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안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전문가자문 • 정책협의회 등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및 특성 분석 • 국내 해양도시 관광 경쟁력 진단·평가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방향 및 과제 도출

자료: 저자 작성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제1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

1. 국내 정책 동향 분석

1)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거점도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부 주도의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한 관광객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관광역량 강화가 필요해지자 문체부는 관광도시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계획하였다.¹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관광 브랜드를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방한 관광객의 지방 확산 실현을 비전으로 설

14) 권태일·김영준(2020), p. 1.

정하였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목표는 첫째, 방한 관광객의 지방 방문 패러다임을 여는 ‘대표도시’ 육성, 둘째, 외국인 관광객이 가고 싶은 ‘모델도시’ 육성, 셋째, 지역의 창의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정책지원이다.¹⁵⁾

〈표 2-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전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방한 관광객의 지방 확산 실현	
목표	① 방한 관광객의 지방방문 패러다임을 여는 ‘대표도시’ 육성 ② 외국인 관광객이 가고 싶은 ‘모델 도시’ 육성 ③ 지역의 창의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정책 지원	
기본방향	① Attractiveness: 대표관광자원 매력 강화 ② Accessibility: 접근 가능한 관광 실현 ③ Digitalization: 스마트 관광 도입 ④ Visualization: 보이는 관광 추진 ⑤ Networking: 지역 도시계획 연계 구축 ⑥ Governance: 지역 주도형 관광 추진	
사업기간	2020~2024년(5년간) ※ 2025년 이후 지자체 자체 재정투입 구조로 전환하도록 단계적 안착 추진	
사업비	총 5,785억 원(국비 2,500억 원, 지방비 3,285억 원)	
사업내용	국제관광도시	서울·제주 이외, 글로벌 수준의 관광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도시
	지역관광 거점도시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지니며, 글로벌(Glocal)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세계 수준의 관광자원 및 수용태세를 갖춘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도시

자료: 권태일·김영준(2020), p.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p. 113.

사업의 기본방향은 대표관광자원의 매력 강화(Attractiveness), 접근 가능한 관광실현(Accessibility), 스마트관광 도입(Digitalization), 보이는 관광 추진(Visualization), 지역 도시계획과 연계구축(Networking), 지역주도형 관광 추진(Governance) 등 총 6개로 설정하였다.¹⁶⁾ 관광거점도시의 사업기간은 총

1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0.15.)(검색일: 2023.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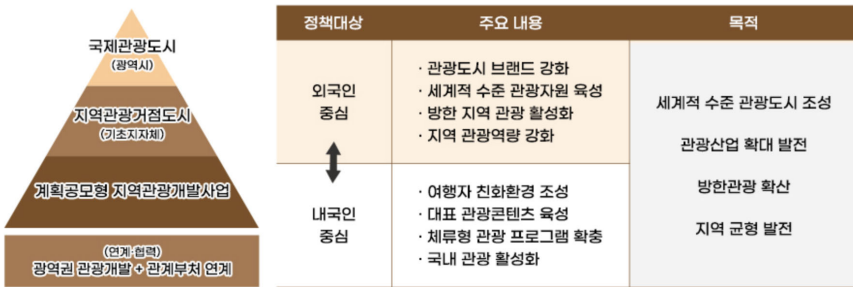
16) 대한경제(2021.5.3.)(검색일: 2023.5.21.)

5년(2020~2024년)이며, 규모에 따라 광역시 차원의 국제관광도시와 기초 지자체 차원의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¹⁷⁾

관광거점도시 중 ‘국제관광도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방한여행 관문도시로, 글로벌 관광목적지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 도시의 대표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테마별·시즌별 관광상품화를 지원한다. 또 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타깃에 따라 별도 수립하고, 국제도시로의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관광 분야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를 통해 관문도시로서의 교통(항공·크루즈 터미널 등) 접근성 강화 및 ICT 기반의 스마트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⁸⁾

반면 ‘지역관광거점도시’는 고유한 지역관광 브랜드를 지니며, 글로벌(Glocal)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세계 수준의 관광자원 및 수용태세를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의 국제적 매력 강화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추진 사업을 지원한다.

〈그림 2-1〉 관광거점도시 사업내용 및 육성체계



자료: 정광민(2020), p. 1.

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0.15.)(검색일: 2023.6.15.)

1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0.15.)(검색일: 2023.6.15.)

또 지역 내 관광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관광 접근성(관광안내소·숙박 등) 강화 및 스마트관광, 지역관광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¹⁹⁾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관광·건축디자인·도시계획·교통·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총 5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지는 국제관광도시인 부산(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인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4곳)이다.²⁰⁾

먼저 관광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영화, 축제 등을 활용하여 서울·제주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고,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여 주변지역으로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거점도시마다 각각의 사업 비전 및 기본계획(안)을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²¹⁾

〈표 2-2〉 관광거점도시(5곳) 비전 및 기본계획(안)

관광거점도시(5곳)		비전 및 기본계획(안)
국제관광도시 (1곳)	부산광역시	한국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 

1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0.15.)(검색일: 2023.6.15.)

2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8.)(검색일: 2023.7.17.)

2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p. 115.

관광거점도시(5곳)	비전 및 기본계획(안)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	강원 강릉시 Go East! Beautiful City, 강릉 
	전북 전주시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거점도시, 전주 
	전남 목포시 대한민국 서남해안권 관광거점 목표 실현 
	경북 안동시 글로벌 No.1 유교중심의 전통문화 관광도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8.)(검색일: 2023.7.1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pp. 115~119.

문체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5,785.7억 원이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지며, 선정된 도시 5곳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는 부산 1,442.7억 원, 강릉 1,043억 원, 전주 1,300억 원, 목포 1,000억 원, 안동 1,000억 원이다.²²⁾

〈표 2-3〉 도시별·연도별 관광거점도시 사업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총괄	국비	129	360	879.4	694	437.6	2,500
	지방비	175.9	499	1,055	889.6	666.2	3,285.7
	소계	304.9	859	1,934.4	1,583.6	1,103.8	5,785.7
부산광역시	국비	43	100	149.7	105.45	101.85	500
	지방비	63	200	266.8	210.75	202.15	942.7
	소계	106	300	416.5	316.2	304	1,442.7
강원 강릉시	국비	21.5	65	216.5	139.5	57.5	500
	지방비	21.5	65	216.5	139.5	100.5	543
	소계	43	130	433	279	158	1,043
전북 전주시	국비	21.5	65	170.3	132.5	110.8	500
	지방비	48.4	104	228.8	222.8	196.1	800
	소계	69.9	169	399	355.2	306.9	1,300
전남 목포시	국비	21.5	65	183.15	156.1	74.25	500
	지방비	21.5	65	183.15	156.1	74.25	500
	소계	43	130	366.3	312.2	148.5	1,000
경북 안동시	국비	21.5	65	159.8	160.5	93.2	500
	지방비	21.5	65	159.8	160.5	93.2	500
	소계	43	130	319.6	321	186.4	1,000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p. 114.

문체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결과, 부산광역시는 문체부가 주최한 2022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시상식에서 우수·관광거점도시

2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p. 114.

1위를 달성하였다.²³⁾ 강원 강릉시는 2020년 대비 2022년의 주요 성과지표가 모두 증가²⁴⁾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²⁵⁾, 전북 전주시 역시 2022년 말 기준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1,130명에 달하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성과를 나타냈다.²⁶⁾

(2) 문화도시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전략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 온 문화특화지역,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의 관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였다.²⁷⁾

문체부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은 첫째,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 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하는 데 있다. 둘째, 중앙·관 주도가 아닌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셋째,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²⁸⁾ 정책 비전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③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등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²⁹⁾

23) 한국일보(2023.3.2.)(검색일: 2023.5.21.)

24) 외부 방문자수 증감률(6.45% 증가), 외국인 관광객 전국 대비 비율(4.7% → 5.6%), 내국인 관광객 수(6.4% 증가), 해외 인지도(38.9% → 40.6%), 관광목적지 검색량(560만 건 → 640만 건), 숙박 방문자 비율(19.1% → 19.5%)

25) 강원일보(2023.1.25.)(검색일: 2023.5.21.)

26) 전북중앙(2023.2.23.)(검색일: 2023.5.21.)

27) 문화체육관광부(2021), p. 2.

28) 문화체육관광부(2021), pp. 4-5.

29) 박종달(2018), p. 84.

문화도시는 5개(역사전통중심형, 예술중심형, 문화산업중심형, 사회문화중심형, 지역자율형)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다. 역사전통중심형은 지역의 역사·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이며, 예술중심형은 문학·미술·연극 등 예술창작 및 향유활동 중심, 문화산업중심형은 영상·게임 등 문화산업의 융복합 중심, 사회문화중심형은 생활문화·여가 등 시민사회 문화활동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율형을 제시하고 있다.³⁰⁾

〈표 2-4〉 문화도시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목표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③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기본방향	①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 지원 ②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③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역사전통중심형	지역의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 활용
	예술중심형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 및 향유활동 중심
	문화산업중심형	영상, 게임 등 문화·산업의 융복합 중심
	사회문화중심형	생활문화, 여가 등 시민사회 문화활동 증진
	지역자율형	지역별 특성을 고려
사업기간	2019년~현재(매년 진행)	
사업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자료: 박종달(2018), pp. 83-87.

30) 박종달(2018), p. 85.

문체부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5~7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왔다. 지정 절차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³¹⁾

〈표 2-5〉 문화도시 추진주체

구분		역할
중앙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정책 수립,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 및 취소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 사업 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연구 등
지역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행정-시민-전문가)	문화도시 방향, 사업제안, 평가 등 문화도시 관련 주요 의제 검토
	문화도시추진전문조직	문화도시 사업 추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 의견수렴 등
부처협업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p. 8.

문화도시는 2019년 제1차 7곳을 시작으로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해왔다.³²⁾ 2023년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본격 강조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를 선도도시로 지정하여 기존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³³⁾

31) 문화체육관광부(2021), pp. 9-11.

32) 서울문화투데이(2020.1.2.)(검색일: 2023.6.3.)

3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12.8.)(검색일: 2023.6.5.)

〈표 2-6〉 제1~4차 문화도시(24곳) 사업 비전

문화도시(24곳)		사업 비전
제1차 (7곳)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제2차 (5곳)	인천 부평구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강원 강릉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강원 춘천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전북 완주군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3차 (6곳)	충남 공주시	삶을 품은 유산, 미래기역도시 공주
	전남 목포시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경남 밀양시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
	경기 수원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서울 영등포구	우정과 현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전북 익산시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제4차 (6곳)	전북 고창군	문화, 어머니의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대구 달성군	달성살면 달성사람, 들락(樂) 날락(樂)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
	강원 영월군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
	울산광역시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
	경기 의정부시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
	경북 칠곡군	인문 경험의 공유지, 문화도시 칠곡

자료: 서울문화투데이(2020.1.2.)(검색일: 2023.6.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1.7.) (검색일: 2023.7.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12.23.)(검색일: 2023.7.17.)

새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은 2018~2022년 동안 선정된 기존 문화도시를 1단계 사업으로 두고, 2023~2027년까지를 문화도시 2단계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문화도시 사업의 토대 위에 고유성·공정성·연대·실용의 가치를 확대하여 문화도시 선도모델을 새롭게 지정하고, 제1차~제4차로 지정된 문화도시들의 성과관리와 제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주내용이다.³⁴⁾

〈그림 2-2〉 문화도시 추진단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12.8.)(검색일: 2023.6.5.)

1단계 문화도시 사업은 2022년 제4차 문화도시에는 광역시형 문화도시(울산광역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 문화도시(영월군, 고창군)가 처음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⁵⁾ 2단계 문화도시 사업 중,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은 7개의 권역별(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로 총 7곳을 지정할 예정이며,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예비로 지정된 16곳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34) 문화체육관광부(2022), p. 13.

3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12.6.)(검색일: 2023.6.5.)

(3) 스마트관광도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마트관광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문체부는 2020년부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에 ICT 기술을 접목해 안내·교통·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관광³⁶⁾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또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른 ① 기술 기반 미래 관광 서비스·인프라 육성, ② 혁신 기업의 참여를 통한 신(新)관광산업 발전 기반 마련, ③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3개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다.³⁷⁾

〈표 2-7〉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전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목표	① 기술 기반 미래 관광 서비스·인프라 육성 ② 혁신 기업의 참여를 통한 신(新)관광산업 발전 기반 마련 ③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기본방향	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관광의 디지털대변혁 선도 ② 정부의 지원을 통한 관광과 기술의 융복합 가속화 ③ 스마트 관광요소를 집약한 미래관광 청사진 제시	
사업내용	교통연계형	KTX, 공항 등 보유 지자체
	관광명소형	전국 지자체
	강소형	인구 15만 미만 지자체
사업기간	2020년~현재(매년 진행)	
사업비	국비 35억~45억 원(단, 지방비 일대일 매칭 필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p. 3;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2.3.8.)(검색일: 2023.6.3.)

36)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최적 기술과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관광경험 증진, 편의 제고, 관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관광이다.

37)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p. 3.

문체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구성요소(서비스, 데이터, 인프라, 거버넌스)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스마트관광 5대 요소(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플랫폼)를 기본 축으로 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스마트관광도시의 구성요소들과 이를 둘러싼 조성방식은 <그림 2-3>과 같다.³⁸⁾

<그림 2-3> 스마트관광도시 구성요소 및 조성방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1), p. 7.

상위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스마트관광도시는 3개 유형(KTX, 공항 등을 보유한 지자체 대상의 교통연계형, 전국 지자체 대상의 관광명소형, 인구 15만 미만 지자체 대상의 강소형)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문체부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스마트관광도시를 선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³⁹⁾, 사업 절차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6개 테마(자연, 역사, 체험, 문화, 레저, 자유형)를 선택·지원하면, 최종 선정된 대상지에 총 35억~4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⁴⁰⁾

3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1), p. 7.

39)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2.3.8.)(검색일: 2023.6.3.)

40)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p. 5.

〈표 2-8〉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주체

구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한국관광공사 (전담기관)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지역 컨소시엄 지원 • 스마트관광도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표준화 체계 수립
지자체 컨소시엄 (사업자)	• 지자체-민간 공동 컨소시엄 구성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및 사후 관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p. 3.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선정되어 온 스마트관광도시는 총 11곳이다. 특히 제1호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중구 개항장 일대에 관광도시 통합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⁴¹⁾, 수원시는 스마트

〈표 2-9〉 2020~2023년 스마트관광도시(11곳) 사업 비전

스마트관광도시(11곳)		사업 비전
2020(1곳)	인천광역시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
2021(1곳)	경기 수원시	타임슬립, 1795 수원화성
2022(6곳)	전북 남원시	전통문화 체류형 스마트관광도시 「광한루 연가」
	충북 청주시	디지로그시티 청주, 나를 기록하다
	강원 양양군	내 손안의 파도,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
	경북 경주시	다시 천년! 경주로(RO) - ON 「경주로움을 스마트하게 ON하다」
	경남 하동군	신개념 체류형 스마트관광 마을 「다운(茶-on)」
	울산광역시	고래가 만드는 미래의 물결 「Smart Whale City 울산」
2023(3곳)	경기 용인시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Like&Stay
	강원 인제군	힐링 인제, 포레스트(FO:REST) 매직
	경남 통영시	투나잇 통영, 섬으로 가는 길

자료: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0.9.15.)(검색일: 2023.6.3.);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1.6.15.)(검색일: 2023.6.3.);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2.6.8.)(검색일: 2023.6.3.); 이코리야(2023.3.8.)(검색일: 2023.6.3.)

41) 스마트시티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유산 스마트 관광모델을 구현하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⁴²⁾

2) 국토교통부

(1) 관광레저도시(기업도시)

관광레저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다. 기업도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 중 하나로, 민간기업이 관광·레저·문화·업무·주거·교육·의료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이다. 기업도시의 유형은 개발주체별(단일기업주도형, 컨소시엄형, 민관합작형), 기능별(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로 구분되는데, 이 중 관광레저도시는 관광·레저·문화 중심의 관광레저형에 속한다. 다시 말해, 관광레저도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레저기능과 정주기능이 융합된 도시를 말한다.⁴³⁾

〈표 2-10〉 기업도시 개요

구분	내용		
비전	자급자족형 도시, 대한민국 新성장 전략		
기본방향	① 민간(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 ② 지역의 경제적 발전기여 ③ 친환경기능 정보화(유비쿼터스) 자족기능		
사업내용	개발주체별	단일기업주도형	1개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개발
		컨소시엄형	복수의 대기업 또는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성
		민관합작형	지자체가 토지수용 및 규제완화 지원, 기업은 개발·시공·분양 담당
	기능별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기업도시(무안)
		지식기반형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원주, 충주)
		관광레저형	관광·레저·문화 중심의 기업도시(태안, 무주, 영암·해남)
사업지원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3.10.4.)(검색일: 2023.6.7.)

42) 데일리안(2022.12.9.)(검색일: 2023.6.3.)

43) 김성진(2005), p. 11, pp. 22-24.

관광레저도시는 관광 단일기능의 관광지 개발이 아닌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복합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관광도시를 목표로 한다. 도시개발 방식 역시 정부 주도의 관광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여 직접 개발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⁴⁴⁾

〈표 2-11〉 관광레저도시 개발특성 비교

구분	기존 관광지	타 유형 기업도시	관광레저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방식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간주도
개발내용	관광 단일기능	복합기능	복합기능
최종수요자	기업, 관광객	기업, 근로자	기업, 근로자, 관광객

자료: 김성진(2005), p. 29.

추진단계는 크게 구역지정 및 계획단계, 시행단계, 관리단계로 나누어진 다. 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의 입지를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을 실제 추진하는 민간기업 선정에도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한다.⁴⁵⁾

관광레저도시는 2005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무주, 태안, 영암·해남 3

〈표 2-12〉 관광레저도시 추진단계

단계	세부절차
구역지정 및 계획단계	입지선정 - 개발구상 및 기초조사 -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 계획 승인 신청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행단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 실시계획 승인(지구단위 계획 결정) - 공사 시행 및 기업체 이전 등 - 공사 준공 검사
관리단계	준공 및 보고 - 기업도시 관리

자료: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3.10.4.)(검색일: 2023.6.7.)

44) 김성진(2005), p. 27.

45)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3.10.4.)(검색일: 2023.6.7.)

곳이 선정되었다. 태안은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생태 환경도시로서 골프장,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영암·해남은 복합해양관광레저도시로서 광주, 제주도 등 인근 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다. 무주 역시 기존의 무주리조트와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휴양시설 및 산업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⁴⁶⁾

〈표 2-13〉 관광레저도시(3곳)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전북 무주	사업면적	232만 평
	사업기간	2007~2011년
	사업비	1조 7,000억 원
	사업시행자	무주기업도시(주)
	사업개발시설	레저휴양지구(골프장 등),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 지구, 예술인 시설지구, 향토테마빌리지 등
충남 태안	사업면적	468만 평
	사업기간	2007~2020년(시설공사)
	사업비	9조 8,836억 원
	사업시행자	현대도시개발(주)
	사업개발시설	골프장, 복합시설, 첨단복합단지, 테마파크,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국제비즈니스 단지 등
전남 영암·해남	사업면적	삼포지구: 130만 평, 삼호지구: 262만 평
	사업기간	삼포지구: 2006~2026년 삼호지구: 2006~2030년
	사업비	삼포지구: 4,402억 원, 삼호지구: 4,517억 원
	사업시행자	삼포지구: (주)KAVO, 전남개발공사, 목포도시공사 삼호지구: 서남해안레저(주)
	사업개발시설	카지노, 리조트, 호텔, 콘도, 마리나, F1경기장, 골프장, 민속마을, 아쿠아리움, 크루즈터미널 등

자료: 진미윤(2007), p. 186.; 충청남도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영암군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46)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3.10.4.)(검색일: 2023.6.7.)

각 관광레저도시들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⁴⁷⁾ 태안 관광레저도시는 2006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07년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써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 및 착수하였고, 2014~2016년에 골프장 시설을 설립 완공하였다. 이 외, 2018년 3월 첨단연구시설(한국타이어 주행시험센터) 부지조성을 착공하여 추진 중이다.⁴⁸⁾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는 2009년 개발계획 승인 및 2014년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가장 늦게 추진되었으나, 2022년 12월 솔라시도로 개통 및 2023년 5월 청정에너지 확충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도시개발에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⁹⁾ 반면 2007년 9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무주 관광레저도시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2011년 1월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되었다.⁵⁰⁾

(2) 스마트도시

국토부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유비쿼터스도시(U-city) 정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서 각광받았으나 건설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참여업체 규모의 영세함, 산업확장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정체되었다. 이후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⁵¹⁾ 스마트도시 정책이 3단계로 본격 확대되었다.⁵²⁾ 변경된 스마트도시는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에 데이터가 결합되어 ‘도시에

47) 진미윤(2007), pp. 179-202.

48) 충청남도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49) 서울경제(2023.5.24)(검색일: 2023.6.7.)

5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1.1.18.)(검색일: 2023.6.13.)

51) ‘유비쿼터스도시법’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고,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52)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8.2.5.)(검색일: 2023.6.7.)

ICT·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을 의미한다.⁵³⁾ 특히 중앙정부 간 협업과 다양한 지자체를 연계하여 신도시 육성과 더불어 기존 도시까지 대상지를 확대하였다.

〈표 2-14〉 스마트도시 발전단계

구분	1단계(2008~2013)	2단계(2014~2017)	3단계(2018~)
목표	건설·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신성장 육성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도시 문제해결 및 혁신 생태계 육성
정보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양방향
플랫폼	폐쇄형	폐쇄형+개방형	폐쇄형+개방형(확장)
제도	유비쿼터스도시법 제1차U-City종합계획	유비쿼터스도시법 제2차U-City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4차산업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체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중앙정부(개별)+ 지자체(일부)	중앙정부(협업)+ 지자체(확대)
대상	신도시	신도시+기존도시(일부)	신도시+기존도시(확대)
사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건축 인프라 구축	공공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국가시범도시 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2020), p. 12.

이처럼 도시계획 차원의 국토부 스마트도시 정책은 도시혁신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 선도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7대 정책방향(사람중심, 혁신성장동력, 체감형, 맞춤형, 지속가능, 열린, 융합연계형)을 수립하여 혁신적 변화를 도출하고자 하며, 스마트도시 사업내용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⁵⁴⁾

53)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0.3.2.)(검색일: 2023.6.7.)

54)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8.2.5.)(검색일: 2023.6.7.)

〈표 2-15〉 스마트도시 개요

구분	내용	
비전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	
목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기본방향	①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중심' 도시 ② '혁신성장 동력' 육성 도시 ③ 효율·서비스 중심 '체감형' 도시 ④ 공간·기술·주체별 '맞춤형' 도시 ⑤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⑥ 수요자·민간 참여의 '열린' 도시 ⑦ 정책·사업·기술 '융합연계형' 도시	
사업내용	신규개발단계	국가시범도시 및 지역거점 육성
	도시운영단계	기존 도시 스마트화 및 확산
	노후쇠퇴단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8.2.5.)(검색일: 2023.6.7.)

국토부 스마트도시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융합얼라이언스, 전문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산하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와 국토부 산하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스마트도시에 관한 정책, 제도 등을 총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확산과 산업진흥을 위한 상호협력·전략 등을 공유하고 있다. 융합얼라이언스는 대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스마트도시의 민·관 소통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은 전문가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⁵⁵⁾

55) 스마트시티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표 2-16〉 스마트도시 추진주체

구분	역할
중앙정부	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법제도, 표준화, 대외협력 등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 ② 국토부 산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정부 정책 심의·조정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광역시 18개, 기초 11개, 2022.11.2. 기준): 스마트도시의 확산과 산업진흥을 위한 상호협력·전략 공유
융합얼라이언스	스마트시티 정책을 위한 민·관 소통(대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 835개 기관 참여, 2022.4.30. 기준)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자료: 스마트시티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국토부의 스마트도시는 정책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시범도시 사업은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융복합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구현,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세종 5-1 지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이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운영·추진되고 있다.⁵⁶⁾

〈표 2-17〉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2곳) 사업내용

국가시범도시(2곳)	사업내용
세종 5-1 생활권 (83만 평)	사업기간: 2018~2022년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내용: 스마트팜, 에너지관리시스템, 제로에너지 단지, 재난대응AI시스템 등
부산 에코델타시티 (66만 평)	사업기간: 2018~2023년 사업시행자: K-Water,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사업내용: 스마트워터시티, 에너지 Credit Zone, 지진홍수 통합관리시스템, 드론실증구역 등

자료: 스마트시티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56)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8.2.5.)(검색일: 2023.6.7.); 스마트시티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3) 해양수산부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와 레저활동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2019년 5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본 계획은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 자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⁵⁷⁾ 또한 2017년 기준 580만 명인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659만 명인 섬 관광 방문객을 1,00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

〈표 2-18〉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
목표	①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 명 달성(2017년 580만 명*) ② 해양레저관광 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③ 섬 관광 방문객 연간 1,000만 명 달성(2017년 659만 명)
기본방향	① (인프라)권역별 해양관광 명소 조성 ② (콘텐츠)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③ (산업)해양레저관광 핵심 산업 육성 ④ (문화)교육·체험을 통한 친수문화 정착
해양레저 관광거점 분류	①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②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③ 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④ 제주권(수중레저)
	⑤ 한려수도형(휴양·힐링형 체류)
	⑥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⑦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사업기간	2019년~현재
사업비	사업별 400억 원 내외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p. 8. 참고하여 저자 작성

57)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9.5.14.)(검색일: 2023.6.13.)

를 세웠다. 이러한 방문객 확대를 통해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3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본 계획의 핵심이다.

본 계획의 추진전략은 인프라, 콘텐츠, 산업, 문화 분야로 구분된다. 이중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 전략,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이다. 본 전략의 대표 사업인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우리나라 연안을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공모를 통해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서남해안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사업이 유사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권역을 구분하였다.

7대 권역은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치유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으로 구분하였다.⁵⁸⁾ 수심이 깊고 파도가 좋아 서핑 등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한 동해권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주요 테마로 설정하였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갯벌이 어우러진 서해안권은 해양문화·생태관광모델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 경관과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제주권은 체험과 힐링구역으로, 부산이 위치한 동남권은 해양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설정하였다. 다도해권은 섬·연안·어촌 연계 체험구역으로, 다양한 섬과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는 한려수도권은 해양힐링거점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한편 접근성이 가장 좋은 수도권은 콘서트, 불꽃놀이 등 도심행사와 연계하여 마리나 관광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각 권역별로 지정된 해양레저 관광거점은 권역별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하며 권역별 특색에 맞는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시설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을 한다. 그리고 권역별 구분 없이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선

58) 관계부처합동(2019), p. 11.

박 보관시설과 교육·창업 지원센터가 공통으로 설립된다. 본 거점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민간은 리조트 조성, 중앙정부는 레저 선박 보관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그림 2-4〉 7대 권역 구상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안)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p. 11.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구는 2019년도 시범사업(3개소)을 시작으로 2023년도 현재 7개 지구(전남 보성, 경기 시흥, 강원 고성, 제주 서귀포, 전북 군산, 경북 경주, 충남 보령) 선정이 마무리되었다.

아래에서는 7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전남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체류관광형)

2020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 보성군은 회천면 울포리,

동울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480억 원(국비 240억 원, 도비 72억 원, 군비 168억 원)을 투입해 해양복합센터, 해수파도풀 리노베이션, 해양액티비티 체험장, 복합레저선박 계류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⁵⁹⁾ 국내 최대 크기 인피니트 풀장과 가장 깊이 스쿠버 시설을 갖춘 해양복합센터는 종합 레저시설과 국내 가장 길이의 스카이워크 등 사계절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해양복합센터는 2023년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할 예정⁶⁰⁾이며, 총 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⁶¹⁾ 보성군은 보성 해양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섬·연안·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표 2-19〉 전남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회천면 울포리, 동울리 일원
	지정연도	2020
	유형	체류관광형
	사업기간	2020~2024
	사업비	480억 원(국비 240, 도비 72, 군비 168)
	도입시설	해양복합센터, 해수파도풀 리노베이션, 해양액티비티 체험장 등

자료: 동아일보(2021.6.28.)(검색일: 2023.7.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울포해수욕장 일대는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천혜의 해양관광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며, 보성차밭과도 가까워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여자만의 갯벌과 갈대 군락지를 포함한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벌교~장도 간 테마로드 조성사업, 국가 갯벌 조성사업 등 벌교권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남해안권역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관광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59) 남도일보(2019.12.15.)(검색일: 2023.7.12.)

60) 조선일보(2023.1.27.)(검색일: 2023.7.12.)

61) 동아일보(2021.6.28.)(검색일: 2023.7.12.)

〈그림 2-5〉 전남 보성 벌교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 현황



자료: 연합뉴스(2020.7.24.)(검색일: 2023.7.23.)

나. 경기 시흥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위락형)

경기 시흥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거북섬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다. 시흥시는 7개 권역 중 수도권의 유일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시행자로서, 마리나를 주제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 조성을 추진한다.⁶²⁾ 총 90선석의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이 시화호 거북섬에 들어설 예정이다. 본 사업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일 년 365일 언제나 레저선박 운항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총 사업비 336억 원 중 절반인 168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가 51억, 시흥시가 117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⁶³⁾

6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2.5.)(검색일: 2023.7.12.)

63) 위 보도자료.; 프레시인(검색일: 2023.10.26.)

〈표 2-20〉 경기 시흥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50호 공방 2023년 예정 거북섬 2024년 말 준공 예정 스트리트몰 2024년 1월 준공 예정 해상생태과학관 2023년 12월 준공 예정 아쿠아팻랜드 2023년 12월 준공 예정 거북섬 여가촌 2023년 12월 준공 예정 해상생태과학관 2023년 12월 준공 예정 아쿠아팻랜드 2023년 12월 준공 예정	위치	거북섬(정왕동 2730번지) 일원
	지정연도	2020
	유형	도시위락형
	사업기간	2020~2024
	사업비	336억 원(국비168, 도비 51, 시비 117)
	도입시설	해상계류시설, 육상주정장, 경관브릿지, 클럽하우스 등 조성

자료: 시흥시청 홈페이지(검색일: 2023.7.23.); 프레시안(검색일: 2023.10.2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아쿠아팻랜드, 해양생태과학관, 거북섬 복합 리조트, 스트리트몰 등의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⁶⁴⁾ 아쿠아팻랜드는 생산, 연구, 유통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관상어 산업기반으로, 해양생태과학관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복원·증식과 해양생태학습의 장으로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다며, 해양수산부가 두 곳 모두 건립 예산을 지원하였다.⁶⁵⁾

시흥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은 레저와 체험, 쇼핑과 휴식이 한꺼번에 가능한 싱가포르 센토사, 호주 달링하버 등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⁶⁶⁾

다. 강원 고성 해양레저관광 거점(수중레저형)

국내 최고의 바닷속 경관과 생태계 환경을 보유한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고성군 죽도 일원은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여 2018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⁶⁷⁾ 공식 사업명은 ‘강원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10억 원

64) 위 보도자료.

65) 위 보도자료.

66) 시흥신문(2022.12.09.)(검색일: 2023.7.12.)

67) 라이브팜뉴스(2022.10.10.)(검색일: 2023.7.12.)

(국비 205억 원, 지방비 205억 원)이 투입된다.⁶⁸⁾ 고성 광역해양관광 복합 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은 해상·해중·육상을 아우르는 해양레저 관광 랜드마크 조성이다.

〈표 2-21〉 강원 고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고성군 죽도 일원
	지정연도	2019
	유형	수중레저형
	사업기간	2022~2025
	사업비	410억 원(국비 205, 지방비 205)
	도입시설	해상길, 해상전망대, 해상 스카이워크, 복합해양레저체험시설 등

자료: 농수축산신문(2022.10.7.)(검색일: 2023.7.24.)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해상특화시설로는 오희리 해변과 죽도를 잇는 길이 630m, 폭 5.5m의 해상길 건설과 해상전망대 및 해상스카이워크가 있다.⁶⁹⁾ 해중특화시설로는 바다 밑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네이비공원이 있으며, 육상특화시설로는 지상 3층의 다이빙장, 서핑장, 체험장을 갖춘 복합해양레저체험시설인 오션에비뉴와 죽도산책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2년 10월 착공식 개최 이후 현재 2025년 4월 전체 사업 준공을 목표로 가설공사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⁷⁰⁾ 2023년 하반기에 오션에비뉴 건축공사 착수와 해상전망대 및 레저지원 시설 조성 등을 진행하여 사업기간 내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라. 제주 서귀포 해양레저관광 거점(수중레저형)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은 해

68) 위 기사.

69) 설악신문(2023.7.10.)(검색일: 2023.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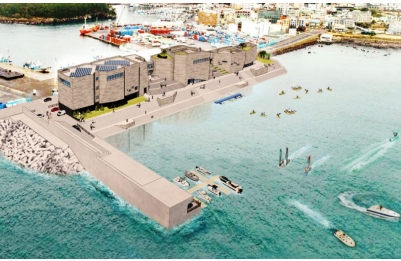
70) 시사일보(2023.5.18.)(검색일: 2023.10.26.)

수부가 추진하는 거점사업 지역 중 가장 먼저 착공되었다. 해수부는 이 지역을 2018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한 뒤 2020년에 수중레저에 특화된 거점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제주 서귀포시 문섬 해역에는 산호초 군락과 아열대 어종이 서식해 수중레저 거점으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

본 사업에는 국비 200억 원과 지방비 200억 원, 총 400억 원이 투입되어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실내 잠수풀·서핑시설, 다이빙 교육장, 전시·홍보체험관, 해상 계류장 등 실내·외 복합시설을 조성하게 된다.⁷¹⁾ 당초 본 사업은 2023년 하반기 완공을 예상했으나, 2021년 철근 납품 지연, 2022년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해녀들의 수중 시위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⁷²⁾ 특히 사업지구 내 테트라포드 제거 작업 중 발견된 법정 보호종인 긴가지해송 등의 이식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전문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서귀포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 47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62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387명의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⁷³⁾

〈표 2-22〉 제주 서귀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지정연도	2020
	유형	수중레저형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 지방비 200)
	도입시설	실내 서핑·다이빙장, 교육장, 전시·홍보체험관, 계류시설 등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5.27.)(검색일: 2023.7.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7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5.27.)(검색일: 2023.7.23.)

72) 제주매일(2023.1.9.)(검색일: 2023.7.19.)

7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5.27.)(검색일: 2023.7.23.)

마. 전북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레저휴양형)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 무녀도 일대에서 해양레저 스포츠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저휴양형 거점 사업이다. 고군산군도 지역은 선유도 인근에서 도보여행 등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숙박관광객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⁷⁴⁾이에 본 사업에서는 실내 서핑장, 실내 잠수풀, 인공파도풀, 레저레이크 등으로 구성된 ‘해양레저체험시설’과 함께 숲속 가족 캠핑장 등 ‘산림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해 여행객들이 사계절 내내 레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해수부 및 군산시는 복합단지가 개장하면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군산시 경제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⁷⁵⁾ 본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총 3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표 2-23〉 전북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고군산군도
	지정연도	2022
	유형	레저휴양형
	사업기간	2019~2024
	사업비	398억 원 (국비 193.5, 도비 55.3, 시비 149.2)
	도입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산림휴양체험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자료: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검색일: 2023.8.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4) 연합뉴스(2022.10.27.)(검색일: 2023.7.19.)

75) 위 기사.

바. 경북 경주 해양레저관광 거점(사계절체험형)

경주 나정고운모래해변에 설치되는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90억 원(국비 245억 원, 도비 73.5억 원, 시비 171.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⁷⁶⁾ ‘신라오션킹덤’을 주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해양레저 지원센터, 사계절 실내 레저체험센터, 용을 모티브로 한 해양레저 체험길,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바다 해수풀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등 7개 사업이 조성된다.⁷⁷⁾

경주는 이미 문무대왕을 콘텐츠로 한 해양교육 및 해양역사 체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거점단지 지정으로 해양레저관광으로 이어지는 해양에 튜테인(교육, 오락, 관광) 벨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테마로 한 사계절, 주·야간 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북의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종합관광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⁷⁸⁾

〈표 2-24〉 경북 경주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경주시 감포읍
	지정연도	2023
	유형	사계절체험형
	사업기간	2023~2027
	사업비	490억 원 (국비 245, 도비 73.5, 시비 171.5)
	도입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해양조각공원, 수상레저 체험장, 바다 해수풀장 등

자료: 울진신문(2023.7.24.)(검색일: 2023.9.9.)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76) 울진신문(2023.7.24.)(검색일: 2023.9.9.)

77) 위 기사.

78) 위 기사.

사. 충남 보령 해양레저관광 거점(레저휴양형)

경주와 함께 충남 보령시가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의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보령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원산도 해수욕장 일원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본 센터는 사계절 동력·무동력 수상 레저 활동과 해양안전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건립된다. 보령시는 이번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지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섬 아일랜즈(Awesome Islands)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사업과 대규모 민간사업을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섬 아일랜즈 사업은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서해안 교통과 관광의 요지로 떠오른 원산도를 중심으로 인근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등 다섯 섬을 아우르는 섬별 특화 개발 전략이다.⁷⁹⁾

〈표 2-25〉 충남 보령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개요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원산도
	지정연도	2023
	유형	레저휴양형
	사업기간	2023~2026
	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 도비 200)
	도입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인공서핑 체험시설, 오토캠핑장, 육상체험시설 등

자료: 충청뉴스(2023.7.24.)(검색일: 2023.9.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9) 충청뉴스(2023.7.24.)(검색일: 2023.9.9.)

2. 국외 정책 동향 분석

1960~1980년대 세계화·지방화·산업공동화 등의 급속한 도시변화로 인하여 기존 공업도시 중심의 유럽 선진국들이 경제 쇠퇴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도시문제를 겪게 되었고, 급속한 도시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문화를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전략이 도시 재활성화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면서 ‘유럽문화수도’, ‘창의도시’와 같은 문화 중심의 도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⁸⁰⁾

1) 유럽연합 ‘유럽문화수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공간과 지역주민의 삶,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1985년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 문화도시 정책으로, EU의 지원 및 운영하에 도심재생, 지역 활성화 등의 도시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⁸¹⁾

〈표 2-26〉 유럽문화수도 개요

구분	내용
근거	유럽공동체설립조약(ECV) 제151조
비전	다양성 속의 통일성
목표	① 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 강조 ② 유럽인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 기념 ③ 유럽 시민의 공통 문화 영역을 통한 소속감 고취 ④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적 기여 촉진
정책기간	1985년~현재(매년 진행)
정책규모	선정된 도시가 제시한 문화 프로그램을 금액으로 환산·평가한 후 재정 지원

80) 이순자·장은교(2008), p. 2.

81) 이순자·장은교(2008), p. 3.

구분	내용	
정책 프로그램	유럽적 차원	• 선정도시와 이 외 EU 회원국 간 문화종사자, 예술가, 도시 간의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 유럽에서 문화다양성의 풍부함(Reichtum)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 • 유럽 문화의 공통된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그램
	도시와 시민	• 후보도시와 주변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프로그램 • 후보도시의 문화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장기전략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자료: 홍강훈(2008), pp. 25-33. 참고 저자 작성

유럽문화수도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ECV) 제151조에 의거하여 도시의 특수한 문화적 특징을 공유 및 개방함으로써 유럽 공동체 국가 간 상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유럽 통합의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EU 회원국들만을 대상으로 매년 문화수도가 선정되고, 선정된 문화수도 도시들은 일련의 기준(유럽적 차원, 도시와 시민)을 충족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EU는 문화수도가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금액으로 환산·평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⁸²⁾

초기인 1985~2004년 동안에는 EU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로 문화수도를 선정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해당연도 회원국에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⁸³⁾ 유럽공동체에서 문화수도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문화수도가 선정되고 나면 감시자문위원회(Monitoring and Advisory Panel)가 정책의 취지와 프로그램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문화수도가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평가는 집행위원회(Kommission)가 수행한다.⁸⁴⁾

82) 홍강훈(2008), p. 29.

83) 이순자·장은교(2008), p. 3.

84) 홍강훈(2008), pp. 30-32.

〈표 2-27〉 유럽문화수도 추진주체

구분	역할
유럽연합(EU)	문화수도 운영 총괄
선정심사위원회	문화수도 자체평가 및 선정
감시자문위원회	문화수도 정책의 취지 및 프로그램 감독·모니터링
집행위원회	문화수도가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재정적 지원규모 평가

자료: 홍강훈(2008), pp. 30~32. 참고 저자 작성

첫 유럽문화수도인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지정된 문화수도 도시들은 총 68곳이다. 2023년 6월 기준, 2027년까지 문화수도 9곳(2024년: 오스트리아 바드이스홀·에스토니아 타르투·노르웨이 보되, 2025년: 독일 켐니츠·슬로베니아 노바고리차, 2026년: 핀란드 오울루·슬로바키아 트렌친, 2027: 라트비아 리예파야·포르투갈 에보라)이 추가 지정되었다.⁸⁵⁾

〈표 2-28〉 1985~2023년 문화수도(68곳) 현황

연도	선정도시	연도	선정도시	연도	선정도시
1985	그리스 아테네	2002	벨기에 브뤼헤	2015	벨기에 몽스
1986	이탈리아 피렌체		스페인 살라만카		체코 필젠
198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3	오스트리아 그라츠	2016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1988	독일 서베를린	2004	이탈리아 제노아		폴란드 브로츠와프
1989	프랑스 파리		프랑스 릴	2017	덴마크 오르후스
1990	영국 글래스고우	2005	아일랜드 코크		사이프러스 파포스
1991	아일랜드 더블린	2006	그리스 파트라스	2018	네덜란드 레이우아르던
1992	스페인 마드리드	2007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몰타 발레타
1993	벨기에 안트워프		루마니아 시비우	2019	이탈리아 마테라
1994	포르투갈 리스본	2008	영국 리버풀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199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타방게르	2020	크로아티아 리예카
1996	덴마크 코펜하겐	2009	오스트리아 린츠		아일랜드 골웨이

85) EU website(2023)(검색일: 2023.6.6.)

연도	선정도시	연도	선정도시	연도	선정도시
1997	그리스 데살로니카		리투아니아 빌리우스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1998	스웨덴 스톡홀름		독일 에센	2021	그리스 엘레프시나
1999	독일 마이바르	2010	헝가리 피치		세르비아 노비사드
	벨기에 브뤼셀		터키 이스탄불	2022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스페인 산티아고	2011	핀란드 투르크		룩셈부르크 에슈쉬르알제트
	이탈리아 볼로냐		에스토니아 탈린		
2000	프랑스 아비뇽	2012	포르투갈 기마랑스		헝가리 베스프렘
	노르웨이 베르겐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폴란드 크라코우	2013	프랑스 마르세유	2023	그리스 엘레프시나
	핀란드 헬싱키		슬로바키아 코시체		
2001	체코 프라하	2014	스웨덴 우메아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포르투갈 포르토		라트비아 리가		

자료: 윤성원(2019), pp. 123-124.; EU website(2023)(검색일: 2023.6.6.)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 추진전략으로서 유럽문화수도 육성은 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였다. 특히 2004년에 문화수도로 선정된 프랑스 릴(Lille)과 같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프랑스 릴은 1년간 문화수도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1,341명의 고용인원을 확대하였고, 외식산업의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하며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문화수도를 통한 축제 개최 후 대중교통 승객 수 310만 명 증가, 철도운행량 7.3% 증가, 숙박일수 27.2% 증가, 인근 도시(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관광객 수 2.5~3배 증가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왔다.⁸⁶⁾

2)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존 공업 중심의 산업도시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여 국제적인 네트

86) 정영진(2008), pp. 48-49.

워크를 가진 콤팩트 도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UN의 교육문화 전문기관인 유네스코(UNESCO)가 ‘창의도시(Creative City)’⁸⁷⁾를 제안하였고, 2004년 문화의 창조성과 창조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창의도시가 등장하였다.⁸⁸⁾ 창의도시는 창조성(Creative)을 도시의 핵심요소로 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예술적 영감과 그들이 지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거주환경, 도시경제 시스템 등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개성, 브랜드, 정체성,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 등을 중시한다는 개념적 특성이 있다.⁸⁹⁾

창의도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사업을 기본으로 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성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사업의 기본 목표로 하며, 6개의 세부 목표와 5개의 사업방향이 제시되어 있다.⁹⁰⁾

〈표 2-2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개요

구분	내용
기본 목표	창의성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세부 목표	① 네트워크 도시 간 국제협력 강화 ② 창의성을 도시발전의 필수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 고무·향상 ③ 문화활동, 문화상품, 문화서비스의 창조·생산·분배 확산 강화 ④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를 개발하고 문화분야 정책자와 전문가를 위한 기회 확장 ⑤ 소외집단, 취약집단을 위한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향유, 문화생활의 접근성 및 참여 증진 ⑥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발전전략 전반에 통합
사업방향	① 도시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문화와 창조성의 역할 확대 ②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생태계 구축 ③ 국내 도시의 국제교류협력 기회 제공 및 국제 문화도시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 ④ 관련 분야 내 국내 도시와 전문가 발굴 및 UCCN 진출, 후속 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의 문화 분야 국제 위상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 ⑤ 7개 창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중소도시의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 고유의 문화와 창의성 활용을 통한 새로운 국제적 성장 동력 모색

자료: 박세훈·김동현·노수경(2022), p. 12.

87) 대한경제(2010.8.26.)〈검색일: 2023.6.7.〉

88)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89) 박은실(2008), pp. 7-9.

90) 박세훈·김동현·노수경(2022), p. 1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여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추구한다. 공예 및 민속예술·디자인·문학·미디어아트·영화·음식·음악 7개 분야로 도시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창의도시를 희망하는 국가는 7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네트워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총 93개 국가와 295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선정되어 있다.⁹¹⁾ 이 중 한국은 11개(서울, 이천, 전주, 광주, 부산, 통영, 대구, 부천, 원주, 진주, 김해)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7개 모든 분야에서 창의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⁹²⁾

〈표 2-30〉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11곳) 사업내용

국내 창의도시 (11곳)	분야	지정 연도	사업내용
서울	디자인	2010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서울디자인어워드, 국제 컨퍼런스 등
이천	공예	2010	이천 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 이천 도자기 축제 등
전주	미식	2012	전주 비빔밥 축제, 대형 전주 비빔밥 퍼포먼스 등
광주	미디어 아트	2014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 포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등
부산	영화	2014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 워크, 영화 창의도시국제포럼, 부산인터 시티 영화제,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등
통영	음악	2015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창의도시 간 교류공연, 거리의 악사
부천	문학	2017	1인 1저 나만의 책쓰기,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부천디아스 포라 문학상, 부천 레지던시 사업, 부천 국제포럼,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 교육 등
대구	음악	2017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대구 국제포럼, 음악 창의도시 간 교류 등

91)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홈페이지(검색일: 2023.6.7.)

92) 박세훈·김동현·노수경(2022), p. 12.

국내 창의도시 (11곳)	분야	지정 연도	사업내용
진주	공예	2019	진주 세계 민속예술/공예 비엔날레, 공예 및 민속예술국제제,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등
원주	문학	2019	아랍, 이슬람 문학 읽기, UCCN 원주 아카데미, 원주 역사 그림책 영문판 번역, 원주 문학의 달 등
김해	공예	2021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영 아티스트 국제 레지던시, 도자기와 요리의 만남 콜라보 등

자료: 박세훈·김동현·노수경(2022), p. 19.

이 외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와 성과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2005년 선정)와 미국의 오스틴(2015년 선정)이 있다. 디자인 분야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창의도시 선정 전(2004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2년에 89.1%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약 65억 달러에 달하는 창의공동체를 육성하였다. 미디어아트 분야의 오스틴은 기술과 전통예술 간의 균형을 이루는 기술산업을 창의도시의 핵심요소로 두었으며, 선정 이후 10년 동안 창의공동체를 통해 총 경제생산량의 2.9%인 43억 5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⁹³⁾

93) Designoutsider website(검색일: 2023.6.7.)

제2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 사례분석

국내 사례분석에서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다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이 투자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같은 도시와 해양관광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남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전남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⁹⁴⁾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민관협력 개발사업으로, 특별법 제정과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특징이 있다.

솔라시도는 ‘태양(Solar)’과 ‘바다(Sea)’의 ‘도시(City)’라는 의미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2003년 전경련이 제안한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 개발 관련 정책이 받아들여져, 2004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약칭: 기업도시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순수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시행 전담법인(SPC)이 설립되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긴 주요 문제들은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의 협의와 제도개선(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해 해결했다는 특징도 있다. 지자체는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기업도시 전담 부서와 해남군 기업도시팀을 운영 중이며, 전남 기업도시담당관을 배정하였다.

94) 전라남도(2014); 솔라시도 홈페이지(검색일: 2023.6.12.) 참고 저자 작성

솔라시도의 3개 지구 중 삼포지구는 KAVO(주)·전남개발공사·목포도시가스가, 삼호지구는 서남해안레저(주)가, 구성지구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이 사업 시행을 맡고 있다.⁹⁵⁾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관광, 식품·건강, 재생에너지, 정원산업 등 네 가지 맞춤형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태양광)·해양바이오·웰니스관광 등 블루이코노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⁹⁶⁾

〈표 2-31〉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요

솔라시도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적	33.8km ² (삼포지구 4,289천m ² , 삼호지구 8,648천m ² , 구성지구 20,899천m ²)
	사업기간	2006~2025년
	사업근거	(국토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사업 시행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레저(주), KAVO(주) 등
	도입시설	주택, 복합환승시설, 호텔, 콘도, 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마리나, 국제 자동차 경주장 등

자료: 전라남도(2014); 솔라시도 홈페이지(검색일: 2023.6.12.);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홈페이지(검색일: 2023.6.12.) 참고 저자 작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국고지원, 관광시설 투자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이점은 규제특례로 외국교육기관(대학교)·외국병원 설립 허용, 사증발급 간소화, 노동규제 완화, 외국인 교원·강사 보수 지원 등의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특례가 있다. 또한 관광시설 투자혜택으로 관광업에 2천만 달러 투자 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해주고, 국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⁹⁷⁾

95)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홈페이지(검색일: 2023.6.12.) 참고

96)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2019.12.), pp. 115-138.

97)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15년 감면 혜택이 있다(솔라시도 홈페이지, 검색일: 2023.6.12.)

3개 지구 중 산이면에 있는 구성지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최대 240억 원(국·도비 1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⁹⁸⁾ 공모 선정으로 솔라 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⁹⁹⁾

오시리아는 전 세대가 놀고, 먹고, 쉬고, 자는 것이 다 가능한 사계절 체류형 도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 사례다. 공급자 위주의 계획수립을 지양하면서 공공의 선투자를 통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통해 민간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다. 또한 유흥시설(롯데월드, 스카이라인 루지, 스포츠파크 등), 휴양시설(소공원, 호텔 등), 편익시설(쇼핑몰·F&B 등), 녹지 등의 시설 도입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오시리아는 ‘오랑대’와 ‘시랑대’라는 관광단지 내 장소들과 접미사 ‘~이아(ia)’를 결합한 명칭으로, ‘오시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05년 관광단지 지정과 2010년 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 골프장과 아울렛 개장, 2016년 동해남부선 오시리아역 개통, 2017년 복합리조트단지(아난티코브(힐튼부산호텔, 아난티 펜트하우스 등)), 2020년 글로벌 가구매장(이케아), 2022년 테마파크(롯데월드) 등의 개장이 이어졌다.¹⁰⁰⁾ 2022년 3월 기준, 34개 시설 중 32개 시설의 투자유치를 완료하였다(1개 시설 공모 중, 1개 시설 부산도시공사 시행 검토).¹⁰¹⁾

98) 솔라시도 홈페이지(검색일: 2023.6.12.)

99) 박경욱(2021); 부산역사문화대전(검색일: 2023.6.26.) 참고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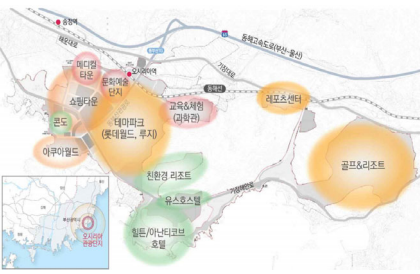
100) 부산 투자환경 홈페이지(검색일: 2023.7.6.) 참고

101) 위 홈페이지.

부산도시공사는 개발사업자 선정 등 사업 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부산광역시는 정책 방향 설정, 투자 상담·마케팅 지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주도의 개발 방식과 민간투자자 주도의 일괄 개발 방식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¹⁰²⁾ 2018년에는 관광단지 내에 조성 중인 아쿠아리움(아쿠아월드) 건립 부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¹⁰³⁾으로 지정되어 세제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해양관광과 숙박·놀이·쇼핑·예술·휴양·레저스포츠 등이 모두 가능해 다양한 세대의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도심과 가까운 융복합 해양관광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은 2017년에 개장한 아난티코브와 2025년 개장 예정인 아쿠아월드 등의 체류형 문화관광시설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

〈표 2-32〉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요

오시리아 위치 및 시설	구분	내용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
	면적	3,660만㎡
	사업기간	2006~2023년
	사업근거	(문체부) 관광진흥법
	사업시행자	부산도시공사
	도입시설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호텔, 복합쇼핑몰, 골프장, 국립과학관 등

자료: 박경옥(2021), p. 3;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검색일: 2023.6.13.) 재인용

102) 부산역사문화대전(검색일: 2023.6.26.)

103) 개별형 외투자지역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이다(해운대소방서 보도자료, 2018.12.14.)(검색일: 2023.7.6.).

3)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는 국내 유일의 ‘섬복합관광단지’이자 휴양과 레포츠 활동이 모두 가능한 체류형 해양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사례이다.¹⁰⁴⁾ 경도해양관광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6개 지구 중 하나로 경도지구라고 불리며, 2017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지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추진 및 개발을 위해 정부의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처리되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해상교량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⁰⁵⁾ 더불어 개발투자비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외자유치 활성화와 투자비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경도해양관광단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곳은 2013년 부동산 투자이민제¹⁰⁶⁾ 도입 후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였다. 단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시설이다.¹⁰⁷⁾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개발공사가 보유했던 소유권과 사업시행권이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이전되었다.¹⁰⁸⁾ 이에 따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민자 100%) 호텔·콘도, 워터파크, 인공해변, 해상케이블카, 쇼핑몰 등을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¹⁰⁹⁾

10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검색일: 2023.7.4.) 참고

105) 교통신문(2017.11.6.)(검색일: 2023.7.7.)

106)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여수시 여수핫뉴스, 2023.5.4.)(검색일: 2023.7.6.). 명칭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되었다.

107) 여수시 여수핫뉴스(2023.5.4.)(검색일: 202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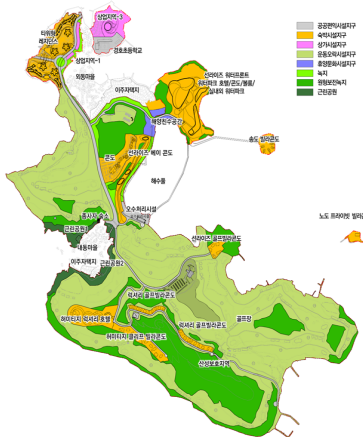
108) 전남개발공사 언론보도(2019.11.28.)(검색일: 2023.7.7.)

10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검색일: 2023.7.4.); 비즈니스플러스(2021.6.1.)(검색일: 2023.7.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만청)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건설할 예정이고, 예산은 1,195억 원으로 국비 40%(478억 원),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각 20%(239억 원씩) 분담한다.¹¹⁰⁾

경도해양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을 활용해 체류형 섬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례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 투자 개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단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륙교 건설에 중앙정부, 전남도, 여수시, 광양만청, 사업시행사인 미래에셋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시사점도 있다.

〈표 2-33〉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	구분	내용
	위치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면적	2.15km ²
	사업기간	2017~2029년
	사업근거	(산자부)경제자유구역법
	사업시행사	와이케이디벨롭먼트(주) (미래에셋 계열사)
	도입시설	호텔, 콘도, 레지던스, 워터파크, 상업 시설, 해양친수공간, 해상케이블카, 마리나, 골프장, 초등학교 등

자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검색일: 2023.7.4.) 참고 저자 재구성

110) 한겨레(2022.3.29.)(검색일: 2023.7.7.)

2. 국외 사례분석

1)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양도시 조성¹¹¹⁾

포트벨(Port Vell) 항구¹¹²⁾를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의 워터프론트 재개발은 시의회 주도의 프로젝트 추진과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해양레저관광도시로 거듭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르셀로나 워터프론트 재개발은 시의회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중심 접근방식으로 추진되었고, 프로젝트와 건설 비용은 공공에서 지불하였다.¹¹³⁾ 이 정책사업은 민간 개발자에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었다.¹¹⁴⁾

포트벨 항구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돌아온 항구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는 한때 상업 및 비즈니스 중심지였으나 항만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공동화됐다. 1970년대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특히 해안가 지역의 동쪽에 있는 도시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이 쇠퇴했다. 바르셀로나 인구가 13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워터프론트에 있는 역사지구인 시우타드 벨라의 인구는 1950년대 27만 명에서 1980년에는 10만 명으로 감소했다.¹¹⁵⁾

바르셀로나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1987년 발표된 도시개발 계획은 미시적 규모(공원, 광장)에서 거시적 규모(고속도로, 해안가, 통신 네트워크)로 전환되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다중중심(polycentric) 도시 개발을 추구하면서 워터프론트 재개발을 포함한 도심 외곽의 30~130ha의

111) Garcia(2008), pp. 49-79.; Jauhiainen(1995), pp. 3-23.; Schubert(2010), pp. 74-97. 참고
저자 작성

112) 포트벨 항구는 바르셀로나 구도심 시우타드 벨라(Ciutat Vella)의 카탈루냐 광장에서부터 해변의 콜럼버스 기념비까지 이어지는 람블라스 거리(La Rambla)의 끝자락에 있다.

113) Galland & Hansen(2012), p. 207; Garcia(2008), p.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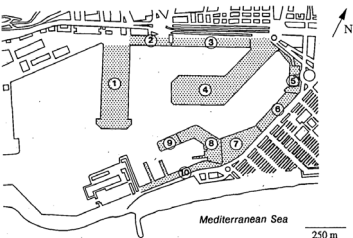
114) Garcia(2008), p. 62.

115) Jauhiainen(1995), p. 8.

크고 작은 12개 지역을 개발하여 새로운 활동을 창출하고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었다.¹¹⁶⁾ 바르셀로나 연안은 오랫동안 항구지역으로 사용되면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워터프론트 재개발을 통해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연안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의의가 있다. 1986년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올림픽을 위해 이 연안지역을 재개발하였다.¹¹⁷⁾

워터프론트 재개발은 포트벨의 푸스타 부두(Moll de la Fusta) 재개발¹¹⁸⁾을 시작으로 수족관, 팔라우 데 마르(Palau de Mar), 마레마그넘(Maremagnum) 대형쇼핑센터, IMAX-영화관 등이 포함된 포트벨 항구 재개발, 그 외에도 다른 재개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서 관광목적지로 탈바꿈하였다.¹¹⁹⁾ 재개발을 통해 푸스타 부두 해안산책로는 박물관, 쇼핑센터, 콜럼버스 전망대 및 여러 명소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연중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다.

〈표 2-34〉 바르셀로나 시우타드 벨라 개요

바르셀로나 시우타드 벨라의 주요 공간	구분	내용
 1 Moll de Barcelona 4 Moll d'Espanya 7 Moll del Relleu 10 Moll Nou 2 Moll de Duesanes 5 Moll del Dipòsit 8 Moll de Pescadors 3 Moll de Bosch i Alsina 6 Moll de la Barceloneta 9 Moll de Bateus	위치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트벨 항구 일대
	면적	130ha
	사업기간	1983~1992년
	재개발 특징	시의회 주도, 민간 자본 유치
	도입시설	쇼핑몰, 수족관, 역사박물관, IMAX 영화관, 국제컨퍼런스센터, 레스토랑, 수상스포츠센터, 마리나, 국제여객선터미널, 공원 등

자료: Jauhiainen(1995), p. 11; Go Guides(검색일: 2023.7.3.) 참고 저자 작성

116) Jauhiainen(1995), p. 9.

117) Schubert(2010), p. 82.; Go Guides(검색일: 2023.7.3.)

118) 포트벨의 푸스타 부두는 목재를 저장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1992년 올림픽을 위해 해안산책로로 재개발되었다(Barcelona website, 검색일: 2023.7.10.).

119) Schubert(2010), p. 83.

일명 ‘바르셀로나 모델’로 불리면서 해양도시 재개발의 대표 사례가 된 바르셀로나 워터프론트 재개발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개발을 통해 쇠퇴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켰다. 지난 20년 동안 바르셀로나는 포트벨 항구 일대 워터프론트 재개발을 포함해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광장 리노베이션, 공원, 해안산책로 등 수십 개의 공공공간을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시 생활의 질을 높였다. 공공공간 개선을 통해 보행자 이동성이 개선되었고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건물에 투자를 증대했을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데 유연성을 제공하였다. 둘째, 1987년 프로젝트로는 항구와 도시 간의 교통을 부분적으로 지하화하여 ‘도시의 발코니(urban balcony)’를 다시 조성함으로써¹²⁰⁾ 항구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시와 바다를 다시 연결했다. 셋째, 재개발 과정에서 역사적·건축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은 보존·활용했다. 한 예로, 1880년대에 지어진 항구 창고를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위해 까탈루냐 역사박물관과 레스토랑 등으로 리모델링한 팔라우 데 마르(Palau de Mar), 사무실,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한 몰 데 디포짓(Moll del Diposit) 등이 있다(표 2-34의 ⑤).¹²¹⁾ 넷째, 민간투자를 통해 워터프론트를 레저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엔터테인먼트개발회사(Enterprise Development Corporation)는 이 부두에 몰 디에스파냐(Moll d’Espanya)¹²²⁾ 조성을 제안했고, 항만청은 그러한 수익성 투자를 승인하면서도 기존 부두 전체를 유지함으로써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공공공간을 만들었다(표 2-34의 ④).¹²³⁾ 또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무역센터(Moll de Barcelona, 표 2-34의 ①) 건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레크리에이션 공간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가 집중되었다. 다섯째, 소수의 거액투자자보다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롭게 간소화된 절차와

120) Garcia(2008), p. 63 참고

121) Garcia(2008) p. 63; Jauhiainen, p. 8.(1995) 참고

122) 몰 디에스파냐는 영화관, 1,800석 규모의 강당, 100개 이상의 상점이 있는 쇼핑몰, 10개의 레스토랑, 바와 디스코장이 있는 복합공간이다(Jauhiainen, 1995, p. 12).

123) Garcia(2008), p. 65 참고

유연한 규정을 도입했다. 1986년부터 수년 동안 지속된 바르셀로나 개선 프로젝트는 복원이 시급한 건물과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했다는 성과가 있다.

2) 호주 골드코스트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¹²⁴⁾

호주 골드코스트는 상대적으로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¹²⁵⁾ 세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골드코스트는 1870년부터 시작된 100년이 넘는 다년간의 관광개발로¹²⁶⁾ 지역관광·국제관광이 모두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했다. 1980년대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서 리조트 단지 및 고급주택시설을 개발한 사례이다. 골드코스트시(City of Gold Coast)는 퀸즐랜드 정부, Gold Coast Tourism Corporation, 골드코스트시의 관광지 마케팅 조직인 DMO(Destination Gold Coast)와 협력하여 ‘골드코스트 관광목적지 관리계획(Gold Coast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Plan)’을 세워 추진하였다.¹²⁷⁾ 골드코스트 관광목적지 관리계획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목적지 조성을 위한 협력적 접근방식으로써 골드코스트시와 관광산업 간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¹²⁸⁾ 더불어 퀸즐랜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퀸즐랜드 관광 회복을 위해 2021년 초, 관광산업 전문가패널(Tourism Industry Reference Panel)을 조직하고, DMO와 협력해 퀸즐랜드 관광액션플랜(Queensland Tourism Action Plan)을 마련하면서 관광산업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¹²⁹⁾

골드코스트는 해양레저의 중심도시로 4성급 이상 호텔 100개 이상, 레스토랑 500개 이상 등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¹³⁰⁾ 특히 씨월드, 드림

124) 류효종(2007), pp. 64-70. 참고 저자 작성

125) Bajracharya et al.(2015), p. 169.

126) Prideaux(2004), p. 41. 참고

127) City of Gold Coast(2014); City of Goldcoast website(검색일:2023.9.11.)

128) 현재 업데이트된 계획을 검토 중이다(City of Goldcoast website, 검색일:2023.9.11.)

129) Destination Gold Coast(2022.6.) 참고

130) 류효종(2007), p. 62.

월드, 무비월드, 웨트앤와일드 등 4개의 테마파크는 골드코스트 경제에 캐시 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및 건강, IT 등의 산업 비중도 커서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도시인구의 35%가 외국인이다.¹³¹⁾

특히 골드코스트의 해양 부문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로 4,600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며,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부분은 레저선박의 제조, 서비스, 수리 전문 분야이다.¹³²⁾ 골드코스트 해양산업단지(Gold Coast Marine Precinct)는 레저보트 제조, 서비스, 수리를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유명한 3대 보트 제작업체를 유치하면서 보트산업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골드코스트는 호주 보트산업의 65%, 퀸즐랜드주 보트산업의 80%를 차지하는 보트산업의 메카로, 2000년도에 250ha의 해양산업단지를 지정운영, 6년 동안 70여 보트 제작 및 관련 업체를 유치시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끌어들이었으며 2,750명의 직접 고용 성과가 있었다.¹³³⁾ 이러한 성과에 따라 골드코스트 해양산업단지는 남반구에서 가장 발전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해양전문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골드코스트 해양산업단지 북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¹³⁴⁾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확장을 지원·수용하고 있다.

골드코스트 사례의 시사점은 보트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양산업단지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골드코스트시는 1980년대 초에 해양산업단지를 지정하였다. 20년 동안 1개 기업만 입주했지만, 곧바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집중한 시점이 되었을 때 신속한 사업계획허가와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¹³⁵⁾ 사전에 골드코스트시가 제도적

131) Bajracharya et al.(2015), p. 159.

132) City of Goldcoast website(검색일: 2023.9.11.)

133) 류효중(2007), p. 64.

134) City of Goldcoast website(검색일: 2023.9.11.)

〈표 2-35〉 골드코스트 해양산업단지 개요

골드코스트 해양산업단지 전경	구분	내용
	위치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쿠메라 강변 일대
	면적	250ha
	사업기간	1980년대~
	개발주체	입주기업체
	도입시설	보트제조업, 마리나 17개, 보트대여업, 보트수리업, 보트부품업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자료: We Are Goldcoast website(검색일: 2023.6.26.); 류효종(2007), p. 64.; 우석봉(2009), p. 5. 참고
저자 작성

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해 놓았다가 투자유치 시점이 되었을 때 최대의 행정 지원을 하여 투자유치를 극대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정부가 사전에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한 후 인프라를 조성한 뒤 입주희망업체에 분양하는 구조이다. 반면 골드코스트 해양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시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나면 개별 업체들이 토지 매립 후 주정부에게 개발계획의 사전 허가를 받는 구조이다. 관할 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체에 개발계획 허가가 난다. 지구 지정 이후에 실제 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시장에 맡겨지게 된다.

또 다른 시사점은 산업단지라는 공간을 관광과 연계하여 고급 레저 공간으로 이미지를 바꾼 것이다. 또한 주력산업인 보트제조업 외에도 유관 산업인 보트대여업, 수리업, 부품업뿐만 아니라 17개의 마리나도 유치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35) 우석봉(2009), p. 5.

3) 프랑스 라그랑모뜨 해양휴양도시 조성¹³⁶⁾

프랑스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은 파리와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해양휴양도시로 발전시킨 관광벨트형 해양레저관광단지 개발 사례이다. 프랑스 남서부의 니스부터 마르세유까지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 약 180km, 면적 27,376km²에 이르는 총 6개의 관광도시를 조성한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이다.¹³⁷⁾

랑그독-루시옹은 자국민들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쓰는 해외 여행 경비를 프랑스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지역균형발전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정책사업이다.¹³⁸⁾ 이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관계부처로 구성된 특무행정기구를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963년 「지역개발도시계획법」을 제정하고, 랑그독-루시옹 해안관광개발본부가 설립되면서 해안리조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¹³⁹⁾

그중 대표적인 해양레저관광단지 사례가 휴양과 해양레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늪지대에 새로운 휴양지로 개발한 라그랑모뜨(La Grande-Motte)이다. 라그랑모뜨에서는 세일링, 제트스키, 수영, 워터스키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마리나, 골프 등의 주간활동과 공연, 카지노 등의 야간활동이 모두 가능한 관광단지로 개발되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고, 관광지 내 상점 운영권을 주기도 했다.

라그랑모뜨는 독특한 건축물로도 관광객들에게 주목받았다. 라그랑모뜨 개발 시 건축가 장 발라드는 모든 사람이 자동차로 휴양지까지 진입할 수

136) 오동훈 외(2008), pp. 215-217.; 오세경·이광국(2006), pp.148-150.; 황상연·신기동(2010), pp. 30-32. 참고 저자 작성

137) 오세경·이광국(2006), p. 149.

138) 황상연·신기동(2010), p. 30.

139) 오동훈 외(2008), p. 216; 황상연·신기동(2010), p. 30.

있고, 선박은 별장 앞에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¹⁴⁰⁾ 1963년 건축설계 시장 발라뒤르는 요트를 형상화한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양식을 호텔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건축설계 심의와 허가권을 주어 라그랑모프의 주요 건축물들이 통일된 느낌이 나게 되었다.

〈표 2-36〉 라그랑모프 해양레저관광단지 개요

라그랑모프 위치 및 계획	구분	내용
	위치	프랑스 남서부 지중해 연안
	면적	라그랑모프 10.58km ²
	사업기간	1963~1983년
	사업근거	지역개발도시계획법 제정
	사업시행	랑그독-루시옹 지역관광개발청 주관, 지구별 개발공사 각각 설립
	도입시설	항구, 마리나, 골프장, 호텔, 콘도, 상가, 카지노, 해양레저시설, 해양박물관 등

자료: 오동훈 외(2008), pp. 215~217.; 오세경·이광국(2006), pp.148~150.; 황상연·신기동(2010), pp. 30~32.; Darren Bradley Photography(검색일: 2023.6.26.) 참고 저자 작성

라그랑모프의 주요 성과로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 고용인구 창출 등이 있다. 개발 초기에 인구 200명에 불과했던 라그랑모프는 2004년 기준 상주인구 8,500명으로 증가했고, 성수기 최대관광객은 12만 명이며, 1,300~1,400대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했다.¹⁴¹⁾ 또한 라그랑모프가 있는 몽블리에 지역은 전체 고용인구의 83%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6만 명의 직간접 고용인구를 창출하고 있고, 관광산업이 GRDP의 12%를 차지한다.¹⁴²⁾

라그랑모프 해양레저관광단지의 주요한 시사점은 첫째, 개발과정에서 사업 주체에게 전체 권한을 위임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140) 황상연·신기동(2010), p. 30.

141) 황상연·신기동(2010), p. 31.

142) 오세경·이광국(2006), p. 149.

서 정치적 개입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덕분에 장 발라뒤르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발사업을 일괄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둘째, 개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3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이 지속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마스터플랜으로 고용 창출과 정주 환경 조성 등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효과도 있었다. 넷째, 보트를 소유하지 않은 중하위 소득계층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했으며, 해양레저를 즐기지 않는 관광객을 위한 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레저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레저관광 수요를 충족시켰다.

제3절 종합분석

본 장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과 도시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도시+관광’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의 사업을 살펴봤으며, 해외 사례로는 ‘도시+문화’ 관점에서 추진 중인 ‘유럽문화수도’와 ‘창의도시’ 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지역의 사업별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사업별 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 사업이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연안지역을 해양레저 기반 신산업 거점사업으로 육성하고 레저·관광 목적의 관계인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해양관광 테마를 설정하여 예산 및 정책지원을 통해 거점으로서 파급력을 키우는 정책 설계가 특징이었다.

〈표 2-3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진 현황

지역 (지정연도)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현재 추진 현황
전남 보성 (2020)	체류 관광형	보성 울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 사업위치: 회천면 울포리, 동울리 일원 - 사업기간: 2020~2024 - 사업비: 480억 원(국비 240, 도비 72, 군비 168) - 도입시설: 해양복합센터, 해수파도풀 리노베이션, 해양엑티비티 체험장 등	추진 중
경기 시흥 (2020)	도시 위락형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 사업위치: 거북섬(정왕동 27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2024 - 사업비: 370억 원(국비 185, 지방비 185) - 도입시설: 해상계류시설, 육상주정장, 경관브릿지, 클럽하우스 등 조성	추진 중

지역 (지정연도)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현재 추진 현황
강원 고성 (2019)	수중 레저형	강원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	- 사업위치: 고성군 죽도 일원 - 사업기간: 2022~2025 - 사업비: 410억 원(국비 205, 지방비 205) - 도입시설: 해상길, 해상전망대, 해상 스카이워크, 복합해양레저체험시설 등	추진 중
제주서귀포 (2020)	수중 레저형	제주 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	- 사업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 사업기간: 2019~2023 - 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 지방비 200) - 도입시설: 실내 서핑·다이빙장, 교육장, 전시홍보 체험관, 계류시설 등	잠정 중단
전북 군산 (2022)	레저 휴양형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고군산군도 - 사업기간: 2019~2024 - 사업비: 398억 원(국비 193.5, 도비 55.3, 시비 149.2) - 도입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산림휴양체험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추진 중
경북 경주 (2023)	사계절체 험형	신라오션 킹덤 조성사업	- 사업위치: 경주시 감포읍 - 사업기간: 2023~2027 - 사업비: 490억 원(국비 245, 도비 73.5, 시비 171.5) - 도입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해양조각공원, 수상 레저 체험장, 바다 해수풀장 등	추진 중
충남 보령 (2023)	레저 휴양형	보령시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원산도 - 사업기간: 2023~2026 - 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 도비 200) - 도입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인공서핑 체험시설, 오토캠핑장, 육상체험시설 등	추진 중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해외 문화수도 사업과 문체부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발전에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추진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육성은 도시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릴은 인근 도시의 관광객 수 대비 2.5~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던 혈은 2017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4년간 총 5.4조 원의 민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도시와 문화, 그리고 해양과 연계한 예술전시, 문화행사, 관광 프로그램을 유치하며 2017년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00%까지 상승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의 이상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¹⁴³⁾ 프랑스 마르세유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도시-항구-관광의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중해 최대의 항구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다.¹⁴⁴⁾ 창의도시 사례에서도 문화적 다양성과 개성을 핵심으로 새로운 사회현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이어지고 있었다.

해외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갈수록 쇠퇴하는 지역도시들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적극 활용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떠한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과 전통, 가치 체계를 도시의 고유한 문화로 녹여내어 지역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성공모델의 개발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추진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레저관광 도시 정책 및 사업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환경·역사·문화적 특색을 브랜드화하는 차별화된 지역 전략과 사업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사업, 해수부의 해양레저거점도시 등은 지역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사업 비전 및 브랜드를 개발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선정 및 관리에 집중하고, 필요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 지역과 지역 그리고 민간을 연계하는 브릿지 역할을 이행한다. 이로 인해 사업 콘텐츠는 지역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는 통합적 국토관리 관점에서 체계적 추진이 가능

143) 한국관광 데이터랩(2022), p. 4.

144) 김예성(2018), p. 37.

하다. 이러한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역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세분화하여 지원 정책을 차별화하였다.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에서 분류한 테마에 맞게 지자체는 선택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성격과 테마가 다르더라도 설치되는 인프라와 시설 등이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레저시설 등 비슷한 유형이라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인다.

셋째,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 등을 확대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기업도시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사업은 기존 정부 주도의 관광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입지를 직접 선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사업별 성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레저와 관광, 산업 기능이 포함된 관광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에서는 정책방향이 동일하였다.

넷째,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친수도시로 만들어 일상과 관광이 융복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기존 관광도시 정책들이 외부 관광객의 수요에 중점을 맞췄다면, 최근 정책들은 지역민들도 정책의 중요한 수요층으로 포함하여 주변 상권, 주거,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가 관광산업과 유기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사업 또는 단일 부처사업보다는 범부처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표 2-38〉 관광거점도시 육성 관련 국내 정책 현황

소관부처	근거	사업명	사업내용	현재 추진 현황
문화체육 관광부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2019)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 목적: 수도권 외 지역의 관광역량 강화 • 분류: 글로벌 수준의 국제관광도시와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분류 • 사업기간: 2020~2024(5년) • 사업비: 사업별 천억 원 규모	• 국제관광도시 (부산) • 지역관광 거점도시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선정)
	대한민국 문화 도시 추진계획 (2018) 「지역문화 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	• 목적: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 창출 • 분류: 역사전통중심형, 예술중심형, 문화산업중심형, 사회문화중심형, 지역자율형 • 사업기간: 2019년~현재(매년 진행) • 사업비: 사업별 200억 원	• 24개 법정문화 도시지정 (~2022년) • 문화도시 2단계 사업 계획 발표 (2023)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 목적: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마트관광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 분류: 교통연계형, 관광명소형, 강소형 • 사업기간: 2020~현재(매년 진행) • 사업비: 사업별 40억 원 내외	• 11개 스마트관광 도시 선정 (~2023)
국토 교통부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관광레저 도시	• 목적: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 실현 • 분류: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 사업기간: 2005~현재 • 사업비: 민간투자(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 2005년 시범사업 일환으로 무주, 태안, 영암·해남 선정(3곳)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 도시	• 목적: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 사업기간: 2018~현재	• 스마트도시 국가 시범도시 2곳 선정 완료(2018)
해양 수산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2019)	해양레저 관광거점	• 목적: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 실현 • 분류: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 사업기간: 2005~현재 • 사업비: 사업별 400억 원 내외(국비+지방비)	• 7개 거점도시 선정 완료(2023)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기업도시, 관광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의 제도들을 활용해서 민간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남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국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관광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점을 통한 세제감면 혜택 등을 적용하고 있다. 경도해양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기간 단축,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중앙정부 주도, 시의회 주도, 시 주도 후 민간이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워터프론트 재개발사업은 시의회가 주도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워터프론트를 레저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간소화된 절차와 유연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시사점이 있다. 호주 골드코스트는 시가 해양산업단지를 지정만 하고 실제 조성은 민간이 담당한 사례로, 보트산업 중심의 해양산업단지와 관광을 연계하여 고급레저공간이라는 이미지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 프랑스 라그랑모뜨는 지역불균형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 개발 사례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주민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고 관광단지 내 상점 운영권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표 2-39〉 국내·외 사례 종합

구분	개발주체/ 사업시행	시사점
전남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민관협력 개발	• 특별법 제정과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의 문제 해결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국고지원, 관광시설 투자혜택 등 제공 •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투기업 특례 제공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도시공사	• 시장 상황에 따라 공사 주도의 개발방식과 민간 주도의 일괄 개발방식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 • 일부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민간 (전남개발공사의 소유권·사업시행권 이전)	•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기간 단축,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 세제감면 혜택) •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 민자 100%로 사업 시행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양도시 조성	시의회 주도, 민간투자 유치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워터프론트를 레저문화공간으로 전환 • 간소화된 절차와 유연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유치
호주 골드코스트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민간이 발전계획 수립·운영, 주정부 사업지원, 입주기업체 개발	• 골드코스트시가 해양산업단지 지정, 실제 조성은 민간이 담당 • 해양산업단지와 관광과 연계하여 고급레저공간이라는 이미지로 전환
프랑스 라그랑모뜨 해양휴양도시 조성	중앙정부 주도	•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지속적 사업추진 • 기존 주민에게 이주단지 조성, 관광단지 내 상점 운영권 제공

자료: 저자 작성

0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 정립

제1절 국내 해양도시 경쟁력 분석

1. 국내 해양도시 발전여건 및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분석

1) 국내 해양도시 발전여건 분석¹⁴⁵⁾

우리나라 해양도시는 전 인구의 28.3%, GRDP의 33.7%를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 핵심공간이다.¹⁴⁶⁾ 해운·조선·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신해양산업 전체로 해양도시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11개 해양도시의 발전여건을 경제, 사회, 환경, 정책 분야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국내 해양도시 발전여건 분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발한 연안지역발전지수를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연안지역발전지수(CoDI)는 ‘연안경제 기반의 지역 경쟁력을 진단·분석하는 복합지수’로 지역 경쟁력의 영향을 ① 연안경제, ② 연안사회, ③ 연안환경, ④ 연안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¹⁴⁷⁾

145) 본 분석 결과는 황재희 외(2022)가 수행한 ‘연안지역발전지수 개발 연구’ 결과를 참고함

146) 황재희 외(2022), p. 4.

147) 위 자료, p. 186.

우리나라 해양도시는 해양 기반의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8.3%와 생산가능인구의 27.9%가 해양 도시에 거주하며, 2019년 기준 전국 GRDP(지역내총생산)의 33.7%를 산출하고 있다.¹⁴⁸⁾ 연안의 1인당 GRDP는 4,488만 원으로 전국(3,717만 원) 대비 높은 생산성을 방증한다.¹⁴⁹⁾ 또한 해양도시에는 2020년 기준 전국 사업체의 28.6%, 종사자의 28.2%, 제조업 종사자의 42.7%가 분포하고, 전국의 83.1%에 해당하는 8만 2,677개소의 해양기업이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⁵⁰⁾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 평가와 함께 11개 도시별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결과 전남이 11개 해양도시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제주, 인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전북 순으로 분석되었다.

4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연안경제는 제주, 강원, 전남, 경북이 평균값 이상을 보였는데, 산업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 부산, 인천 지역보다 위 세 지역이 더 높은 경쟁력을 나타냈다. 연안사회 부문으로는 경기, 인천, 부산, 제주가 평균값 이상의 여건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안 환경 부문은 해양자원 보유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전남, 인천, 충남,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역량을 평가하는 연안정책 항목은 제주, 경북, 경기, 경남 순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본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통적인 해양산업 도시, 그리고 해양관광 도시로 평가되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하위권을 기록한 점이다. 세 지역의 경우 해양산업의 경쟁력과 비교적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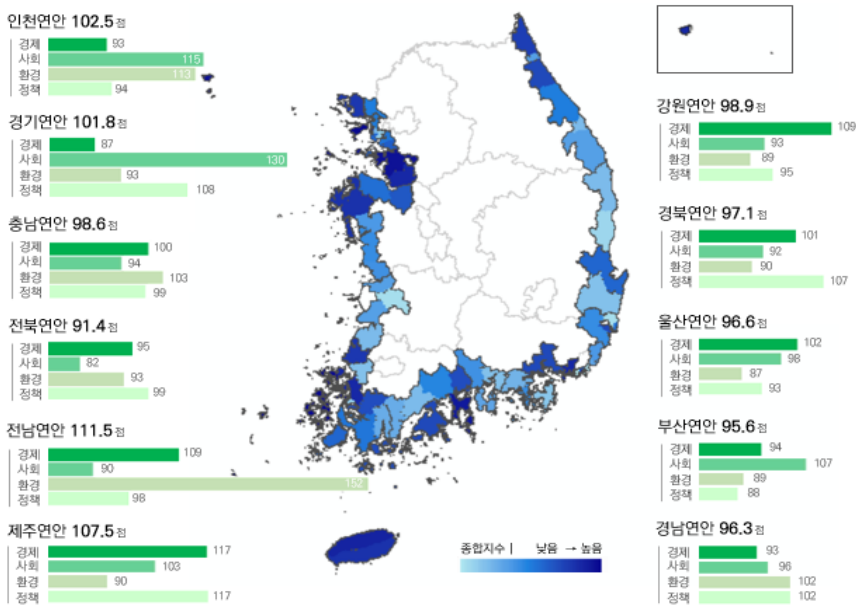
148) 위 자료, p. 4.

149) 위 자료, p. 4.

150) 위 자료, p. 4.

하고 낮은 산업 다양도와 서비스업 등 고차 산업으로의 낮은 발전 가능성, 고용 위기, 인구 유출, 재정지출 축소 등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지역발전 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⁵¹⁾

〈그림 3-1〉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분석 결과



생 산 2019년

1인당 GRDP

전국 3,717 만원

연안 4,488 만원 | 전국의 1.2배

GRDP 총액

전국 1,927 조

연안 650 조 | 전국의 33.7%

인 구 2022년

생산가능인구 증감 '17~'22년

전국 -0.61 %

연안 -0.12 % | 전국비 ▲0.49%p

주민등록인구 수

전국 5,158 만명

연안 1,459 만명 | 전국의 28.3%

재 정 2022년

1인당 재정지출

전국 775 만원

연안 777 만원 | 전국비 ▲2만원

재정자립도

전국 49.9 %

연안 22.3 % | 전국비 △27.6%p

주: 부문별 지수는 가중치 미적용 값

자료: 황재희 외(2022), p. 189.

151) 위 자료, p. 187.

2) 국내 해양관광시장 경쟁력 분석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관광시장은 국내 전체 관광시장의 50% 수준이다.¹⁵²⁾ 연안지역 접근성 개선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낚시, 요트, 서핑 등 해양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며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에 대해 살펴보고 성장 여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국내 해양관광시장 규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 규모는 37조 4,400천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⁵³⁾ 동 기간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상권 매출액은 58조 200억 원 규모로 이 중 해양관광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5% 수준으로 분석된다.¹⁵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과 2019년 시장 규모는 29조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28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1년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로 31조 3,300억 원을 기록하며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시장 규모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비대면,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해양관광시장이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안지역별로 해양관광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부산이 2022년 기준 5.7조 원 규모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 5.2조 원, 전남 4.9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동 기간 7,750억 원 수준으로 부산, 경남, 전남 등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해양관광시장 규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⁵⁾

152) 최일선 외(2019), p. 3.

153) 최일선·이슬기·김예림(2023), p. 1.

154) 위 자료, p. 1.

155) 최일선·이슬기·김예림(2023), p. 5.

〈표 3-1〉 연안지역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규모 트렌드

단위: 백만 원

지역	해양관광시장 규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산연안	4,786,052	4,882,438	4,295,493	4,654,190	5,721,731
인천연안	3,174,522	3,141,923	2,973,637	3,229,215	4,017,593
울산연안	2,255,201	2,223,236	1,976,293	1,970,381	2,388,764
경기연안	2,126,870	2,148,907	2,230,100	2,549,265	3,098,299
강원연안	2,430,328	2,502,826	2,567,724	2,813,166	3,417,196
경북연안	1,409,302	1,458,279	1,406,611	1,608,198	1,890,359
경남연안	4,688,979	4,731,324	4,441,219	4,579,908	5,278,923
전북연안	654,190	632,837	619,700	676,412	775,436
전남연안	3,874,961	4,086,385	4,007,636	4,274,519	4,916,296
충남연안	1,408,447	1,458,720	1,492,159	1,722,071	1,986,864
제주연안	2,545,753	2,662,971	2,643,025	3,258,404	3,952,676

자료: 최일선·이슬기·김예림(2023), p. 6.

다음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OECD 해양경제 중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총 산출과 부가가치 분야에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고성장 산업분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2017~2019년 기준) 1.1%로 동 기간 전 산업 연평균 성장률인 2.3%보다는 낮았지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0.9%로 전 산업 기준인 0.1%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¹⁵⁶⁾

156) 장정인 외(2022)

〈표 3-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2017~2019)

부문	총 산출		부가가치		취업자 수	
	CAGR	그룹분류	CAGR	그룹분류	CAGR	그룹분류
수산물 생산	-1.5%	↓	-7.8%	↓	6.6%	↑
수산물 가공	-0.9%	↓	1.6%	↑	-4.7%	↓
수산물 유통	2.5%	↑	1.6%	↑	-2.3%	↓
해운	9.6%	↑	7.1%	↑	18.1%	↑
항만	6.5%	↑	5.4%	↑	3.2%	↑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2.3%	↓	-1.4%	↓	-2.3%	↓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7.3%	↓	-6.9%	↓	-8.5%	↓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3.1%	↑	-1.1%	↓	0.8%	↑
해양레저관광	1.1%	↑	2.0%	↑	0.9%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12.2%	↑	12.3%	↑	3.2%	↑
해양수산 전체	3.4%	↑	4.1%	↑	2.0%	↑
전 산업	2.3%	-	2.4%	-	0.1%	-

주: ↑는 고성장 추세 그룹(전 산업 GAGR보다 높은 산업), ↑는 성장 추세 그룹(전 산업 GAGR보다 낮지만 양(+)인 산업), ↓는 하락 추세 그룹(GAGR이 음(-)인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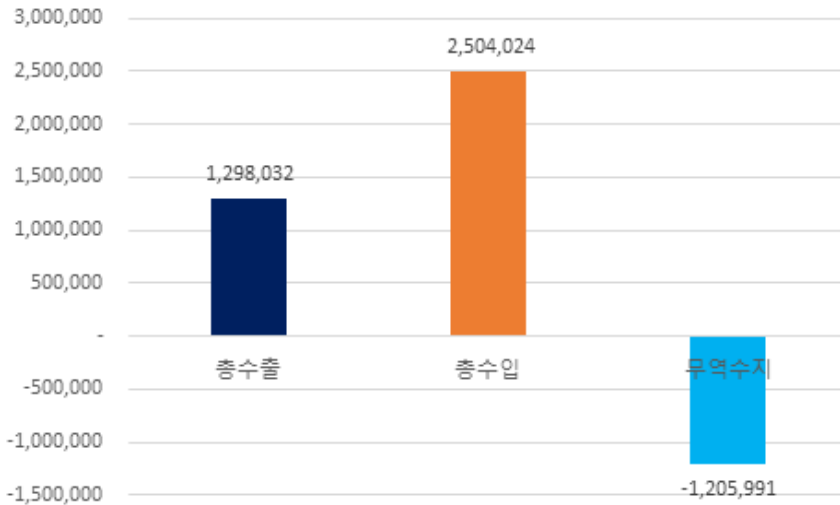
자료: 장정인 외(2022). pp. 172-173.

한편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총 산출규모는 7조 2,701억원, 부가가치는 2조 9,73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⁵⁷⁾ 이 중 연안 음식·숙박업이 총산출, 부가가치, 영업잉여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양레저관광업의 총취업자 수는 약 82,593명이며 연안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이 고용되었고, 다음으로 해양레저관광업, 수산레저관광업 순으로 나타났다. 동 산업의 총수출은 1조 2,980억 원이며 총수입은 2조 5,040억 원으로 1조 2,060억 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157) 해양수산부(2022). pp. 230-231.

〈그림 3-2〉 해양수산레저관광업 총수출, 총수입, 무역수지

단위: 백만 원



자료: 해양수산부(2022). p. 231.

(2) 국내 해양관광시장 경쟁력

해양관광 경쟁력이란 ‘해양관광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총체적 능력으로 해양관광지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정책 등 내·외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말한다.¹⁵⁸⁾ 즉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이 높은 지역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급력과 경제적 가치 창출력, 그리고 지역의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곳을 의미한다. 최일선 외(2020)는 국내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로 구분되어 있다.¹⁵⁹⁾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해양 매력물과 수용력을 포함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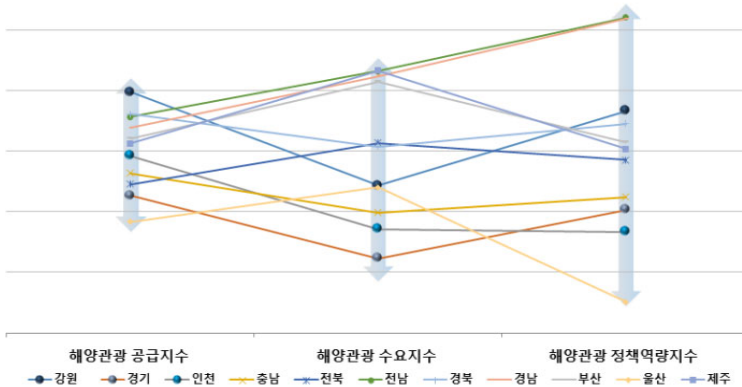
158) 최일선 외(2019), p. 23.

159) 최일선 외(2020), p. 3.

수요지수는 해양관광 평가와 지역경제효과를, 정책역량 지수는 지역의 인력양성과 관광행정 측면으로 지표를 제시하였다.¹⁶⁰⁾

위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기준으로 국내 11개 연안 광역시·도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지역별 편차가 적은 반면 해양관광 수요와 정책역량 지수 부문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남과 경남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가 높은 편이나 경기, 울산, 인천, 충남 지역은 타 연안에 비해 전반적인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급지수는 강원, 전남, 경북 순으로 높고 울산, 경기, 전북 등이 낮게 나타났다.¹⁶¹⁾ 수요지수에서는 제주, 전남, 경남, 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인천, 충남, 울산 등이 낮게 나타났다.¹⁶²⁾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경남, 전남, 경북, 강원 순으로 높고, 울산, 인천, 경기 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³⁾

〈그림 3-3〉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



자료: 최일선 외(2020), p. 132.

160) 위 자료, p. 136.

161) 위 자료, p. 136.

162) 위 자료, p. 136.

163) 위 자료, p. 136.

2. 국내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심층 진단·분석

우리나라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심층 진단하고자 앞서 분석한 해양도시 여건과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중 대표 지표인 지역 관광객 수와 지역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도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기준(2022년 기준)

기준	도시
인구 50만 이상 (and) 연간 관광객 수 3,000만 이상	부산, 인천, 울산, 평택, 안산, 시흥, 화성, 창원
인구 10만 이상 (and) 연간 관광객 수 2,000만 이상	김포, 강릉, 아산, 당진,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거제, 제주, 서귀포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연안경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표 지표인 도시의 총인구수와 1인당 GRDP를 분석하였다. ‘단위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하는 총인구수는 지역의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1인당 GRDP를 평가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 규모, 생산 수준,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발전여건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총인구수를 살펴보면 광역시급인 부산, 인천, 울산의 총인구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광역시급을 제외하면 창원특례시가 100만 명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과 광역시급을 제외한 도시 중에서는 포항시가 50만 명 정도로 높은 편이며, 이어서 제주도 49만 명, 아산시 33만 명, 순천시 28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GRDP를 살펴보면 화성시, 아산시, 여주시 등의 지역이 9천만 원 이상으로 높다. 화성시는 대기업 연구소와

주요 생산공장이 있으며, 동탄 신도시를 배후단지로 하여 새로운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다. 아산시와 여주시 역시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지역에 집적되어 있어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이다. 한편 목포시와 순천시의 1인당 GRDP는 2천만 원 내외로 나타나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연안경제 평가

단위: 명, 천 원

기준	총인구수 (2022년 기준)	1인당 GRDP (2019년 기준)
부산시	1,794,653	32,203
인천시	2,175,986	34,909
울산시	905,255	75,488
평택시	572,548	62,416
안산시	648,849	39,587
시흥시	513,928	34,197
화성시	896,147	91,406
창원시	1,026,749	38,153
김포시	485,395	31,953
강릉시	212,277	26,608
아산시	330,516	92,151
당진시	167,092	68,153
목포시	217,604	19,710
여주시	275,544	91,485
순천시	280,195	21,906
포항시	499,854	38,189
경주시	250,857	40,711
거제시	238,423	38,409
제주시	493,538	30,362
서귀포시	184,474	30,009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3.6.8.)

다음으로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관광수요를 평가하였다. 관광수요 평가지표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데이터랩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관광객수와 최일선 외(2023)의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관광 관련 업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집계된 관광 소비액을 지표로 평가하였다.

〈표 3-5〉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관광수요 평가

단위: 명, 백만 원

기준	관광객 수 (2022년 기준)	소비액 (2022년 기준)
부산시	339,404,448	5,721,731
인천시	278,095,912	4,017,593
울산시	111,518,166	2,388,764
평택시	47,133,757	309,390
안산시	78,342,236	496,917
시흥시	53,063,073	1,062,868
화성시	97,693,580	723,201
창원시	128,972,506	2,803,011
김포시	50,968,445	505,922
강릉시	35,769,287	824,060
아산시	34,516,286	47,709
당진시	23,309,420	562,619
목포시	25,403,124	747,053
여주시	27,140,222	1,386,370
순천시	25,187,999	375,533
포항시	59,228,400	969,200
경주시	45,105,722	153,338
거제시	23,138,817	1,094,201
제주시	65,284,170	2,175,445
서귀포시	49,690,142	1,777,230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검색일: 2023.8.30.); 최일선 외(2023), pp. 17~8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관광객 수에서는 광역시급인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3억 4천만 명, 2억 8천만 명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원시가 1억 3천만 명 수준이다. 광역시급과 수도권을 제외한 연안지역에서는 제주시와 포항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각각 6,500만 명, 5,900만 명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거제시와 당진시의 관광객 수는 2,30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된 관광 소비액을 살펴보면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5조 7천억 원, 4조 원 수준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울산시와 창원시가 2조 3천억 원, 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높다. 수도권에서는 시흥시가 1조 원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주시가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높으며, 이 밖에 1조 이상의 해양관광 소비액을 보이는 곳이 서귀포시(1조 7천억 원), 여수시(1조 4천억 원), 거제시(1조 원) 등이다. 한편 연안지역 중에서도 소비액이 낮은 지역은 아산시(470억 원), 경주시(1,530억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안에 인접한 행정동이 많지 않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관광공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관광공급 평가지표는 해양레저관광의 수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숙박시설 현황과 대표적인 해양관광의 매력물인 해수욕장을 활용하였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업 종사자 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2022년 기준 숙박시설 수는 부산시와 인천시가 1,0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시와 창원시가 800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연안지역의 숙박시설이 많은 곳은 제주시(836개), 여수시(539개), 강릉시(441개), 포항시(402개)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안지역의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강릉시가 20개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거제시가 16개로 많았다. 인천시 역시 해수욕장이 11개로 많았는데, 특히 옹진군 섬에 위치한 해수욕장이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의 경기권에는 등록해수욕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산시와 순천시도 등록해수욕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3-6〉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관광공급 평가

단위: 개, 명

기준	숙박시설 수 (2022년 기준)	등록해수욕장 수 (2022년 기준)	해양관광업 종사자 수 (2022년 기준)
부산시	1,174	7	6,752
인천시	1,090	11	5,636
울산시	553	2	2,510
평택시	217	0	1,102
안산시	58	0	1,419
시흥시	99	0	1,118
화성시	228	0	1,935
창원시	800	1	3,226
김포시	71	0	891
강릉시	441	20	1,491
아산시	208	0	501
당진시	112	2	556
목포시	308	1	1,073
여주시	539	15	1,583
순천시	258	0	658
포항시	402	6	1,851
경주시	358	5	721
거제시	280	16	1,256
제주시	836	8	2,592
서귀포시	576	4	1,408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검색일: 2023.8.30.);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3.6.8.)

한편 해양관광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부산시(6,752명), 인천시(5,636명), 창원시(3,226명) 순으로 많았다. 해양관광업 종사자 수 역시 대도시를 끼고 있는 광역시와 특례시가 많은 편이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제주시, 포항시, 여주시, 강릉시가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편이고, 반면에 아산시, 당진시, 경주시 등은 1,000명 이하로 나타나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산은 국립해양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하여 해양과 관련한 역사, 문화, 인류, 민속, 예술, 과학 등을 전시·조사·연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도구는 국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 국외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 밖에 부산은 수영만요트경기장을 포함하여 남천 마리나, 운촌거점마리나항만(예정), 마리나비즈센터(예정) 등 마리나산업과 관련한 거점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대도시권을 배후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배후로 해양레저관광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인천시 중구에는 거점 마리나인 왕산마리나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인천신항 크루즈터미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 중구 월미도에는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해양레저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거점 시설이 도시를 채우고 있다.

다음으로 울산은 해양생태 전문 박물관으로 울산해양박물관이 울주군에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울산은 남구 장생포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구축하여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과 고래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을 운항 중이다.¹⁶⁴⁾ 이 밖에 울산은 동구 대왕암공원을

164)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검색일: 2023.7.12.)

중심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구상하고 있어 향후 울산의 체류형 해양관광 여건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¹⁶⁵⁾ 다음으로 평택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터미널은 코로나19 이전 중국의 5개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항로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¹⁶⁶⁾ 또한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평택호 요트장이 있으며, 해당 요트장은 2010년부터 매년 여름 요트 교실을 운영하여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⁶⁷⁾ 한편 평택시는 평택·당진항을 서해권 해양관광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5.9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여객부두 등의 확충을 이어갈 예정이다.¹⁶⁸⁾

안산시는 방아머리 거점 마리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대부분도 시화방조제 인근 해상에 레저선박 300척을 수용 가능한 거점 마리나항만으로 계류시설을 포함하여, 상업시설, 마리나빌리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수도권을 배후로 마리나산업의 발전이 제고될 것이다.¹⁶⁹⁾ 또한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어촌의 삶과 문화에 대한 전시를 기반으로 경기만과 대부도를 중심으로 갯벌, 어업문화, 생활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⁷⁰⁾

시흥시는 서해안 최대 패총유적지인 오이도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흥오이도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의 인공서핑 파크인 웨이브파크가 위치해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다.¹⁷¹⁾ 이 밖에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인 아쿠아팻랜드, 해양 교육 홍보시설과

165) 서울경제(2022.2.6.) (검색일: 2023.7.11.)

166) 평택시사신문(2022.7.6.) (검색일: 2023.7.12.)

167) 평택시민신문(2022.8.24.) (검색일: 2023.7.12.)

168) 경인매일(2022.4.13.) (검색일: 2023.7.12.)

169) 경기일보(2022.9.5.) (검색일: 2023.7.12.)

170)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홈페이지(검색일: 2023.7.12.)

171) 시흥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검색일: 2023.7.13.)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를 겸하는 해양생태과학관을 조성하는 등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¹⁷²⁾

다음으로 화성시는 2개의 마리나항을 보유하고 있다. 전곡항 마리나는 2009년 개장한 수도권 첫 마리나 시설로, 200척의 선박을 수용 가능하며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한 곳이다. 전곡항은 전국 최초로 레저 어항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다기능 테마 어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¹⁷³⁾ 제부마리나는 300척을 수용 가능한 선박 계류시설로 2023년 12월까지 클럽하우스 및 기타 기능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¹⁷⁴⁾ 또한 제부도와 전곡항은 해상 케이블카로 이어져 있어 향후 조성 예정인 고령산 해상공원 등 지역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화성시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¹⁷⁵⁾

창원시는 명동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있다. 300척의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접안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편의시설, 클럽하우스 등 종합 시설을 갖추어 보팅(boating)을 즐기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찾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¹⁷⁶⁾ 또한 진해해양공원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해양솔라파크, 어류생태학습관, 해양생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해양시설을 통해 역사·문화·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⁷⁷⁾ 이 밖에 돌섬 해양 유원지 내에 위치한 마산해양레포츠센터와 진해에너지과학공원 내에 위치한 진해해양레포츠센터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¹⁷⁸⁾

김포시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수도권 해양레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김포 아라마리나는 194선석의

172) 현대해양(2022.5.6.)(검색일: 2023.7.13.)

173) 화성시 문화관광(검색일: 2023.7.13.)

174) 경기도뉴스포털(2022.12.14.)(검색일: 2023.7.13.)

175) 경기매일(2021.1.28.)(검색일: 2023.7.13.)

176) 부산일보(2023.2.9.)(검색일: 2023.7.13.)

177)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검색일: 2023.7.13.)

178) 창원관광 홈페이지(검색일: 2023.7.13.)

계류시설을 갖춘 수도권 최대 규모의 마리나로,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는 요트정비소를 보유하고 있다.¹⁷⁹⁾ 또한 아라마리나 주변에는 아라김포여객터미널도 위치해 있다. 아라김포여객터미널은 한강과 서해를 이어주는 관문으로 공항과 인접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¹⁸⁰⁾

다음으로 강릉시의 강릉항에는 국내 1호 해양 민자사업으로 조성된 요트마리나가 있다. 2010년 40척의 수용규모를 가진 강릉항 요트마리나의 완공으로 요트 정박시설이 없었던 동해지역의 연계 관광산업이 활성화 있게 되었다.¹⁸¹⁾ 또한 강릉시는 강릉항 여객터미널도 보유하고 있다. 강릉항 여객터미널은 울릉도로 갈 수 있는 배편을 탈 수 있는 곳으로, 커피 거리로 유명한 안목 해변 옆에 위치해 있으며 요트마리나와 어촌 항구의 모습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¹⁸²⁾ 이 밖에 주문진수산물시장 앞에 위치한 주문진 해양박물관에서는 살아 있는 생물부터 박제된 생물, 조개, 산호, 암석 등의 전시를 볼 수 있다.¹⁸³⁾ 사근진 해역에 조성한 강릉 해중공원(수중박물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차별화된 해중레저공간 조성을 위해 해중공원에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을 설치하며 дай버 성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¹⁸⁴⁾

당진시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진항에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해 항만 기능을 다각화하고 기존 항만·운송·수산 기능에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 기능을 갖춘 복합형 항만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¹⁸⁵⁾ 또한 당진시와 더불어 평택·당진항 해양관광거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부두시설 확충과 배후단지

179) 헬로티비뉴스(2023.4.12.)(검색일: 2023.7.13.)

180)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23.7.13.)

181) 강릉 관광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182) 위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183) 위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184) 노컷뉴스(2022.1.21.)(검색일: 2023.7.14.)

185) 서울경제(2021.12.12.)(검색일: 2023.7.14.)

개발, 여객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¹⁸⁶⁾ 한편 당진항만관광공사 단지 내에 있는 해양테마과학관이 2022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재개장했다. 해양테마과학관은 지상 3층 규모로 해양 안전을 배우는 프로그램과 함께 해양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¹⁸⁷⁾

다음으로 목포시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가지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은 1994년 개관한 우리나라 대표 국립 해양 역사박물관이자, 아시아 최대의 수중 고고학 박물관이다.¹⁸⁸⁾ 또한 목포시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를 위한 전문 바다과학관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개관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어린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상상력을 심어주고,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¹⁸⁹⁾ 한편 목포시의 삼학도 요트마리나는 세한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이며 총 57척 규모이다.¹⁹⁰⁾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삼학도 요트마리나에서 선셋투어, 1박 2일 요트캠프 등 다양한 요트 체험을 제공하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¹⁹¹⁾

여수시는 국내 최대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소호요트마리나는 1987년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50선석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2016년 웅천신도심지구에 150선석 규모의 이순신 마리나가 개장했다. 이순신 마리나는 도심 바로 앞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상권을 갖춘 도심형 마리나의 강점이 두드러진다.¹⁹²⁾ 또한 웅천 거점형 마리나 사업이 추진 중으로 300선석 규모의 요트계류시설과 다양한 숙박,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¹⁹³⁾ 이

186) 연합뉴스(2022.4.12.)(검색일: 2023.8.21.)

187) 대전mbc(2022.4.8.)(검색일: 2023.7.14.)

18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18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190) 전남매일(2023.3.23.)(검색일: 2023.7.14.)

191) 남도일보(2023.6.21.)(검색일: 2023.7.14.)

192) 조선일보(2022.6.13.)(검색일: 2023.7.14.)

193) 세계일보(2017.1.10.)(검색일: 2023.7.14.)

밖에 여수항은 크루즈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 크루즈 유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관을 통해 해양생태·체험교육의 장을 제공¹⁹⁴⁾하는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항은 30선석 이하의 소형 마리나인 두호마리나, 여남마리나와 36선석 규모의 양포마리나, 50선석 규모의 포항구항마리나와 더불어 형산강에 75선석 규모의 마리나 계류장을 조성 중이며, 영일만항에서 출발하는 대형 국제 크루즈선을 시범 운항하는 등 해양관광산업에 힘쓰고 있다. 여남 일대에 5년간 140억 원을 투입한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도 완성되었다. 스카이워크, 해안산책길 등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다.¹⁹⁵⁾ 또한 호미곶 새천년 기념관에 위치한 포항바다화석박물관에서는 1,500여 점의 화석과 현생 생물 박제를 소장하고 있어 바다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¹⁹⁶⁾ 이 밖에 포항은 대규모 호미반도 사업을 통해 국가해양정원 건립을 추진하고 이를 호미곶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 복원·관리와 수중생태 연구 및 체험·교육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¹⁹⁷⁾

다음으로 경주시는 SMR(소형모듈원자로) 단지 인근에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여러 기반시설을 조성해 해양레포츠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¹⁹⁸⁾ 또한 감포읍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건립해 문무대왕 자료관과 해양 교류관 등 전시시설을 통해 내륙관광에 비해 소외되어 있던 동경주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¹⁹⁹⁾

거제시는 장목관광단지를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목관광단지는 총 1조 2천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거제의 자연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힐링 체류형 휴양시설로

194)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195) 경북신문(2022.4.13.)(검색일: 2023.8.21.)

196)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197) 국민일보(2022.10.2.)(검색일: 2023.7.14.)

198) 일요신문(2022.9.11.)(검색일: 2023.7.14.)

199) 지이코노미(2022.2.28.)(검색일: 2023.7.14.)

조성하는 사업이다.²⁰⁰⁾ 또한 거제시는 104척 규모의 근포마리나, 20척 규모의 지세포마리나, 10척 규모의 사곡마리나를 보유하고 있다. 지세포항 해양특구에는 거제해양레포츠센터, 돌고래 체험이 가능한 거제 씨랜드, 어촌생활사와 선박의 역사·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거제조선해양문화관²⁰¹⁾이 자리 잡고 있어 해양 문화를 즐기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²⁰²⁾

다음으로 제주시는 제주항에 대규모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크루즈 부두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선석 29척 규모(공공 25척, 민간 4척)의 김녕마리나와 30척 규모(공공 14척, 민간 16척)의 도두마리나²⁰³⁾를 운영하며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잠수함 체험이 가능한 제주씨랜드, 350종의 해양동물 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제주해양동물박물관 등 다양한 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강정민군복합항은 10만 톤 이상의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크루즈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귀포 해안을 따라 마리나항만도 분포해 있다. 서귀포시는 선석 4척 규모의 대포마리나, 5척 규모의 중문마리나, 1척 규모의 위미마리나를 가지고 있으며²⁰⁴⁾ 기존 어항을 활용한 마리나항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²⁰⁵⁾ 이 밖에 서귀포에는 40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해양레저시설, 전시·홍보체험관, 해상 계류장 등 실내·외 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²⁰⁶⁾

이상 상기에서 설명한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 일요신문(2023.1.13.)(검색일: 2023.7.14.)

201)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202) 조선비즈닷컴(2015.1.20.)(검색일: 2023.7.14.)

203) 마린랜드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204) 위 홈페이지(검색일: 2023.7.14.)

205) 국제뉴스(2023.1.25.)(검색일: 2023.7.14.)

206) 아주경제(2021.5.26.)(검색일: 2023.7.14.)

〈표 3-7〉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

기준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
부산시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크루즈항만, 송정해양레저거점, 센텀마리나파크, 수영만 요트경기장, 운촌거점마리나항만(예정), 마리나비즈센터(예정), 국제여객터미널 등
인천시	왕산마리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예정), 크루즈항만,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등
울산시	울산해양박물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박물관, 고래문화마을, 고래바다여행선 등) 등
평택시	국제여객터미널, 평택호 요트장, 평택·당진항 해양관광거점(예정) 등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예정), 안산여촌민속박물관 등
시흥시	시흥오도도 박물관, 해양레저관광거점(예정), 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예정), 해양생태과학관(예정) 등
화성시	전곡항마리나, 제부마리나, 고령산해상공원(예정) 등
창원시	해양레포츠크센터(마산, 진해), 명동마리나항만(예정), 진해해양공원, 크루즈항만 등
김포시	아라마리나, 아라김포여객터미널 등
강릉시	주문진해양박물관, 강릉항요트마리나, 강릉항여객터미널, 강릉해중공원 등
아산시	-
당진시	해양테마체험관, 당진항 친수시설(예정), 평택·당진항 해양관광거점(예정) 등
목포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삼학도요트마리나, 국제여객터미널 등
여주시	소호요트마리나, 이순신마리나, 해양수산과학관, 크루즈항만, 웅천마리나항만(예정) 등
순천시	-
포항시	형산강마리나(예정), 크루즈항만, 포항바다화석박물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블루카본생태학교, 국립어린이해양생태관, 환동해해녀문화원 등), 여남지구해양문화공간, 형산강수상레저타운, 양포마리나, 포항구항마리나, 두호마리나, 여남마리나 등
경주시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예정),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예정) 등
거제시	근포마리나, 지세포 마리나, 사곡마리나, 지세포해양특구(거제조선해양문화관, 거제씨월드, 거제해양레포츠크센터 등) 국제해양관광거점(예정), 칠천량해전공원 등
제주시	크루즈항만, 도두마리나, 김녕마리나, 신양마리나, 국제여객터미널 등
서귀포시	해양레저관광거점(예정), 크루즈항만, 중문마리나, 대포마리나, 위미마리나, 제주해양동물박물관, 제주씨랜드 등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1. 해양도시의 개념

도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경제·정치활동의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여 가옥이 밀집되고 교통로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정책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이다.²⁰⁷⁾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며,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라는 책에서 도시는 인접성, 혼잡성, 친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한다.²⁰⁸⁾ 이러한 도시의 특징은 인류의 강점을 가장 극대화하며, 도시적 상황은 대인과의 접촉을 활발하게 하여 혁신을 이끌어내고, 또한 경쟁을 통해 인류의 능력을 끌어내며,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해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공간적으로 단순한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지를 넘어서 현대 사람들의 존재와 삶과 행위가 얽혀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여기서 도시의 개념과 정의를 단순하게 해양도시에 적용해 본다면, 해양都市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가 바다·해양·연안에 인접한 도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양도시의 개념은 보다 복잡한 의미가 있다.

해양도시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에 거주시설이나 공항·항만 등을 건설하여 해양의 공간이용을 극대화하는 계획도시”로 정의하고 있다.²⁰⁹⁾ 기존 연구에서 해양都市는 해항도시 또는 항만도시(sea-port city)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²¹⁰⁾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해항都市는 해안에 위치한 도시

2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검색일: 2023.8.31.)

208) Glaeser(2011), p. 22.

209)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일: 2023.6.1.)

210) 김중화(2019), p. 14.

로 내륙도시와는 반대되고, 항만을 중심으로 교역과 교류가 발달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²¹¹⁾ 기존 해양과 도시를 연계한 연구가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유에는 해양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연구가 항만의 역사적·문화적·기능적 특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항만도시는 전통적으로 물자의 유통으로 인하여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고, 유동인구를 상대하는 서비스나 위락시설이 조성되어 있었다.²¹²⁾ 이러한 이유로 해양도시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항만과 도시를 연계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항만의 기능이 약화되고 항만도시에 관한 개념도 바뀌며 해양도시·연안도시와 같은 용어로 활용되며, 연구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김종화(2019, p. 14)의 연구에서 해양도시는 “해양 및 연안지역에서 경제·산업, 국제교류, 역사문화, 주거생활 등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사람이 사는 친수도시”로 정의되며, 이를 연안공간, 산업공간, 교류공간, 친수공간, 생활공간으로 구분하여 도시와 공간의 연관성을 통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최지연·김종화(2019)의 연구에서는 해양도시에 대해 현재와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신해양도시라는 개념을 차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도시가 해운·조선업, 항만업, 수산업 등 1·2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였고, 해양 생태·환경·역사·문화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을 비판하며, 해양도시를 해양경제의 관점으로 해양의 가치와 발전잠재력을 고려한 도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최지연·김종화(2019)의 연구에서 신해양도시는 “해양수산 지역혁신경제체계의 모델로 해양수산과 연관한 산업·인력·지식·기술·아이디어 등이 집적된 해양경제 기반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해양도시는 연안주변의 활용 및 기능에 따라 해양관광도시, 해양레저도시, 수산도시, 해양생태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기도 한다.²¹³⁾

211) 우양호·김상구·이원일(2018), p. 2.

212) 우양호·김상구·이원일(2018), p. 4.

213) 김종화(2019), p. 1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도시는 ‘해양 및 연안지역에서 해양경제와 연관된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민의 주거와 친수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로 정의될 수 있다.

2. 관광레저도시의 개념

관광도시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자연 환경이나 문화, 역사, 위락시설 등을 통해 관광 기능이 발달한 도시’로 정의된다.²¹⁴⁾ 관광레저도시 개념과 관련한 연구는 학술적 관점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점에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관광레저도시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국제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으며, Juudd와 Faistein(1999)은 「the Tourism city」를 통해 관광레저도시의 발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른 관광레저도시의 유형²¹⁵⁾은 첫째, 관광도시화(tourism urbanization) 유형으로 특정 리조트 등의 개발에 따른 관광도시의 형성이다. 두 번째 유형은 역사문화도시(tourism historic city)로 역사와 문화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표 3-8〉 관광레저도시 유형

유형	특징	사례
관광도시화 (tourism urbanization)	다양한 리조트 개발	라스베이거스, 올랜도
역사문화도시 (tourism historic city)	역사문화자원 중심	로마, 파리, 런던
전환도시 (converted city)	관광 인프라 제공	뉴욕, 볼티모어

자료: 김성진(2005),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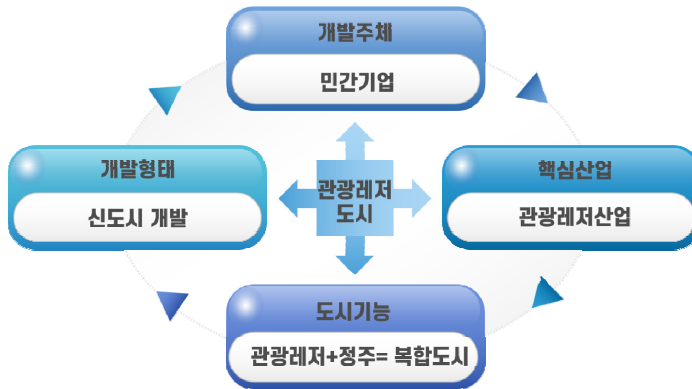
214)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일: 2023.6.2.)

215) 김성진(2005), pp. 9-10 재인용.

도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전환도시(converted city) 유형은 기존 도시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여 관광 기능을 제고하는 도시이다.

한편 정책적 의미의 관광레저도시는 앞서 2장에서 분석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04년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한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 중 하나로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를 의미한다. 특히 기업도시의 관점에서 관광레저도시는 민간주도와 자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레저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로 개발하는 관광·레저·휴양 기능과 정주 기능이 복합된 자족적 관광 신도시’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레저도시의 핵심요소는 개발주체는 민간기업, 개발형태는 신도시 개발, 핵심산업은 관광레저산업, 도시 기능은 관광레저 기능과 정주 기능의 복합이다.

〈그림 3-4〉 기업도시 유형 내 관광레저도시의 핵심요소



자료: 김성진(2005), 요약, p. 3.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및 작성

결과적으로 관광레저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관광단지 개발과는 차별화된 관광레저뿐 아니라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해당 도시의 공간 속에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적인 도시 개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광과 도시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관광 육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거나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광레저도시 정책 역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도시개발의 주요 목적이다.

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과 특성

해양도시와 관광레저도시의 공통점은 해양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의 기능 또는 관광레저의 기능을 반영한 도시의 기능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능은 자족적 도시의 발전과 정주 기능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특히 최근 관광의 트렌드로 관광과 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상관광, 생활관광, 일상여행 등 관광의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보면 기존에는 관광객의 관광과 지역민의 일상이라는 공간이 분리되며 관광단지와 같은 관광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의 관광개발은 일상과 관광이 융복합되면서 관광레저도시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림 3-5〉 관광 공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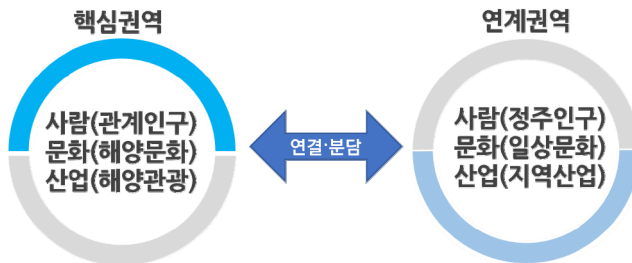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또한 기존 최일선 외(2019)의 연구에서 해양레저관광을 정의함에 있어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관광은 지역주민의 일상과 관광이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더욱 모호한 것을 특징으로 분석한 바 있다.²¹⁶⁾ 따라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 및 연안 공간에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연계된 다양한 기능적 레저관광의 활용과 경험을 중심으로 다중사업이 복합된 성장형 도시이다.

한편 도시의 일반적인 정의는 인구 규모와 밀도, 고용인구 비율 등 물리적·행정적 측면에서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과 부도심을 지칭하며, 본 연구의 대상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도시의 전체 기능 중 도심 인근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해양·레저·관광·문화·산업 기능을 분담하는 해양위성도시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성립 기준 중 일정 수준의 정주민구와 다양한 관계인구가 서로 만나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사회적 측면과, 의미 있는 해양문화 활동과 지역의 특수성·고유성을 계승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문화적 측면, 기존 해양산업과 관광객 유입으로 형성된 관광사업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끄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지향하는 도시는 해양도시로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의 기능을 갖추고 배후도시의 정주·교통·교육 등의 기능과 일상을 연결, 포괄함으로써 지구, 단지, 거점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거주형태와 사회적인 공간 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6〉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공간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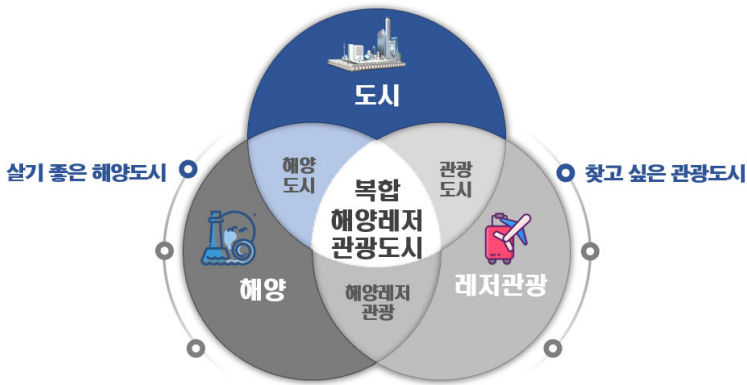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16) 최일선 외(2019), p. 6.

결과적으로 복합해양레저도시는 복합, 해양, 레저, 도시의 합성어로 ‘해양 레저·해양관광·해양휴양·해양문화 기능의 핵심 해양레저관광 권역과 주거, 상업, 교육 등 도시의 자조적 정주 기능의 배후도시가 연결된 복합적인 기능도시’로 ‘살기 좋은 해양도시’와 ‘찾고 싶은 관광도시’의 결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림 3-7〉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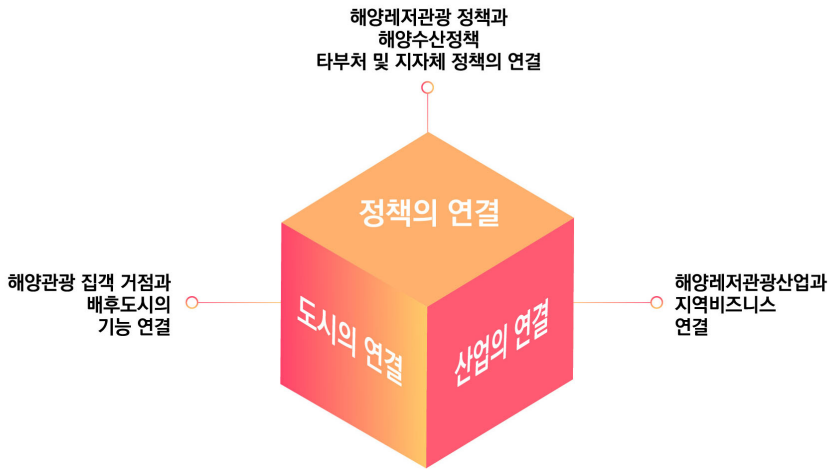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복합’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의 통합·자원 및 공간의 연결·관광활동의 복합·산업 가치사슬의 연결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의 분산 및 단위사업의 개별적 개발, 각 부처의 분리된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해양관광 관련 정책인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 해양치유시설·해양치유지구, 마리나항만, 어촌뉴딜, 크루즈항만, 항만재생사업 등과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해양공간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상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편익시설, 기반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해양관광의 집객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 되는 권역과 배후도시의 정주·상업·교육·교통연계 기능을 연결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해양산업과 레저관광산업, 해양관광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신산업의 가치사슬을 연계한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3-8〉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연결성



자료: 저자 작성

이를 종합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을 보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해양레저관광수요 충족,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도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도시로 첫째,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시설,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를 잘 구비하고 있는 관광도시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핵심은 누구나 관광하고 싶은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즉 해양레저관광의 활동과 체험, 산업이 집적화되어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원스톱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경영과 지원체제를 통하여 기업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기업친화 도시로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목표가 실현되어야 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기반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의 개발이 중시되어야 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관광사업의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자생적인 조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을 실현하는 지방도시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핵심정책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이다. 윤석열 정부 정책의 핵심도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²¹⁷⁾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역시 해양레저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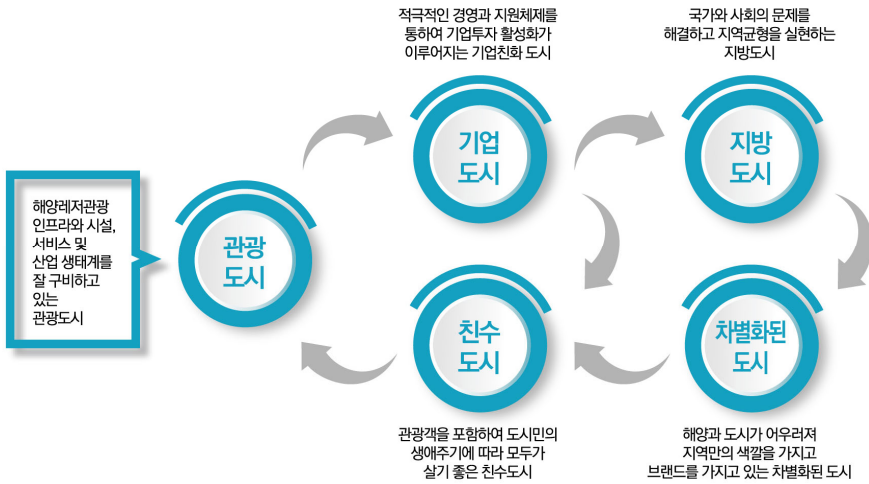
넷째, 해양과 도시가 어우러져 지역만의 색깔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도시이다. 현재의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로컬의 가치와 문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도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이러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환경·역사·문화적 가치가 반영되어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광객을 포함하여 어린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도시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모두가 살기 좋은 친수도시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광의의 개념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누구나 살기 좋은 해양도시 만들기가 중요하다. 해양·연안지역의 도시는 젊은층의 인구유출과 도시인구의

217) KTV 국민방송(2023.1.6.)(검색일: 2023.9.11.)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적 역할은 관광을 통한 친수도시 조성을 통하여 도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기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3-9〉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 및 개발모형 구축

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대한 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개념 및 특성 도출, 주요 해양도시의 여건 심층·진단 분석을 통하여 최종 도출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추진요소는 추진주체와 추진시설·산업으로 구분한다.

먼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추진시설·산업은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산업, 해양문화·예술 시설·산업, 해양도시의 기능이 부여된 특화시설을 통하여 연안·해양도시와 해양레저관광의 기능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이다.

〈그림 3-10〉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연관 산업·시설 추진요소



자료: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마리나항만, 크루즈항만, 해양레저시설 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해양문화·예술 시설은 해양문화 전시관,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리움, 해양박물관 등의 시설과 관련한 전시장, 예술공연장이 구축되어 해양문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화시설로는 주거 및 생활 기반 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있다.

〈그림 3-1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연관 시설·산업 세부 추진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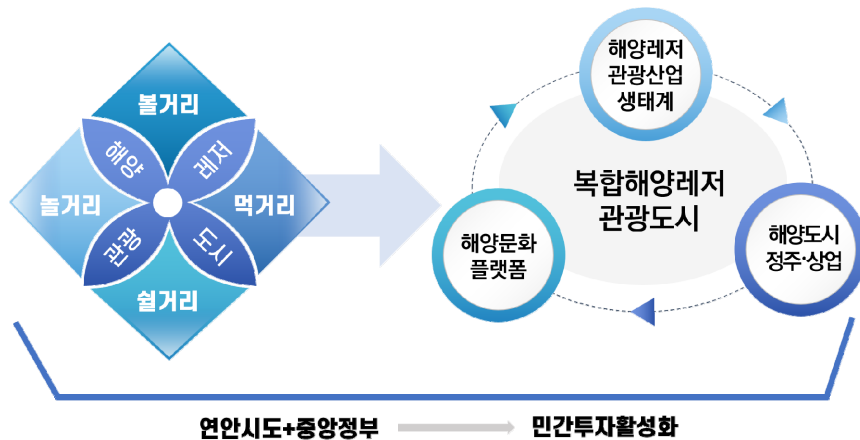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을 지원하되 주요 추진주체로서 개별 기업 등의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즉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민간에서는 이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3-1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



자료: 저자 작성

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 구축

앞서 주요 해양도시의 경제, 해양레저관광 공급평가, 수요평가, 주요 거점시설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발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양레저관광도시의 군집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특성과 케이스 분포 등을 파악하여 2개로 분류된 군집이 최적임을 판단하였다.

군집분석에 앞서 각각의 요인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Z점수 산출을 통한 표준 점수화를 실시하였고, 군집분석 결과 3개 요인의 F값이 <.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1은 연안경제, 해양레저관광 수요와 공급 등 모든 요인에서 군집2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개의 지역이 해당 군집에 속한다. 군집2는 나머지 18개 지역이 속하며 상대적으로 요인값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1에 속하는 도시는 연안지역 중 광역시권인 부산과 인천으로 나타났고, 군집2는 그 외 18개 도시이다.

〈표 3-9〉 주요 해양레저관광도시 군집분석 결과

요인	군집1 (n=2)	군집2 (n=18)	F	유의확률
연안경제	.80	-.83	5.844	.026
해양레저관광 수요	3.05	-.69	76.748	.001
해양레저관광 공급	1.88	-.69	25.326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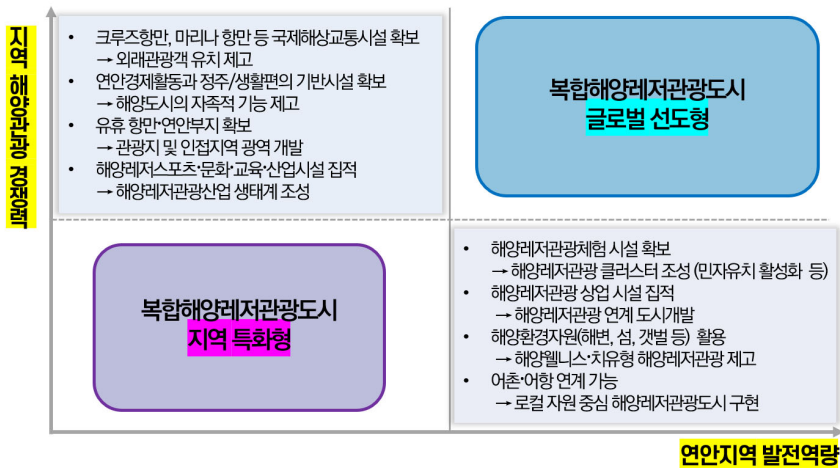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이를 종합해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발모형은 연안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연안지역의 역량과 해양레저관광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해양레저관광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선도형과 지역 특화형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도시의 규모와 기존 해양레저관광 여건을 모두 같은 조건에서 평가하고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글로벌 선도형은 외래관광객 유치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 크루즈항만, 마리나항만,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국제해상교통시설과 공항, KTX 등의 광역교통시설이 확보된 곳을 우선 개발 추진한다. 또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서 해양도시의 정주·상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주·생활

편의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해양도시의 자족적 기능 제고를 추진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처의 기존 정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희항만 또는 연안부지 확보를 통한 관광지 및 인접지역 광역 개발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문화·교육·산업시설을 집적하여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1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지역 특화형은 중·소규모의 해양도시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을 확보하여 해양레저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과 연계하여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상업시설의 집적을 추진한다. 한편 중·소규모의 연안도시가 보유한 해변, 섬, 갯벌 등 해양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형 해양레저관광을 제고하고 어촌·어항을 연계한 로컬 자원 중심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04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방안

제1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방향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은 중앙과 지역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새로운 ‘해양레저관광과 해양도시의 기능이 결합된 자족적 도시’를 개발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살기 좋은 해양도시, 찾고 싶은 레저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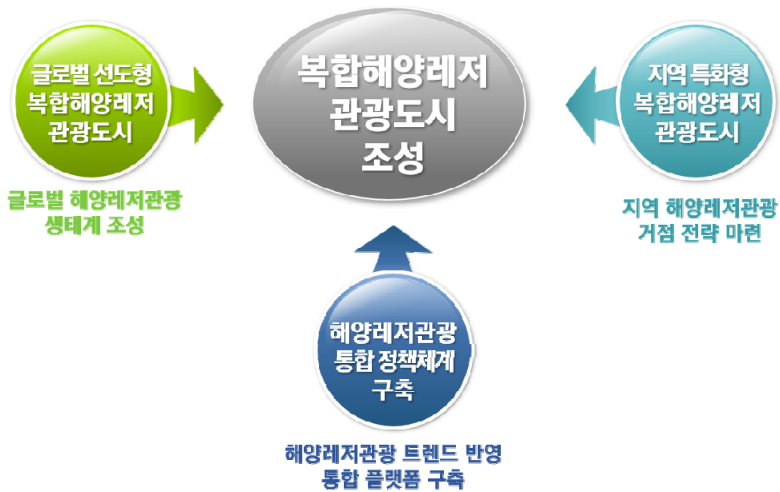
첫째, 모두가 살기 좋은 해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와 지역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사람 중심의 모두가 살고 싶은 포용적 해양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도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가 핵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누구나 찾고 싶은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적 누구나 자유롭게 찾고 싶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 관점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매력성을 고려한 관광 매력물과 산업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등 적극적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레저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해양레저관광 통합 정책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의 단위사업 또는 점 단위의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변화하는 트렌드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한 핵심 정책을 모아 해양도시의 관점에서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앞서 제시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모형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화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더 이상 우리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해양레저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내수시장 중심의 정책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시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치 및 투자,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에 특화된 매력성을 기반으로 관광객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시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다음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4-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방안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과제

1. 해양레저관광 통합 정책체계 구축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며, 해양레저관광 유형별로 개별법에 의거하여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수부가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 해서 대표적으로 마리나항만은 「마리나항만법」에 의거하여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가능하고, 해양치유센터 구축 및 지원은 「해양치유자원법」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 공모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4-3〉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률 현황

기본법/특별법	해수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문체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부	동·서·남·북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해양레저관광 관련 개별법	해수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산업법)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어촌특화발전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도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현재의 해양레저관광은 단위사업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지원 사업으로는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관광의 통합적인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해양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and 산업별·콘텐츠별 육성방안 마련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연결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관광의 장소적·지역적 관점을 강화한 지역특화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한 유형별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에 모아 원스톱 체류형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목표로 해양도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해양레저관광 수요와 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정책은 우리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으나, 해양레저관광의 통합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시장 육성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지역민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표 4-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구분	AS-IS	TO-BE
해양레저관광 정책방향	- 해양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 산업별·콘텐츠별 육성방안 마련	- 해양레저관광의 지속성과 다양성 그리고 도시의 연결성을 강조한 방향 설정 - 해양관광의 장소적·지역적 관점을 강화한 육성방안 마련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마리나, 크루즈, 거점레저센터 등 해양관광 기반 단위사업 기반시설 확충	원스톱 체류형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체험, 활동, 관광, 숙박, 상업시설 집적화 필요
해양레저관광 주요 대상	우리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	우리 국민을 포함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시장 목표

자료: 저자 작성

일례로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정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서비스, 인프라, 콘텐츠, 마케팅 등 문체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를 정비하고 육성하고 있다. 거점관광도시 구축사업으로 국제관광허브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로는 관광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방한 관광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적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역시 해양수산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성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강점인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마리나항만 관련 시설, 해양치유시설, 해양레저체험활동시설, 해상길, 해상전망대 등 해양레저관광시설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거점, 낚시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부의 타 사업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문체부, 국토부와 협력하여 연안지역의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7년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진흥 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문체부의 관광거점도시 정책 역시 2019년 4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방한 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정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역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되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핵심 안건으로서 계속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

우리나라 전체 관광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는 해양레저 관광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연안도시들의 발전을 접목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먼저 내수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관련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2023년 대비 78% 증가한 178억 원으로 확대해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²¹⁸⁾ 특히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컬처와 융합한 ‘K-관광’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스포츠 관광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²¹⁹⁾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함께 해양레저 관광 분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과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해양도시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²²⁰⁾이 필요하다.

프랑스 라그랑모뜨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정책사업으로 관련 법 제정과 추진본부 설립 등을 기반으로 주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뿐만 아니라 야간관광 등 다양한 레저관광 수요를 충족하면서 세계적인 해양휴양 도시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해양도시들에서도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련 법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18) NEWSIS(2023.8.31)(검색일: 2023.10.5.)

219) 위 기사.

220) 최일선 외(2019). p. 3.

추가로 ‘해양 안전 여행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생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에 위한 업계 표준을 제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세이프 트래블(Safe Travel)’ 인증제라는 안심관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²¹⁾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연안도시들에서는 보건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안심관광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 관련 제도 지원과 탄력적인 개발 방식 운용 등 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골드코스트는 4성급 이상의 호텔과 리조트, 마리나, 크루즈 등의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고급 해양레저 공간으로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도시 브랜드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해양도시들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주도의 개발방식과 민간투자자 주도의 일괄 개발방식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34개 시설 중 32개 시설이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더불어 일부 부지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 유연한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호텔 및 리조트 브랜드 등을 유치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글로벌 융복합 해양관광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을 활용하여 체류형 섬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유연한 개발방식, 경제자유구역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부동산 투자이민제 활용 등의 탄력적인 제도 운용과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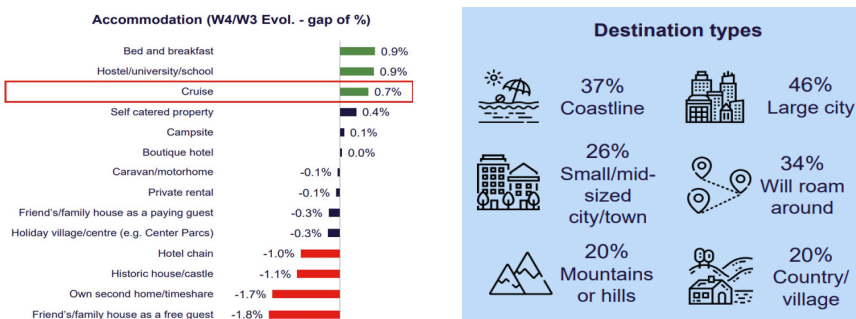
221) Visit Britain website(검색일: 2023.10.5.) 참고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제 크루즈로 입국하는 단체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관광청에서 1만 1,057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한 결과, 숙박 유형 중 크루즈가 호텔보다 더 높은 0.7%로 나타날 정도²²²⁾로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수 있다(그림 4-4) 참조).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관광목적지는 1위가 대도시(46%), 2위가 연안(37%)으로 나타났다. 국제 크루즈 관련 정책 지원을 통해 국제 크루즈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연안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들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크루즈관광은 일상 회복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3월 한국관광공사와 12개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씨트

〈그림 4-4〉 영국관광청 인바운드 관광객의 조사 결과



자료: VisitBritain(2022), pp. 80-97 참고 저자 재작성

222) VisitBritain(2022), p. 80 데이터 트렌드 참고

레이드 크루즈 박람회(Seatrade Cruise Global 2023)에 참가하여 홍보 활동을 하는 등²²³⁾ 크루즈관광 재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국제 크루즈를 통한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노선 확대, 선석 배정 관련 소통지원을 통한 기항지 추가, 모객을 위한 마케팅 보조금 및 홍보 지원 등의 정책 지원 등 국제 크루즈를 통한 단체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필요로 있다.

다양한 국제 크루즈 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외국의 국제 크루즈선박이 국내 연안도시에 기항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디즈니 크루즈(Disney Cruise Line)는 유럽, 북미, 남미, 호주까지 순항하는 문화 콘텐츠와 접목한 크루즈 상품이다.²²⁴⁾ 디즈니 뮤지컬,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클럽, 다이닝룸 등 다른 크루즈 상품과는 차별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5〉 참조). 현재는 우리나라 연안도시에 기항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 인센티브 제공, 기항지와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러한 국제 크루즈선박들을 유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국내에 적용하여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뷰티, 음식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K-컬처와 접목한 국제 크루즈상품 개발을 위해 면세 확대와 마케팅 보조금·홍보 지원 등의 정책 지원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5〉 디즈니 크루즈의 콘텐츠



자료: Disney Cruise website(검색일: 2023.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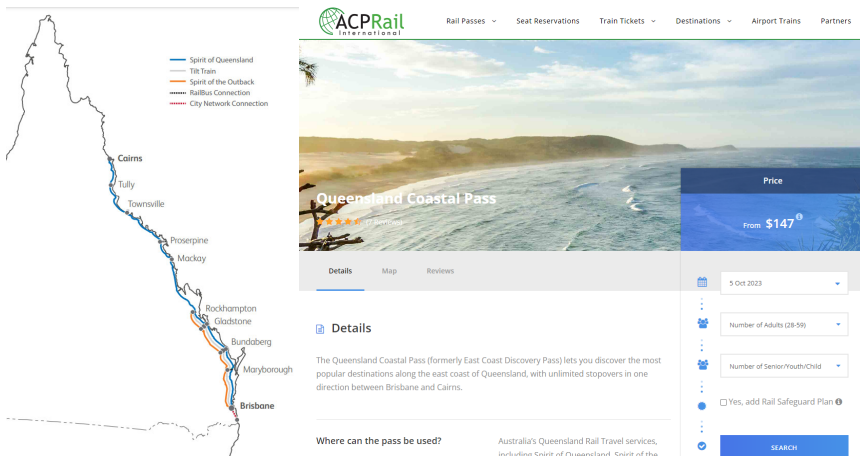
223) 김동일(2023), pp. 68-71.

224) Disney Cruise website(검색일: 2023.10.5.)

더불어 국제크루즈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항지와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연안도시들의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강화, 인근 도시로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 확충, 이와 관련한 새로운 상품 개발 등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호주 퀸즐랜드레일트래블은 퀸즐랜드 동부 해안의 브리즈번과 케언즈 구간을 편도로 한 달간 이용하면서 무제한 중간 기착이 가능하고 일부 구간은 무료 레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 해안패스(Queensland Coastal Pass)’라는 철도상품을 운용 중이다. 이처럼 크루즈 기항지와 연안도시들을 연계하는 버스 또는 철도상품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이동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연안도시 해양레저 관광주간’을 운영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프로모션 및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연안도시 에 특화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발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관광주간 에 해안패스 할인이나 여행바우처 제공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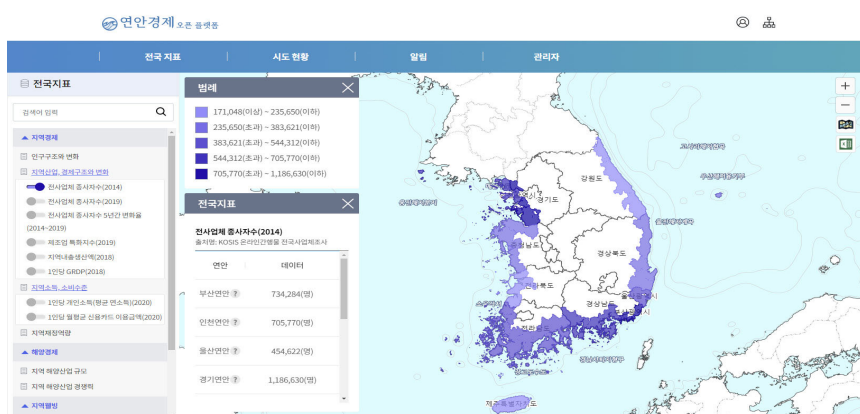
〈그림 4-6〉 퀸즐랜드 해안패스 구간



자료: Queensland Rail Travel(2022), p. 1; APC Rail International(검색일: 2023.10.5.)

넷째, 정책지원을 통한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 및 이용 실태조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레저관광은 자연과 도시를 모두 즐길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선호되는 여행지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연안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기적인 수요 및 이용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도별 외래관광객 현황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영국 관광청에서도 인바운드 관광 규모와 가치에 대해 매년 말에 연간 통계치와 예측치를 발표하고 있다.²²⁵⁾ 해양수산부에서도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유치 전략에 기초가 되는 해양레저관광객에 대한 수요와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책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양·연안에 특화된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연안경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그 안에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수요와 이용 실태 모니터링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연안경제 오픈 플랫폼 예시



자료: 저자 작성

225) Visit Britain Website(검색일: 2023.10.5.)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된 여행 정보와 예약·결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정비 또한 필요하다. 최근 들어 수도권과 제주도 외에 다른 연안지역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적인 정보체계 구축이나 해양레저스포츠 상품의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데이터 기준, 강원도 양양의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액은 2018년 약 5.5억 원에서 2022년 약 16억 원으로, 전남 여수시는 2018년 24억 원에서 2022년 32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²²⁶⁾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정보는 수도권이나 제주도 등 일부 연안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해양레저스포츠 상품 또한 글로벌적인 수요를 충족할 만큼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SNS 홍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에 맞춘 정보 및 예약결제 시스템 정비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과 프로모션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표 4-2〉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

구분	AS-IS	TO-BE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마련	• 내수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해양레저관광 정책	•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과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기반 조성 - 관련 법 제정 및 지원체계 마련 - 해양레저 안심관광 제도 운용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기반 조성	• 민간투자 유치와 개발 방식에 있어 경직된 제도 운용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 및 탄력적 개발방식 운용 등 기반 조성 - 탄력적 제도 운용 등을 통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투자환경 조성

226)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검색일: 2023.8.30.)

구분	AS-IS	TO-BE
국제크루즈 관련 정책 지원	• 선용품 및 유류비 등만 면세, 기항지 연계 콘텐츠 약화로 국내 기항 매력도 저조	• 국제크루즈 이용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력도 향상 방안 마련 - 국내 기항 국제크루즈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면세 확대, 홍보 지원 등 - 기항지 연계 지역의 콘텐츠 강화, 이동성 향상, 관광주간 운영 등에 정책 지원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정기적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무	•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정기적 수요 및 이용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여행 정보와 예약·결제 시스템 재정비 - 재방문 유도를 위한 바우처 사업 지원

주: 저자 작성

3.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 마련

지역 여행지에서 새로운 일상과 경험을 추구하는 ‘로컬관광’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글로벌 관광 트렌드 중 하나이다.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역관광 콘텐츠가 만나 지역의 고유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합 로컬 체험상품들이 떠오르고 있다.²²⁷⁾ 이에 국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관광두레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안지역 공동체의 생활방식과 문화유산을 탐구하는 해양문화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2022년 이후 글로벌 관광 트렌드 중 하나로 해양관광을 선정하며, 해양문화유산 탐방, 원주민 전통지식 체험 프로그램, 전통푸드 투어 등의 로컬관광 상품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²²⁸⁾

227) 조선일보(2023.6.28.)<검색일: 2023.9.9.)

228)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2023), p. 3.

해양수산부는 거점 마rina 조성사업, 해양치유센터 설립,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정 등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특히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 전국 연안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거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3년도 현재 7개 해양레저관광거점 지정, 30여 개의 마rina 운영, 4개의 해양치유 거점지역 선정을 하였다.

〈그림 4-8〉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현황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계획사업 추진 시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공공이 우선적으로 마중물을 붓고 이를 촉매제로 하여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지역거점 조성사업 방식이다.²²⁹⁾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거점사업도 기존에 조성된 7개 연안거점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거점시설과 연계하여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연안 전체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가장 전통적인 지역 개발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정된 거점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양레저체험센터 설립, 바닷길 조성사업, 캠핑장 조성사업 등 인프라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229) 박정은(2022), p. 20.

있었다. 애초에 해양수산부가 의도한 권역별 특성화 전략이 무색하게 7개 거점은 연안의 환경적·문화적 특색과 지역의 브랜드 전략이 빠진 하드웨어 조성사업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근 연안지역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최근 보령 원산도가 해양레저거점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인공서핑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해양레저센터 건립 계획을 확정하자, 태안군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차질이 생겼으며 난색을 보였다²³⁰⁾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는 도비와 군비 157억 원 규모로 설립되는 사계절 서핑센터로 원산도의 사업계획과 유사한 사업이다. 지역에서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는 유사한 사업들이 경쟁하듯이 반복되면서 해양레저거점지역이 인근지역의 경쟁력을 흡수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해양레저거점 도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 차별화된 해양레저거점 전략을 통해 레저관광 성과를 주변 연안지역까지 확산하고 인근지역이 동반 발전하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레저거점지역을 공간적 측면에서 7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인프라, 기반시설, 사업내용 측면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과 브랜드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양레저관광 활동의 유형과 콘셉트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호주나 영국 사례를 보면 권역과 주 단위별로 특화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골드코스트는 해양레저관광과 연관된 보트산업, 서핑산업, MICE 산업 등 산업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들이 도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화, 광고, 건축, 디자인 등 창조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여기서 창출되는 문화적 자산과 콘텐츠를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영국 혈도

230) 태안신문(2023.8.10.)(검색일: 2023.9.9.)

〈그림 4-9〉 영국 헐의 예술과 해양문화를 접목한 해양도시개발 사례



자료: Hull live website(검색일: 2023.9.30.)

예술과 해양문화 등을 주제로 도시 전역에서 축제·이벤트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중심의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하였다.

위 사례의 공통점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지역 브랜드 개발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 문화, 예술, 관광자원 등을 망라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주변 지역의 기능까지 고려한 종합적·포괄적 지역거점 개발이 핵심이다. 로컬 문화, 로컬 관광에 대한 해외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역별 해양 레저거점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의 고유한 문화자산 기반 앵커 사업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확대 중심의 유치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거점 사업 조성과 마리나, 해양치유센터 등의 사업들은 공공의 직접적 재정지원으로 운영된다. 아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점 개발에 대해 공공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민간주체를 참여시켜 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 골드코스트시는 해양관광레저산업을 포함하여 이전 및 확장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구매, 신축, 설치비용 등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 달러의 현금 환급을 제공하며, 임대비용, 연구개발비 등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10%를 환급,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당 최대 1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²³¹⁾ 이처럼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시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산업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되면 관광서비스, 리테일, 식음료까지 포함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정책 제공과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프로세스 간소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은 앞서 제시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핵심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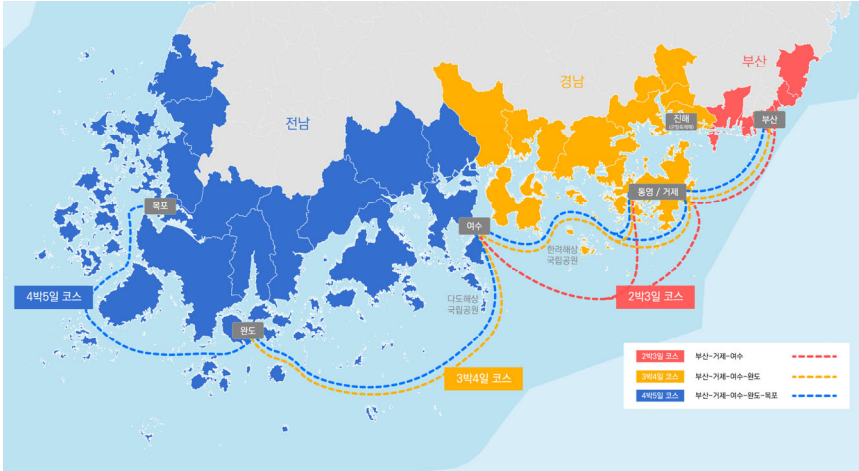
셋째,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 거점이 생겨나고 그 거점과 거점 간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우리나라 연안 전체로 해양레저관광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안크루즈를 활용한 거점도시 벨트 조성이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2007년 부산-진해-완도를 운항하는 연안크루즈 상품이 있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²³²⁾ 반면 국내 항만은 총 60개로 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가 지정²³³⁾되어 있으며, 연안도시에 위치한 큰 규모의 항만을 중심으로 시설확보 및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나 부산, 여수, 목포 등 연안크루즈가 접안 가능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연안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축제와 투어

231) City of Goldcoast website(검색일: 2023.9.11.)

2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3.8.28.), p. 2.

233) 해양수산부(2020),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 p. 1.

〈그림 4-10〉 남해안 연안크루즈 연계 방안



자료: 저자 작성

프로그램을 연계한 테마형 연안크루즈 상품을 운영한다면 해상교통 인프라를 통한 해양레저관광거점의 연결이 가능하다.

거점 간 교류강화 이전에 거점지역의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도 필요하다. 전국 연안지역 해양레저거점의 주요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거점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거점지역 내 도시 간, 거점지역과 타 지자체 간, 그리고 세계 해양레저도시 간 교류 강화로 거점도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거점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적인 협력방안 모색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주체의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양수산부는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남해안 시도별 담당 국장과 해수부 국장이 참여하는 기획단과 실무진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다. 본 기획단과 실무단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국가 방향을 전달하고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현안과제 발굴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연안 전체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성과 기반시설, 인프라, 투자개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해양레저거점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교통 인프라와 관광단지 조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는 이미 알려져 있는 관광도시 성장의 원칙이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산업을 육성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해 우리나라 연안 전체의 해양레저관광도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리티와의 연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 구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특성에 부합한 비전 마련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표 4-3〉 지역 해양레저거점 전략 마련을 위한 추진방향

구분	AS-IS	TO-BE
지역별 차별화된 해양레저거점 브랜딩 강화	• 실내외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안전 교육센터 등 유사한 시설 및 인프라 확충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해양레저거점 브랜드 마련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 문화, 예술, 관광자원 등을 망라하고 도시의 고유한 문화자산 기반 앵커 사업과 연계
시장확대 중심의 유치 전략 마련	•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거점 사업 조성과 마리나, 해양치유센터 등의 사업들은 공공의 직접적 재정지원으로 운영	• 지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 시장확대 중심 유치 전략 마련 - 지역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정책 제공과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프로세스 간소화 요구
인근지역과 성과확산 연계망 구축	•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여 우리나라 연안 전체로 해양레저관광 성과 확산에 한계	•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역 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연안크루즈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연결 강화 - 거점지역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자료: 저자 작성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및 요약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관광 분야 도시 브랜드 사업을 강조하였다. 관광시장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더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정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도시들은 각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세계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도시적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과 도시의 체계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 정립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의 관점에서 관광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의 정책과 해외 정책으로 유럽

문화수도와 창의도시 사업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도시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통하여 지역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이 핵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실패 요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관광도시와 관련한 사례는 민간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고, 해외 사례는 지역불균형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우선 개발하고, 추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 및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양도시와 레저관광도시의 개념을 고찰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해양레저·해양관광·해양휴양·해양문화 기능의 핵심 해양레저관광 권역과 주거, 상업, 교육 등 도시의 자조적 정주기능의 배후도시가 연결된 복합적인 기능도시’로 ‘살기 좋은 해양도시’와 ‘찾고 싶은 관광도시’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시와의 연결성을 정책, 도시, 산업의 연결성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도시, 기업도시, 지방도시, 친수도시, 차별화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해양도시의 여건 및 해양레저관광의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추진요소 및 개발모형을 구축하였다. 최종 도출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요소는 추진주체와 추진시설,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都市는 궁극적으로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발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해양도시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글로벌 선도형 모델과 지역특화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본방향은 중앙과 지역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새로운 해양레저관광과 해양도시의 기능이 결합된 자조적 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해양도시, 찾고 싶은 레저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과제1은 해양레저관광 통합 정책체계 구축으로 기존 해양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의 정책방향을 해양레저관광의 지속성과 다양성 그리고 도시의 연결성을 강조한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원스톱 체류형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체험, 활동, 관광, 숙박, 상업 시설 집적화와 우리 국민을 포함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시장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추진과제2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내수시장에 맞추어져 있는 지금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외국인 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크루즈관광에 있어서 기반시설 확충 및 노선 확대, 마케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발굴, 외국인 대상 정기적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제 해양레저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추진과제3은 지역 해양레저관광거점 전략 마련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지역 브랜드 구축과 문화자산 기반 앵커 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장 확대 중심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간 주체의 참여와 인센티브 정책 및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거점도시 벨트조성 사업, 연안크루즈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진과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요약

구분	내용
해양레저관광 정책체계 구축	• 원스톱 체류형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정책방안 마련 - 개별적·분절적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의 집적화 방안 마련 •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통합플랫폼 구축 - 장소적·지역적 관점을 강화한 지역특화 육성방안 마련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요 어젠다 설정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구축 • 해양 안전여행 인증제 도입 - 해양도시 안심관광 제도 운용 •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브랜드 구축 - 유연한 개발방식,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부동산 투자이민제 활용 등 탄력적 제도 운용 •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확충 및 노선 확대, 선석배정 관련 소통지원, 인바운드 관광객 모객 마케팅 보조금 및 홍보 지원 - 연안도시 해양레저 관광주간 운영 •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외국인 해양레저관광객 유치전략 마련 •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전략 마련	• 연안 환경·문화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전략 마련 - 로컬, 문화 중심의 지역발전 모델 마련 •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장확대 중심 유치 전략 마련 - 민간투자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역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연안크루즈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연결 강화 - 거점지역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방안 마련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방안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핵심은 민간투자 활성화이다. 해양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자생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되, 민간이 주도해서 해양도시의 브랜드를 정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은 민간투자자에 대한 혜택이나 특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현재 법률과 현재 발의 중인 「해양관광진흥법(안)」법령을 검토하였다. 먼저 이들 4개 법안을 분석해 보면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물 등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상위 기본법으로 관련한 모든 추진 정책에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며, 해양관광과 관련해서는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에 의거하여 현재 해중경관지구, 어촌관광, 레저스포츠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 분야를 망라하는 기본법의 성격상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국토부 소관의 법률이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제3장의2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와 관련해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 5-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비교·분석(1)

법률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145호, 2022. 12. 27., 일부개정](해수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국토부)
목적	제1조(목적)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투자 특례 사항	민간투자 특례사항은 없으며, 해양관광진흥과 관련해서는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중경관지구, 어촌관광, 레저스포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제3장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④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및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145호, 2022. 12. 27., 일부개정](해수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부)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자료: 각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앞서 사례분석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법률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동법 제3장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의거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등 민간기업 투자에 관한 다양한 특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안)」은 해양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5조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용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례사항으로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해양관광 활성화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내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동일하다.

〈표 5-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비교·분석(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부)	해양관광진흥법(안) 제2116808호(2022. 8. 9.). 제398회 국회(임시회)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목적	제1조(목적)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해양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 투자 특례 사항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제15조(해양관광 활성화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용의 특례) ①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부)	해양관광진흥법(안) 제2116808호(2022. 8. 9.), 제398회 국회(임시회)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특례), 2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3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등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적용되는 시설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정한다. ② 해양관광 활성화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해양관광 활성화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6.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7호, 2023. 4. 18., 일부개정] (국토부)	해양관광진흥법(안) 제2116808호(2022. 8. 9.). 제398회 국회(임시회)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7.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 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 에 해당하는 시설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④ 해양관광 활성화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자료: 각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결과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법을 제안한다. 첫째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개발 특별법(안)」이다. 실질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법·제도적 근거와 지원을 가지고 민간투자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국토부의 「기업도시특별법」 형태의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에는 도시개발 특례와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해양관광진흥법(안)」의 재추진이다. 현재 「해양관광진흥법(안)」은 2022년 8월에 발의되었으나, 계속해서 입법화가 지연 중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 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안을 재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민간투자의 핵심 특례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부터 개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 승인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시설 및 경영지원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련하여 다양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

2. 거버넌스 구축방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은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족적 도시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거버넌스 구축은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전담기관, 시민단체, 관광객 등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도시조성의 처음부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그동안 관이 주도한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 ‘균형발전’, ‘지방시대’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설정하여 도시개발에서의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상호 협력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이행이 필요하다.

〈그림 5-1〉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버넌스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수부가 단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위의 분석에서와 같이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체부, 국토부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양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역시 사업의 계획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및 보전의 영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NGO의 역할도 필요하며,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형성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사업의 계획부터 개발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담기관은 사업의 기획발굴, 지역 내 합의와 조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관광거점도시별 계획수립을 조정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는 문체부의 관광거점도시 관련 사업의 주요 역할로는 통합 사업관리 체계 모델 개발 및 도시별 사업 모니터링 분석,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도시별 성과 중간점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도시별 전문가 성과 검토 및 컨설팅 지원, 도시별 중간 성과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²³⁴⁾

23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9.1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해양관광정책 중에서도 해양도시에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과 성과관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역할 정립과 협력·소통이 필요하다.

제3절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해양레저관광도시에 관한 명확한 정책적·학술적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구를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목표와 기능 및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한 것에 연구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서 국내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평가·진단하였고, 그간 추진되어온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정책, 문체부의 관광정책, 국토부의 관광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의 선행 연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핵심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법 개정에 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관한 새로운 개념모형 구축을 위하여 해양도시, 관광레저도시,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정의, 구성요소, 역할, 유형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모형 구축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점 단위 단지 개발 차원의 해양레저관광정책을 확대하여 도시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기능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해양레저관광수요 충족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원적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23년 9월 기준, 해양수산부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 구상용역을 수행 중이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우리나라 전체 연안도시의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에 대해 수요, 공급, 정책 등 다방면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해양도시를 선정하고 발전여건을 분석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안 전체의 도시별 심층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 사회, 문화, 여가, 관광경쟁력 분석을 고도화하고 정밀화하여 연안·해양의 공간분석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지원사업, 예산 등 이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에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관계부처합동(2019),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국토교통부(2020),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권태일·김영준(2020),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관광, 관광거점도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트렌드검색포스트, 20, pp. 1-8.

김동일(2023), 한국, 치열한 크루즈 유치 전쟁에 뛰어들다, 한국관광정책, 92, pp. 68-71.

김부권·이연정·원두환(2020), 관광정책의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관광도시
사업과 관광거점도시사업을 중심으로, 觀光研究, 35(45), pp. 51-72.

김성진(2005), 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예성(2018), 런던·마르세유 출장기: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국회입법조사처보, 38,
pp. 34-38.

김종화(2019), 충남 新해양도시 개념 및 육성방안, 충남연구원.

류효종(2007), 호주의 보트산업과 주요 도시의 해양산업 인프라 개발 사례: 시드니
달링하버 재개발·골드코스트 보트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자치단체국제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_____(2022),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_____(2022), 「23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안내서.

-
- 박경옥(2021), 오시리아(OSIRIA), 세계적 관광단지 되려면, BDI 정책포커스, 399, pp. 1-16.
- 박세훈·김동현·노수경(202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모니터링 지표 개발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박은실(2008), 창조도시, 문화가 도시를 살린다, 국토연구원, 322, pp. 45-55.
- 박정은(2022), 지역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 제도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488, pp. 20-28.
- 박종달(2018), 문화도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의, 건축공간연구원.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2019.12.), SOLASEADO IDENTITY: 솔라시도 가이드라인, (내부자료).
- 소국섭(2010), 해양관광레저도시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가상시장가치 평가법(CVM)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12(1), pp. 93-103.
- 오동훈·임경수·소진광·김남조(2008), 도시마케팅 관점에서 본 해외 관광레저도시 사례 연구, 국토계획, 43(1), pp. 207-223.
- 오세경·이광국(200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 아시아 연구, 8(2), pp. 139-164.
- 우석봉(2009), 부산의 새 블루오션 '해양레저산업' 키워라, BDI 정책포커스, 37, pp. 1-8.
- 우양호·김상구·이원일(2018), 지역협력과 공생을 향한 해항도시 네트워크: 아시아와 유럽의 성공모델 비교, 지방정부연구, 21(4), pp. 1-30.
- 윤성원(2019), 문화이벤트가 유럽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럽문화수도 Valletta 2018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10(2), pp. 117-148.
- 이상민·우서련·박수지·이원석(2022),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연구-A'WOT기법을 활용하여-, 호텔리조트연구, 21(5), pp. 163-179.
- 이순자·장은교(2008), 유럽 '문화수도(Capital of Culture)' 추진전략의 성과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173, pp. 1-8.
- 장정인·김주현·정수빈·김태한·김기수·박동욱·엄권오(2022), 2022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8~2019년 산업연관표 기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전라남도(2014), 100년을 그린 10년의 발자취: 전남도정 10년사(2004.6.~ 2014.6.).
- 정광민(2020), 지역관광도시 육성 정책의 전환, 관광거점도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 정영진(2008), 유럽문화수도의 선정과 효과, 최신외국법제정보, 3, pp. 43-49.
- 조광호·박만식·이선영(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진미윤(2007),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개발 특징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국토 연구, 55, pp. 179-202.
- 최일선·홍장원·이정아·장정인(2019),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일선·이정아·홍장원·최지연(2020),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 최일선·이슬기·김예림·황재희(2023), 빅데이터 기반 지역 해양관광 수요진단 및 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일선·이슬기·김예림(2023), 2022년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 58조원, 해양관광 시장 규모 64.5%로 37조 4,400억원 추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
- 최지연·김종화(2019),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관광 데이터랩(2022), 영국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 한국 관광 데이터랩 런던 지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 Blue Economy.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3.8.28.),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전문가 자문 (내부자료).
- 해양수산부(2020),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
- _____ (2022),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반구축.
- 홍강훈(2008), 유럽문화수도, 최신외국법제정보, 5, pp. 25-33.
- 황상연·신기동(2010), 경기국제보트쇼가 지역상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연구, 2010(5), pp. 1-126.
- 황재희·최일선·이슬기·김예림·최지연(2022),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개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Glaeser, Edward.(2011), 도시의 승리, 이진원 역, 해냄출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한국 개발연구원.

국외 문헌

- Ayşe Banu Bıçakçı (2012), Branding the city through culture: Istanbul,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10, *Journal of Human Sciences*, 9(1), pp. 993-1006.
- Bajracharya, B. et al.(2015), Planning for the Gold Coast: process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Gold Coast Transformed: From Wilderness to Urban Ecosystem*, pp. 159-170.
- Can-Seng Ooi, Lars Håkanson & Laura LaCava(2014), Poetics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ject,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8, pp. 420-427.
- City of Gold Coast(2014) Gold Coast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Plan 2014-2020.
- Destination Gold Coast(2022.6.) Action Plan for Tourism Recovery.
- Galland, D., & Hansen, C. J.(2012), The roles of planning in waterfront redevelopment: From plan-led and market-driven styles to hybrid planning?,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27(2), pp. 203-225.
- Garcia, P. R.(2008), The role of the port authority and the municipality in port transformation: Barcelona, San Francisco and Lisbon, *Planning Perspectives*, 23(1), pp. 49-79.
- Jauhiainen, J. S.(1995), Waterfront redevelopment and urban policy: The case of Barcelona, Cardiff and Genoa, *European Planning Studies*, 3(1), pp. 3-23.
- Lasse Steiner, Bruno Frey & Simone Hotz(2013),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and Life Satisfaction, *ECON-Working Papers*, 117, pp. 1-47.
- Pedro Gomes & Alejandro Librero-Cano(2018), Evaluating three decades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gramme: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2, pp. 57-73.
- Prideaux, B.(2004), The resort development spectrum: The case of the Gold Coast, Australia, *Tourism Geographies*, 6(1), pp. 26-58.
- Queensland Rail Travel(2022), Queensland Coastal Pass.
- Schubert, D.(2010), Waterfront revitalizations: from a local to a regional perspective

in London, Barcelona, Rotterdam, and Hamburg, Transforming Urban Waterfronts, pp. 74-97.

VisitBritain(2022), Inbound COVID-19 Sentiment Tracker.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2023), A World in Motion.

Yi-De Liu, Cultural Event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European Planning Studies, 22(3), pp. 498-514.

인터넷 자료

강릉 관광 홈페이지, <https://www.gn.go.kr/tour/index.do>(검색일: 2023.7.14.)

강원일보(2023.1.25.), 강릉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본격화,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12510344862647>(검색일: 2023.5.21.)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gmdc.co.kr>(검색일: 2023.7.14.)

경기도뉴스포털(2022.12.14.), 경기도 마리아, 대한민국 ‘해양레저관광산업’ 이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212141434504478C052&s_code=C052(검색일: 2023.7.13.)

경기매일(2021.1.28.), 화성시, 제부도 마리아항·국내 최대 해상케이블카 건설 박차,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60562>(검색일: 2023.7.13.)

경기일보(2022.9.5.),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아 개발예산 증액·대안 필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905580125>(검색일: 2023.7.12.)

경북신문(2022.4.13.), 포항시,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완료... ‘해상 스카이워크’ 개장,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45872>(검색일: 2023.8.21.)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gbmuseums.org/coding/main.asp>(검색일: 2003.7.14.)

경인매일(2022.4.13.), 평택·당진항 2030년까지 5.9조원 투자, 서해권 해양관광의 거점 항만 육성,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055>(검색일: 2023.7.12.)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gfez.go.kr/kor/sub05_0106.do
(검색일: 2023.7.4.)
- 교통신문(2017.11.6.),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537>(검색일: 2023.7.7.)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seamuse.go.kr>(검색일: 2023.7.14.)
- 국민일보(2022.10.2.), 포항 호미곶 일원 국가해양정원 조성...생태·힐링 공간으로.,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29828&code=61122022&cp=nv>(검색일: 2023.7.14.)
- 국제뉴스(2023.1.25.), 제주도, 지역 특성 맞는 어항개발...서귀포항 해양레저체험센터,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1933>
(검색일: 2023.7.14.)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2013.10.4.), 기업도시,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lst.jsp?search=%EA%B8%B0%EC%97%85%EB%8F%84%EC%8B%9C&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ntn=Y&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검색일: 2023.6.7.)
- _____(2018.2.5.),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29발표),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EC%8A%A4%EB%A7%88%ED%8A%B8%EC%8B%9C%ED%8B%B0%20%EC%B6%94%EC%A7%84%EC%A0%84%EB%9E%B5&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ntn=Y&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311(검색일: 2023.6.7.)
- 남도일보(2019.12.15.), 전남 보성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선정,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078>(검색일: 2023.7.12.)
- _____(2023.6.21.), 목포·여수서 요트 타고 해양레저 즐긴다,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934>(검색일: 2023.7.14.)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2232&cid=40942&categoryId=32417>(검색일: 2023.6.1.)
- _____,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4281&cid=40942&categoryId=31931>(검색일: 2023.6.2.)
-

- _____,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46754&cid=42856&categoryId=42856>(검색일: 2023.7.13.)
- 노컷뉴스(2022.1.21.), 겨울바다에 볼 게 없다?...강릉 해중공원 다이버에 '인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694204>(검색일: 2023.7.14.)
- 농수축산신문(2022.10.7.)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43>(검색일: 2023.7.24.)
- 대전mbc(2022.4.8.), 당진 해양테마과학관, 리모델링 후 재개장, <https://tjmbc.co.kr/article/gu5NwpkwnOrll>(검색일: 2023.7.14.)
- 대한경제(2010.8.26.), 이제는 창조도시를 논의할 때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008261407558620307>(검색일: 2023.6.7.)
- _____(2021.5.3.),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시민대토론회 개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5031108370230203>(검색일: 2023.5.21.)
-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9.5.1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31524>(검색일: 2023.6.13.)
- _____(2020.3.2.), 스마트시티(지능형 도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564>(검색일: 2023.6.7.)
- 데일리안(2022.12.9.), 수원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지방자치정책 대상 수상,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2077/?sc=Naver>(검색일: 2023.6.3.)
- 동아일보(2021.6.28.), 전남 보성, 남해안 최대 해양 관광지로 '우뚝',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26/107648396/1>(검색일: 2023.7.12.)
- 라이브팜뉴스(2022.10.10.),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36559>(검색일: 2023.7.12.)
- 마린랜드 홈페이지, <https://marineland.kr>(검색일: 2023.7.14.)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홈페이지, <https://mmsm.mokpo.go.kr>(검색일: 2023.7.14.)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1.1.18.),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 무산,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1121&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2&pSearchWord=(검색일: 2023.6.13.)

-
- _____(2019.10.15.),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광역시 1곳, 기초지자체 4곳 육성,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7540(검색일: 2023.6.15.)
- _____(2020.1.28.),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5곳 선정,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776&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검색일: 2023.7.17.)
- _____(2021.1.7.),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지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599&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B%AC%B8%ED%99%94%EB%8F%84%EC%8B%9C+(검색일: 2023.7.17.)
- _____(2021.12.23.), 제3차 문화도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6곳 최종 지정,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288&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검색일: 2023.7.17.)
- _____(2022.12.6.),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89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검색일: 2023.6.5.)
- _____(2022.12.8.),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897&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검색일: 2023.6.5.)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bidView.jsp?pSeq=10001(검색일: 2023.9.13.)
- 부산 투자환경 홈페이지, https://ombudsman.kotra.or.kr/bsn-kr/bbs/i-1131/detail.do?ntt_sn=490529(검색일: 2023.7.6.)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bmc.busan.kr/osiria/contents.do?mId=010000000>(검색일: 2023.6.13.)
-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 Type=01&contents_id=GC04214577(검색일: 2023.6.26.)
-

- 부산일보(2023. 2. 9.), 창원시,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9월 준공 예정,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0914082217909> (검색일: 2023.7.13.)
- 비즈니스플러스(2021.6.1.), [포커스] ‘미래에셋 경도 개발’…지역개발인가? 투기인가?,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6> (검색일: 2023.7.7.)
-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waemangeum.go.kr(검색일: 2023.8.30.)
- 서울경제(2021.12.12.), 당진항에 레저·상업·관광 복합항만 들어선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9J0S8BV>(검색일: 2023.7.14.)
- _____(2022. 2. 6.), 울산 해양관광단지 확 달라진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1BP93B4>(검색일: 2023.7.11.)
- _____(2023.5.24.), 전남개발공사 “영암·해남 기업도시 삼포지구 청정에너지 확충 총력”,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PCRVADX>(검색일: 2023.6.7.)
- 서울문화투데이(2020.1.2.), 지역·주민 주도 문화도시, 본격 시작…1차 7곳, 2차 예비 10곳,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5>(검색일: 2023.6.3.)
- 설악신문(2023.7.10.), 민선 8기 고성군 함명준호 출항 1주년 명품 관광·해양도시 발돋움…북방교류 중심도시 건설 박차, <http://www.soraknews.co.kr/detail.php?number=26296&thread=33>(검색일: 2023.4.24.)
- 세계일보(2017.1.10.), 주철현 여주시장 “국내 최대 요트 마리나 단지 조성”,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109002593?OutUrl=naver>(검색일: 2023.7.14.)
- 솔라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홈페이지, <http://solaseado.go.kr>(검색일: 2023.6.12.)
- 솔라시도 홈페이지, <https://www.solaseado.com>(검색일: 2023.6.12.)
-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https://smartcity.go.kr/%ed%94%84%eb%a1%9c%ec%a0%9d%ed%8a%b8/%ea%b5%ad%ea%b0%80%ec%8b%9c%eb%b2%94%eb%8f%84%ec%8b%9c/%ec%84%b8%ec%a2%85-5-1%ec%83%9d%ed%99%9c%ea%b6%8c/>(검색일: 2023.6.7.)

시흥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https://siheung.dadora.kr>(검색일: 2023.7.13.)

시흥시청 홈페이지, <https://www.siheung.go.kr/economy/contents.do?mId=0303010000>(검색일: 2023.7.23.)

시흥신문(2022.12.9.), <사설> 관광 인프라 구축하게 될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149>(검색일: 2023.7.12.)

아주경제(2021.5.26.), 해수부, 제주 서귀포항에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착공,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6111110848>(검색일: 2023.7.14.)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ansanuc.net/museum>(검색일: 2023.7.12.)

여수시 여수핫뉴스(2023.5.4.),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https://www.yeosu.go.kr/www/govt/news/hotnews?mode=view&idx=502818>(검색일: 2023.7.6.)

연합뉴스(2020.7.24.), 보성군, 별교권역 관광자원 테마 로드로 잇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4103000054>(검색일: 2023.7.23.)

_____(2022.4.12.), 기재차관 “평택·당진항 집중 육성…2030년까지 5.9조원 투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110200002>(검색일: 2023.8.21.)

_____(2022.10.27.), 고군산군도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046600001>(검색일: 2023.7.19.)

영암군 홈페이지, https://www.yeongam.go.kr/home/www/info_area/life_11/info_area_15/yeongam.go(검색일: 2023.6.7.)

시사일보(2023.5.18.), 고성군,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박차, <http://www.koreasisailbo.com/972043>(검색일: 2023.10.26.)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홈페이지, <https://creativecityjinju.kr>(검색일: 2023.6.7.)

울진신문(2023.7.24.), ‘해양레저관광’ 거점지역 지정받아, <http://www.ulj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0>(검색일: 2023.9.9.)

이코리아(2023.3.8.), 세계의 스마트 관광도시, 한국과 비교하면?,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93>(검색일: 2023.6.3.)

일요신문(2022.9.11.), 경북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메카 비전 ‘착착’ 진행,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6377(검색일: 2023.7.14.)

- _____(2023.1.13.), [경남도]“장목관광단지,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구축”外,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4777(검색일: 2023.7.14.)
-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 <https://www.whalecity.kr>(검색일: 2023.7.12.)
- 전남개발공사 언론보도(2019.11.28.), 여수 경도, 내년 4월 미래에셋에 조기 양도, <https://www.jndc.co.kr/cf/Board/17855/detailView.do>(검색일: 2023.7.7.)
- 전남매일(2023.3.23.), 전남 바다는 지금 ‘주차 전쟁 중’,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79562827357219001>(검색일: 2023.7.14.)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 홈페이지, <https://www.jmfsm.or.kr>(검색일: 2023.7.14.)
- 전북중앙(2023.2.23.), 세계속 관광 전주로 ‘날개’,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765>(검색일: 2023.5.21.)
- 제주매일(2023.1.9.), 제주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재개 ‘부지하세월’,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751>(검색일: 2023.7.19.)
- 조선비즈닷컴(2015.1.20.), ‘거제 지세포 해양특구’ 관광객 몰리자 ‘거제 지세포 라티움’ 주목,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0/2015012001941.html(검색일: 2023.7.14.)
- 조선일보(2023.1.27.), 우리 미래는 바다… 울포 해양레저센터 등 해양관광 육성에 집중,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3/01/27/R46TBGDJSJCLZC2RLDJSOE5NHM>(검색일: 2023.7.12.)
- _____(2022.6.13.), 여수 낭만 바다, 요트 메카로 뜬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2/06/13/QQ5KZY7LWJA73CYJABI45EE5E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검색일: 2023.7.14.)
- _____(2023.6.28.), 엔데믹 시대, 여행 트렌드는…,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3/06/28/HKPV54JJOXJF6ZALR5MKNIX3N2Q/(검색일: 2023.9.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8.1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88433>(검색일: 2023.7.17.)
- 지이코노미(2022.2.28.),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다음달 착공,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50933>(검색일: 2023.7.14.)

창원관광 홈페이지, <https://culture.changwon.go.kr>(검색일: 2023.7.13.)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s://www.cwsisul.or.kr>(검색일: 2023.7.13.)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8100/cnnet/content.do?mnu_cd=CNNMENU00623(검색일: 2023.6.7.)

충청뉴스(2023.7.24.), 보령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박차,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21>(검색일: 2023.9.9.)

태안신문(2023.8.10.), 충남도, 원산도에 인공서핑시설 설치, 그럼 만리포는?, <http://m.tae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97>(검색일: 2023.9.9.)

평택시민신문(2022.8.24.), 한여름 무더위 날린 평택호 요트체험,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72>(검색일: 2023.7.12.)

평택시사신문(2022.7.6.),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7월 착공 2024년 완공,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83>(검색일: 2023.7.12.)

프레시안(검색일: 2023.10.26.), 김동연,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최선 지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516273425369>(검색일: 2023.10.26.)

한겨레(2022.3.29.), 여수 경도 연륙교 ‘진입로 위치’ 변경되자 주민 반발 이어져,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36730.html>(검색일: 2023.7.7.)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0.9.15.), 인천광역시, 1호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사업 대상지로,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70754&type=bd>(검색일: 2023.6.3.)

_____(2021.6.15.),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최종선정,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75799&type=bd>(검색일: 2023.6.3.)

_____(2022.3.8.), 2022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지 6곳 선정,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80668&type=bd>(검색일: 2023.6.3.)

_____(2022.6.8.), 한국관광공사, 6개 지자체와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조성,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82377&type=bd>(검색일: 2023.6.3.)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 <https://datalab.visitkorea.or.kr>(검색일: 2023.8.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742>(검색일: 2023.8.31.)

- 한국일보(2023.3.2.), 부산 지역관광추진조직 우수·관광거점도시 1위 달성,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07>(검색일: 2023.5.21.)
- 해양수산부 동정자료(2022.9.14.),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시범모델 구축 추진,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47355>(검색일: 2023.7.13.)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5.27.), 제주 서귀포에 해양레저관광 명소가 생깁니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38952>(검색일: 2023.7.23.)
- _____ (2022.12.5.), 한국의 센토사! 시흥 해양레저관광거점 착공,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48098>(검색일: 2023.7.12.)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검색일: 2023.7.13.)
- 해운대소방서 보도자료(2018.12.14.), 국내 최초 수중호텔, 아시아 최대 라군형 아쿠아리움 - 오시리아관광단지내 아쿠아월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정, <https://119.busan.go.kr/haeundae/119hdaler02/1353666#:~:text=%EC%95%84%EC%BF%A0%EC%95%84%EC%9B%94%EB%93%9C%20%EC%A1%B0%EC%84%B1%EC%82%AC%EC%97%85%EC%9D%80,%EC%9D%84%20%EA%B1%B4%EB%A6%BD%ED%95%98%EB%8A%94%20%EC%82%AC%EC%97%85%EC%9D%B4%EB%8B%A4>(검색일: 2023.7.6.)
- 헬로티비뉴스(2023.4.12.), “김포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거점으로” 활성화 모색,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010>(검색일: 2023.7.13.)
- 현대해양(2022.5.6.), 해양수산과 신설 주역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78>(검색일: 2023.7.13.)
- 화성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tour.hscity.go.kr/NEW/1tour/nature4.jsp>(검색일: 2023.7.13.)
- APC Rail International, <https://www.acprail.com/rail-passes/rail-australia/queensland-coastal-pass>(검색일: 2023.10.5.)
- Barcelona website, https://www.barcelona.cat/en/coneixbcn/pics/el-moll-de-la-fusta_99400095445.html(검색일: 2023.7.10.)

City of Goldcoast website, <https://www.goldcoast.qld.gov.au/Doing-business/Supporting-business/Business-incentives-investment-programs/Investment-business-attraction-program>(검색일:2023.9.11.)

Darren Bradley Photography, <https://www.darrenbradleyphotography.com/post/la-grande-motte-france-s-modernist-city>(검색일: 2023.6.26.)

Disignoutsider website, <https://www.designoutsider.com>(검색일: 2023.6.7.)

Disney Cruise website, <https://disneycruise.disney.go.com>(검색일: 2023.10.5.)

EU website(2023), <https://culture.ec.europa.eu/policies/culture-in-cities-and-regions>(검색일: 2023.6.6.)

Go Guides, <https://kr.hotels.com/go/spain/port-vell-barcelona>(검색일: 2023.7.3.)

Hull live website, <https://www.hulldailymail.co.uk/news/hull-east-yorkshire-news/gallery/spencer-tunick-created-spectacular-sea-112188>(검색일: 2023.9.30.)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검색일: 2023.6.8.)

KTV 국민방송(2023.1.6.),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문화도시 지정·로컬브랜드 활성화, https://www.ktv.go.kr/news/sphere/T000021/view?content_id=666797(검색일: 2023.9.11.)

NEWSIS(2023.8.31.), 장미란 차관-이부진, K관광 1천만 명 달성 의기투합,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831_0002433112(검색일: 2023.10.5.)

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 website, <https://www.sentosa.gov.sg>(검색일: 2023.7.17.)

Visit Britain website, <https://www.visitbritain.org/2023-tourism-forecast>(검색일: 2023.10.5.)

We Are Goldcoast website, <https://www.wearegoldcoast.com.au/business-invest/precincts/marine-precinct>(검색일: 2023.6.26.)

YTN(2023.2.19.), 해수부, 부산·전남·경남과 ‘한국판 칸쿤’ 조성 추진 협약,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191143496354(검색일: 2023.7.13.)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3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여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생태복원을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2022년

01	선박투자 가치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 연구	박성화
02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스템 가격결정 모형 연구	서정용
03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정지호
04	탄소중립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권장한
05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상원
07	MZ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해양관광 추진방안 연구	최일선
08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심성현
09	행위자기반 해양공간계획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조성진
10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승현
11	탄소중립 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 연구 - 육상 어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12	수산식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 - 가공업을 중심으로 -	김지연
13	해양환경보전정책 도입방안 연구	박수진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테이너 해운산업 대응방안 연구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최건우
15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김세원
16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제물류 분야 대응방안 연구 - 전기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권보배
17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18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 연구	허성례
19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 IUU 수산물을 중심으로 -	안지은
20	양식수산물 유통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이기영
21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구 - 신남방 지역 ICT산업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물류 공급사슬 대응방안	최나영환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에 대비한 해양분야 대응방안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Ⅰ 2022년

01	항만의 탄소중립 이행·관리 표준안 연구	안용성
02	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의 이해관계 분석과 관리방안	윤성순
0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에너지·곡물을 중심으로	조지성
04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	윤인주
05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박예나
06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정비 방안 연구	좌미라
07	우리나라 수산종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8	2050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수립 연구	김민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 시스템 기반구축 방안 연구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II)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II)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희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Ⅰ 2022년

01	건화물선 시장 비용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위험관리지표체계 구축	류희영
02	해상운임 예측모형 고도화 연구(Ⅰ)	황수진
03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김한나
04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개발 연구	황재희
05	CGE 기반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해양수산업 부문 파급효과 분석	임병호
06	글로벌 수산업 부문 이머징 이슈 분석 모델 개발 연구	한기욱
07	양식 수산물 중장기 수급전망모형 구축 연구 - 굴을 중심으로 -	김철현
08	Network DEA를 이용한 물류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연구	황선일
09	해양수산 사업체 성과 및 효율성 분석 연구	김주현
10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양식 명계 단수 추정방안 연구	천성훈
11	수입수산물과 국산 간의 대체관계 분석 연구 - 활·신선냉장품을 중심으로 -	박혜진
12	국내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연구	전서연
13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Ⅰ) - 자동차, 석탄, 고철, 시멘트를 중심으로 -	최석우
14	해양수산 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Ⅱ)	김찬호
15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적용방안 연구	이종필
16	국가 해양전략 기본구상 연구	정현욱
17	선박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조아현
18	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상균

수시연구 2023-02

북함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인쇄 2023년 11월 28일

발행 2023년 11월 30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디자인글꼴 (051-636-121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a Marine Leisure and Tourism Cit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값 15,000원
93300

9 791168 661356
ISBN 979-11-6866-135-6